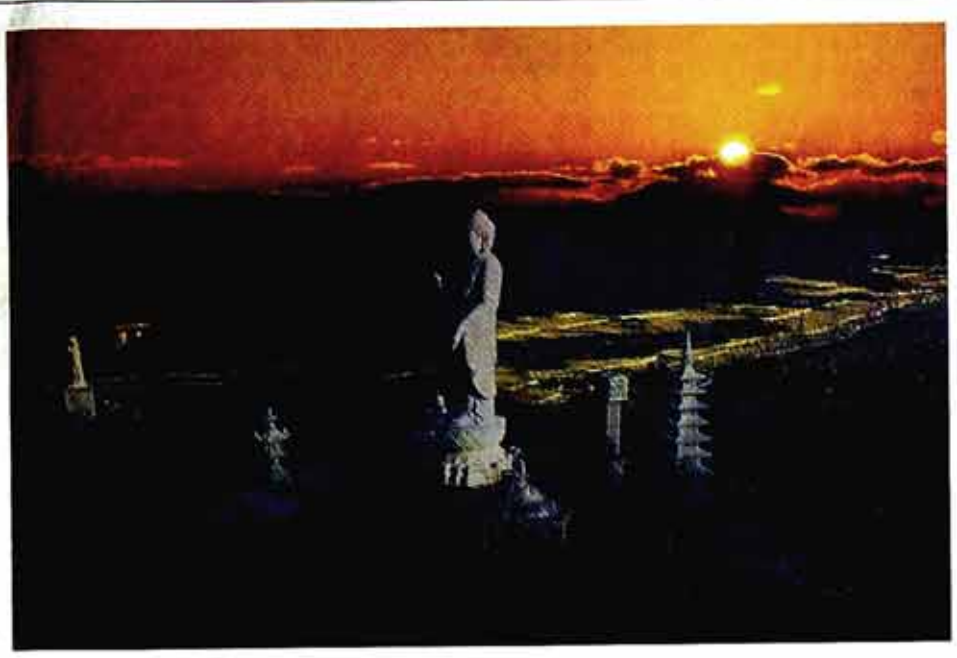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영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화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5 호



새아침 맞는 통일전망대 미륵부처님

찬란한 해덩어리. 동해의 어둠을 가르고 솟구쳐 오른 해가 온 국민의 시름을 씻어주었다. 한 세기를 마무리 하는 올 해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설레임이 있어 더욱 활기차게 시작됐다.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서서 북녘을 바라보며 통일의 염원을 전하고 있는 미륵부처님을 비추는 새아침의 햇살은 북 동포들에게도 따사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고영배 기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당선

29일 1차 투표 283표중 167표 얻어…투표참여율 90%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고산스님(64 · 쌍계사주지)이 당선됐다.

구랍 29일 오후1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산스님은 1차 투표에서 167표를 얻어 총무원장에 당선됐으며 지선스님(52 · 백양사주지)은 115표를 얻었다.

11월 12일과 18일 두차례의 무산 뒤에 치러진 이날 투표에는 74명의 종회의원, 240명의 투표인단 등 전체 투표인단 314명 가운데 90%인 283명이 참가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전국의 교구본사에서 고루 참여했으나 통도사 선거인단 10명은 전원불참했다. 정화회의측 상임위원급 스님도 일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덕운스님의 인사로 시작된 선거는 오후 1시부터 시작, 오후4시 투표가 완료돼 곧바로 개표에 들어갔다. 개표 시작에서부터 지선스님을 앞지르던 고산스님은 52표를 더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고산스님 인터뷰 2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덕운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고산스님은 "전국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나에게 이런 힘을 부여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을 안정시키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에앞서 지선스님은 "고산스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결과는 선거인단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차후로도 종단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고산스님은 당선직후 총무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또 스님은 구랍 23일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청사 퇴거 집행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과 경찰병원을 각각 방문 위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30일 선거가 끝난뒤 당선자 고산스님(오른쪽)에게 지선스님이 축하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원로회의, 고산 총무원장 인준

22명중 14명 참석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구랍 30일 오전 10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8차 원로회의를 갖고 고산스님을 제29대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원로의원 스님 중 의장 혜암스님과 부의장 원담스님을 비롯 석주, 운경, 응담, 숭산, 녹원, 탄성, 지종, 법전, 정천, 성수, 도원, 보성스님등 14명이 참가했다.

원로회의는 또 11월 30일 승려대회 결의사항을 정식 인준 했으며 11월 14일 구룡사 원로간담회 소집과 결의사항은 무효임을 결의했다.

한편 원로회의 사무처장에는 성법(진주 호국사 주지)스님을 임명했다.

임연태 기자

한국불교 개선사항 '사찰재정 공개' 첫째과제

현대불교 '99 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50제 선정

"사찰재정은 명명백백하게 공개 운영돼야 한다." 승가, 재가를 불문하고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제1의 개혁 대상으로 '비공개 사찰재정'을 꼽았다.

본지가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란 제목의 99년 연중캠페인을 1회, 구랍 12일부터 23일까지 교계에서 광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대중 50명에게 주제 선정을 의뢰해 확정한 50개 주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사찰재정 비공개'를 '고칩시다'의 주제로 제출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26명(승가 10, 재가 16)이었다. 승가, 재가 모두에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사찰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를 밝히고 집행에서 결산까지 통제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이의 철저한 시행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사찰분규와 승려도박등 불교를 얼룩지게 하는 원인이 '보이지 않는 돈'에 있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주제 선정자들은 또 '무너진 계율' '승가위주의 종단운영' '분쟁의 과법 조장' '총무원 역할'을 상위 5위로 꼽아 지난 해 7월 승려도박사건과 11~12월 터진 조계종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4면에 50개 주제>

50개 주제 가운데 '사문화된 종헌종법' '승려대회 남발' '선거제도' '승려교육' 등 승단에 관계된 것이 21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한국불교 발전의 걸림돌과 도약점이 승단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스님들의 도박 음주 흡연과 혼들리는 계율을 지적해 흐트러진 승풍의 모습을 반영했다. 이는 주제 선정에 참여한 승가, 재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나타나, 스님들 스스로도 승가의 변화를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도들과 관계해서는 '기복신앙' '제역할 못하는 신도회' 등을 꼽아 재가자의 자기점검도 촉구했다. 또 '사회복지' '인권문제 소홀' '관광사찰 포교' '농어촌포교' 등도 과제로 선정해 더욱 활발한 사회, 포교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주제 선정에서는 또 '토론문화 부재' '잃어버린 무소유 정신' '전문가 양성 무대책' 등 한국불교가 지닌 전반적인 문제점도 개혁과제로 떠올랐다. '인색한 문화·예술 지원'도 문제로 제기돼 주목된다.

50개 주제는 "한국불교, 이대로는 안된다"는 불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이며, 한국불교가 새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지는 99년 한 해 동안 매주 1개씩의 주제를 실어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신년 특집 28면 발행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 50제 4면
좌담: 조계종 개혁을 위한 과제 5면
2000년을 여는 불교지상포럼 프롤로그 9면
고령화시대의 불교역할 11면
선방일기 12면
시방세계 : 99년 원력불자들 13면
경전속 토끼설화 · 불교 기묘년사 16면
불교의 통일운동 21면
99년 한국불교 정보화 어디까지 25면
제4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2 · 23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해가 밝았습니다. 기묘년 토끼 해를 밝히며 떠오른 찬란한 햇살이 독자 여러분의 가정을 일년 내내 밝혀 주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많은 이웃들이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또 불자는 물론 국민들은 예기치 않았던 조계종 사태로 가슴에 멍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일수록 희망은 더욱 새롭습니다. 조계종 사태가 불교발전의 새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일궈내는 지혜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희망만을 노래하고 나 보다는 이웃의 기쁨에 더욱 즐거워하는 한해가 되도록 현대불교신문은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1월17일 영각사 극락영묘전 상량기념법회



-부처님 정법을 구현하고 있는 영각사 극락영묘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영각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교복지 차원의 초현대식 최첨단 시설의 극락영묘전 상량기념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월 1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대한 불교 조계종 군자봉 영각사
■증 명 : 탄성 큰스님
■행사안내
제1부 : 상량식기념법회
제2부 : 불자 연예인 축하공연

대한불교조계종 영각사
TEL:(0345)498-7700(代)
현장 상담실
TEL:(0345)498-8081~2

문화사업단
TEL:02)792-3113 FAX:02)792-8558

신년사설

'새로움'을 화두로 삼자

99년 한국불교계에 '새로움'을 화두로 제의코져 한다. 문명사의 최대전환기라 불리는 오늘날이 인류에게 새로운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한국불교계 현실이 새롭게 거듭나야할 당위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 이전, 동서양 어디서나 종교적 엘리트는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풍요로운 물질과 생활의 편의만을 추구하기 시작한 산업화는 결정적으로 '종교'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제 그 산업화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미 시작된 정보화 시대는 다시 종교적 천재와 종교적 엘리트를 기다린다. 물질적 충족과 높아지는 과학기술의 세계는 그만큼 더 깊고 풍요로운 정신세계와의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불교도 원효스님 의상스님같은 종교적 천재들이 태어날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실천적 준비를 서두를 때다.

21세기라는 미지의 세계가 요구하는 불교는 단순한 복고(復古)가 아닐 것이다. 불교의 본래 모습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나는 불교, 날마다의 새벽을 새롭게 장식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는 그런 불교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불교역사도 기존 형식과 교리의 무조건적 추종 아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용, 새로운 틀을 짜는 지혜로 그 맥을 이어오지 않았는가.

'새로움'의 화두는 시대적 분위기, 시대상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 사람들의 지식수준은 날마다 새롭고 풍부해져 간다. 이들을 절복(折伏)시킬 힘을 얻으려면 이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중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지적수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 교화력 또한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승가가 어찌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랴.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까닭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보의 하나인 승가교육의 절실함이 여기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올해는 승단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급하다. 불교의 권위는 불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불교 승단에 사회적 권위란 없다. 수행집단이 지켜야 할 계율도 청규도 이미 무너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승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 역시 승가교육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계율도 청규도 수행이나 포교 어느것 하나 교육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승단 교육체계는 오랜 전통으로 그 이름이 높다. 그러나 과연 그 틀이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승단교육의 경직성은 동양전통에 따른 맹목적 권위의식과 인습적 관행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훈고학적인 방법론과 전근대성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식이나 어느 한 교과적인 불법에 지나친 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도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교단내에서 70년대부터 교육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지부진, 발빠른 대응을 보여준 적이 없다. 열의를 가지고 후원하려는 사찰 사암이나 신도도 드물다. 이제 불교의 전 역량을 승가교육에 모아주어야 할 때다. 더이상 미룬다면 불교의 위상은 추락을 계속할밖에 없고 중생들에게 삶의 참의미를 깨우쳐 주는 본래의 역할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박제가 되어버린 불교, 문화재로만 남게된 불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불교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석가세존의 수승한 가르침에 있다. 해방 이후 무시무종이라 불릴만큼, 아니 이제 만성이 된 승가의 분쟁 속에서도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아직 높은 정신세계를 넉넉히 지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법이 있음으로써다. '날마다 새롭게'는 불법이 구태의연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결코 박제가 될 수 없는 생명 그것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미래를 담보할 종교적 천재를 불교가 배출할 것이라는 당위도 여기서 읽게 된다. 세존의 가르침인 불법이 있는 한 불교에 추락은 없고 절망도 없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불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제 인생에서 행으로 이를 보여줄 인물, 현대인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며 중생을 능히 섭수(攝受)할 수 있는 새로운 스님, 승가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문명전환기의 최대 문제인 인간정신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복원에도 앞장서 나설 것이며 인류문명 최대전환기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새로움'의 화두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

"종도들 질타 겸허히 수용 종단 본래자리 찾기 최선"

조계종 29대 총무원장 당선 고산스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고산스님은 "종도들이 큰 소임을 맡겨 준 것은 이번 종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종단을 안정시켜 발전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안다"며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운영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놓았다.

-종단 사태의 수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를 종단이 바로 서는 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뜻 있는 종도대중이 합심단결하고 종단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통일된 종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결이 작은 강을 벗어날 때 망망대해가 열리듯이 개인의 이익이나 문중, 파벌, 교구 차원의 소승적 안목을 버리고 종단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개혁의 과제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종단개혁 기조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종단이 중생을 제도하는 반야선이 되기 위해서 개혁과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하기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29대 총무원은 94년 개혁불사 이후 제기된 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오늘의 종단현실과 사회현실을 반영, 의식과 관행, 사람,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종무의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는.

▲승려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수행정진함으로 종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화개혁회의에 소속된 스님들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악은 악의 씨앗을 뿌리는 법입니다. 대화합의 정신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사회의 법이 있듯이 승가에도 승니법이 있습니다. 법에 기초하고 종단내 중진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스님이 당선된 것과 관련 종권이 한 쪽(문중)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문중간의 이해나 그로 인한 갈등을 없애고 대화합의 기초위에서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집행부의 당면과제란 것을 모든 종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화합의 정신은 통합과 발전의 실천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고산스님 193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4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사미계·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등에서 18 하안거를 성만했으며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75년 조계종 총무부장, 조계사·은해사주지를 역임하고 2차례 종회의원을 지냈다. 94년 이후 호계원장을 맡고있는 스님은 강백으로서 율사의 맥도 잇고 있다.

공원공단,북한산 훼불 '사과'

관음상복원-재발방지책 마련 등 약속

북한산내 관세음보살상 훼손으로 물의를 빚어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이 수습 및 재발방지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랍 24일 "무속행위터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단직원의 소양부족으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수습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건관련자 중징계, 훼손된 관세음보살상 복원, 전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확립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 사무소에 공원내 불상 및 각종 문화재 등 유물에 대한 보호관리 철저와 각종 문화재 등 유물의 관리방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훼불사건이 발생했던 동부관리사무소는 구랍 30일 오후 4시 조면구 계장(성동구청 감사담당관실)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조계종 포교대상 1월중 시상

구랍 23일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한 포교원은 종단사태로 연기됐던 포교대상 시상식, 포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1월중 실시키로 했다.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지침서' 발간사업과 불자의식 조사사업도 계속한다. 포교원은 구랍 30일 포교국장 성수스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교원은 또 3회 포교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응시 기회는 별도로 주지 않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실시된 포교사고시에 조계사불교대학과 삼화불교대학 졸업자 1백여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포교사단도 6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지역 포교사 모임을 갖고 포교사단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중앙종회가 1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어서 새 포교원장도 이때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무원장의 권한을 포함해 포교원과 교육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종헌종법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헌종법 특위원장 정휴스님 선출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구랍 26일 오전 11시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휴스님을 선출하고 간사에 현응스님(종회의원)과 종수스님(총무원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총무원장 별도선출 추진

정화회의 2차 본회의

정화회의는 구랍 29일 서울양재동 구룡사에서 84명의 정화회의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헌종법과 정화개혁회의법 개정, 정화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화회의는 종헌종법과 정화개혁회의법을 개정, 총무원장을 정화회의에서 선출해 종정이 임명토록 했다. 본사주지도 총무원장이 추천해 종정이 임명토록 했다.

정화회의는 또 재단법인인 선학원과 대각회의 특별교구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새 원로의원에 도성(전 대둔사주지) 도은(대구 지장사) 도봉(동화사) 서주(통도사)스님을 추천했다.

본회의 이후 열린 '12·23 법난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원경스님(전 신륵사주지)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29일 선거는 무효"

설조-대우스님 이의신청

설조스님(前 불국사주지)은 구랍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29일 치뤄진다면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1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선거가 두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입후보등록을 다시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설조스님은 구랍 27일 대우스님은 28일 각각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연태 기자

사과드립니다 204호 신문 발송과정에서 인쇄상태가 좋지못한 신문이 일부 지역에 발송됐습니다.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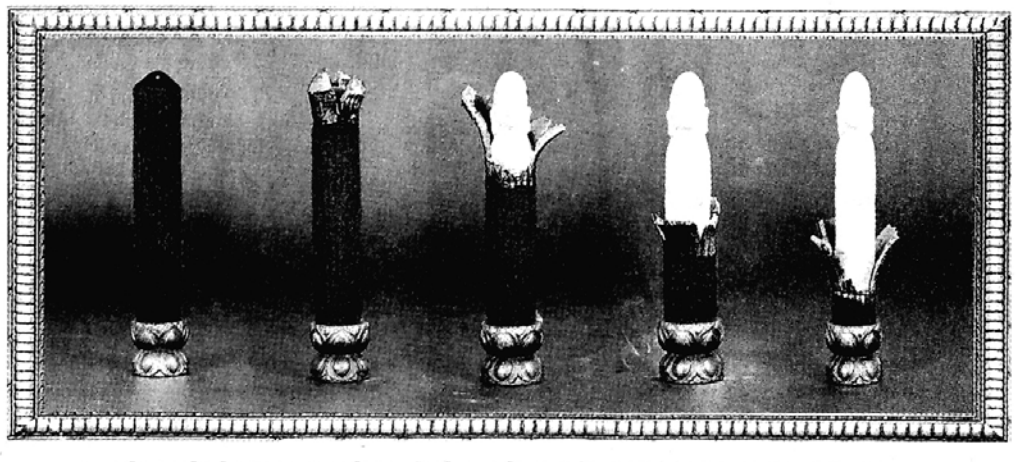
화합과 도약의 해로!

佛紀 2543년 謹賀新年

의장 19350
등록 28434
특허 48510

국내 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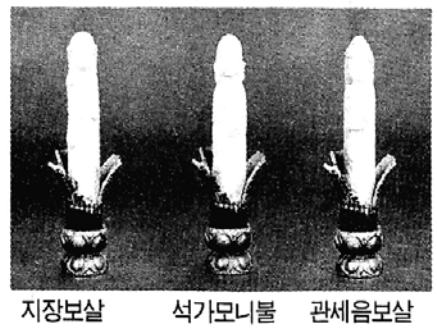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당향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卍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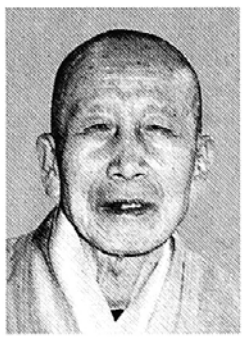
■ 구입 및 대리점 문의 바랍니다 ■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 광주·전라남,북/ 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인터뷰 참회문 발표한 서옹스님

"길은 한가지 입니다 탐욕·명리 버리고 무아자비로 화합"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종교로, 불법(佛法)을 갖고 있는 불교가 왜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모두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인간주의의 근원인 '참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87)은 12월 28일 조계종 분규와 관련, 종단 어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동안 계속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참회문을 발표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12월 10일부터 5일간 대만불교를 돌아보고 귀국한 서옹스님은 조계종 분규로 인해 백양사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 머물고 있다.

"어떠한 명리(名利)도 부처님의 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서로 존경하고 용서하며 불교 근본정신인 자비화합(慈悲和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질서에 바탕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면 지금 같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고(苦)는 모두 식(識)을 연해서 생기(生起) 합니다. 선(禪)에서는 식을 없애고 무의식(아뢰야식)까지 없애 무한히 벗어나 무한히 현성(現成)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정법 그대로지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자비화합의 바탕에서 서로 협조하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계종 분규로 인한 노스님의 상심이 컸던 탓일까. 지난 해 8월 백양사 무차선회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불자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일로 부처님 법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바꾸려 하고, 길이나 버스에서 스님들에게 욕도 한다면서요. 부처님 제자라고 믿었던 스님들이 그렇게들 싸우니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모두 악하지요. 스님들의 싸움에 실망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법은 위기에 처한 인류를 이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눈 앞의 분쟁만으로 등 돌리기 보다는 큰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내기 위한 정진을 하세요. IMF로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서옹스님은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새해를 맞아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길은 한가지입니다. 탐욕과 명리를 버리고 무아자비(無我慈悲)의 정법(正法)으로 참선해야 합니다. 스님의 본분은 어떤 일보다 수행이 우선해야 하며, 재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냉정하게 성찰하세요. 인간관계를 무연(無緣)의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인식하여 서로 존중하고 봉사한다면 질서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조계종 원로 서옹스님은 조계종 분규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참회문'을 직접 써서 발표했다.

서옹스님 '조계종분규 참회문'

우리 조계종은 무아자비(無我慈悲)의 정법(正法)을 이어 국민과 인류를 자비화합의 바탕에서 구제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나 현금(現今)에는 우리 종도(宗徒)들이 훌륭한 전통을 망각하고 탐욕과 명리(名利)에 끄달려 종도들끼리 폭력난투(暴力亂鬪)하고 있으니 불조(佛祖)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류의 화합과 행복에 크게 해독(害毒)을 끼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어찌 통곡과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오면 종단의 어리석은 이 늙은 서옹은 어려서는 부모와 집안 어른들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학문도 닦았고, 출가해서는 스승과 도반 덕택으로 수행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헛나이만 많이 먹어 종단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버리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지금의 종단 불상사는 이 우노(愚老)의 탓이라고 통감합니다. 그러므로 삼보(三寶)와 사부대중과 국민과 인류에게 지성참회(至誠懺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은 탐욕과 명리를 버리고 무아자비의 불심(佛心)에서 상호 용서하고 상호 존경하고, 상호 협력하여 여법질서(如法秩序)로써 인류를 구제하는 자비화합 종단을 건설합시다.

불기2542년 12월 28일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서옹스님 신년 휘호

臨機不讓師 (임기불양사)
日日是好日 (일일시호일)

참선에 임하는 제자가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 것처럼
참선은 걸림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참선을 통해 자유자재하게 살면 나날이 즐겁다.

새아침 칼럼



고 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새해라고? 새해이므로 무슨 가슴팍 포근한 덕담이나 해보라고? 개수작이다. 이제야 조주의 개가 뭔가 짐작하겠다. 새해도 조주도 개수작이다.

조계사는 한국의 수치다. 세계 만방에 생중계된 조계사 난동은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2백만 이상의 남녀노소가 굶어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그 남쪽에서는 실업자 2백만명이 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추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한국이야말로 저주의 땅이 아닌가 여기게 하고도 남았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1600년의 수치다. 고대 불교의 타락이 없었던 건 아니다. 조선불교의 길고 긴 비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일제식민지시대 친일불교의 꼬라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중에도 그 한쪽에는 보우와 보조가 있었고 서산·사명이 있었다. 만해·만공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함께 진승(眞僧)이 있었다.

1950년대 비구승단의 조계종 이래 간단없는 종권싸움은 이제 그 절정에 이르러 조계사 담 벼락에 구멍을 내어 신임자가 들어가는 그 누추한 광경은 차라리 동화처럼 사상스럽기까지 하다.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은 아수라종이다!

나는 80년대초 감옥 안에서 전두환정권이 조계종 집행부나 실력자들을 군홧발로 들이닥쳐 끌어가 마구 두들겨 팬 소식을 듣고 군부독재는 반드시 그 행패만으로도 시대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지금은 그런 일이 몇번쯤 더 있어야 제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오늘의 종단에 대해서 한 가닥 연민조차 아까운 노릇이다. 걸핏하면 '법난' '법난…'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의 실정법이 차라리 모호해서 더 가혹한 처단이 없는 것에 나는 불만이다. 그런 '법난' 열번이라도 있어서 그 난동의 탐욕 속에 가득채워진 무지와 파렴치를 조금이라도 탕감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뺑 밖에 없다. 대승불교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가장 졸렬한 소승불교이다. 진정한 옛 대승불교는 새로운 진리 실현을 위한 젊은 세력과 세속의 양심세력이 평등하게 이룬 변혁의 불교였다. 거기에는 내가 제일이다 라는 아상(我相)이 용납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장로주의도 없다.

그런데 오늘의 불교판은 겉치레, 권위의 소승일 뿐이다. 전혀 정신의 계행 없는 수작을 대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런 거짓된 대승은 망승(亡乘)이다.

참다운 뜻으로는 상가(승가)는 불교 3보 중의 하나인 승보가 승려만을 가리키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 사회 전체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아니 이 세상의 3세가 승가 아닌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도 승들만의 의미로 만들어 저희들에게 합장 배례하라, 저희들에게 바쳐라, 저희들 말이라면 흙으로 메주를 쑨다 하더라도 만고의 정법(正法)이라고 믿어라 하고 있다.

종정이라는 것도 총무원장이라는 것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몰라. 그것을 모르고 불교를 팔고 있는 죄업이 무간지옥도 아깝다는 것을 왜 몰라.

조계사 지난 해 12월의 적나라한 행태는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산중에서 새 소리도 듣기를 마다하고 삼매에 든 선방 수좌도 있으리라. 지금 대장경 속의 오묘한 요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교학의 촛불도 있으리라. 지금 염불이 염불선에 들어 웬만한 돈오돈수의 간화보다 점수의 착실한 수행보다 지극한 축도 있으리라.

허나 초파일 종정법어나 여러 방장, 조실의 해제법어도 도무지 참된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 허상을 무엇으로 돌려놔야 하는가.

나는 오늘 아침 〈금강경〉 한 권을 땅에 파묻도다. 조계종 소의경전(所依經典)이다. 그 경 속의, 네가지 상(相)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도 전혀 개수작 같아서였다. 한국불교에는 가리왕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에는 세상에 의한 신탁통치와 준엄한 심판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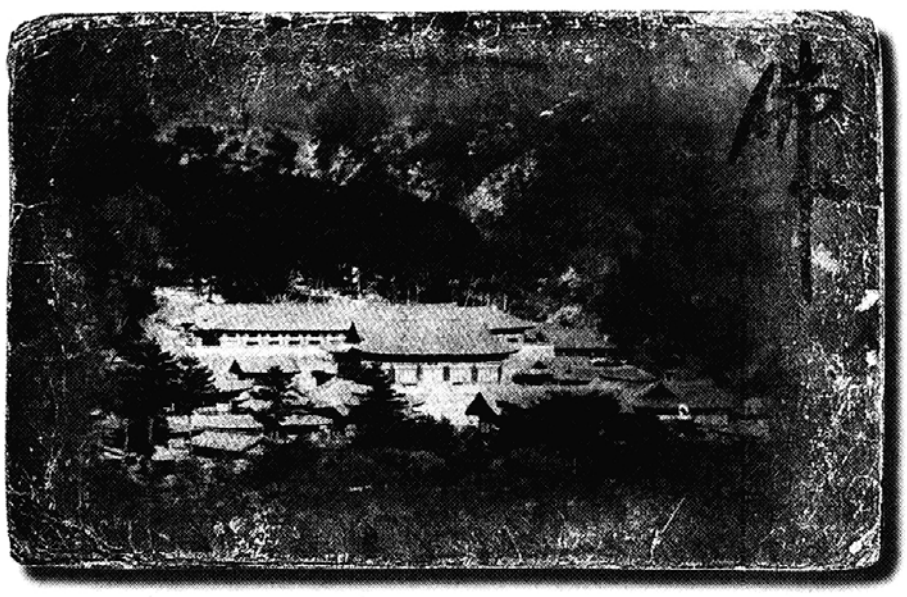
아 조계사!

금강경을 파묻었다

> 거짓된 대승엔
> 한가닥 연민조차
> 아까운 노릇이다
> ⋮
> 한국불교에는
> 가리왕이 필요하다

佛紀 2543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희망찬 21세기!
2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화합의 새해를 열어 갑시다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慧庵
總 務 院 長 杲山

위사진은 해인사 100년전 사진(사진으로보는 조선시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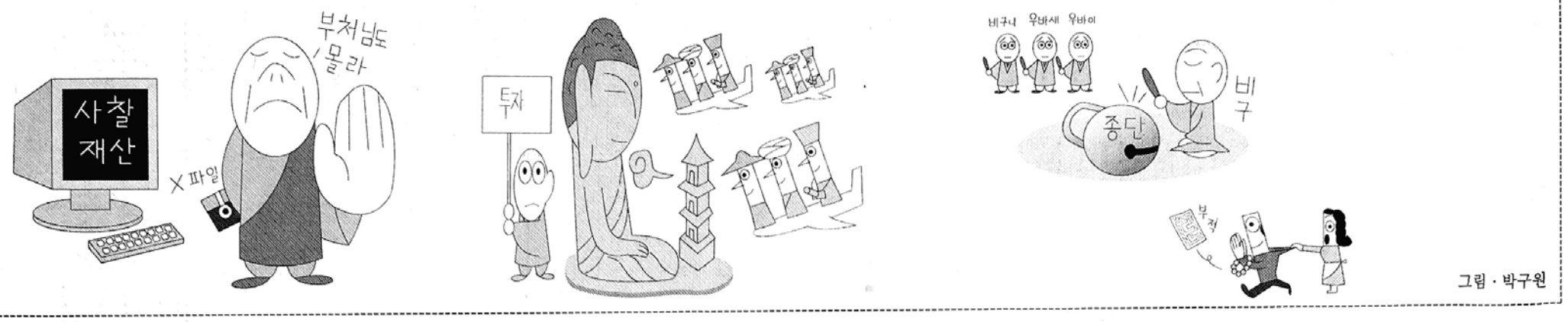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나 하나 실천 새 당간지주 세우자

현대불교 99년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50제

한 종교학자는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통합은 깊고 넓은 세계관을 지닌 종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진단했다. 종교학자의 진단이 아니어도 '한국불교, 이대로는 안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대로 해서는 불교가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현대불교신문은 99년 연중기획으로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에 나서기로 하고, 사부대중 50명에게 구랍 12일부터 23일까지 주제 선정을 의뢰해 50개 주제를 확정했다. 본지는 '이것부터' 주제를 매호 마다 실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지상캠페인을 전개한다. 불교의 당간지주를 새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사찰재정 비공개** 사찰분규 및 도박 축재의 첫째 원인은 돈. 재정공개를 제도화해 원인을 근절해야 한다. 조계종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시행하는 사찰은 몇 곳 되지 않는다.

▲**무너진 원로 권위** 불교공동체의 유지는 부처님법과 원로들의 존재로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엔 어른 스님이 계시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온다.

▲**4부중 위주의 종단운영** 종단은 4부중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구 중심의 운영이다. 경쟁력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선 2부계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사문화된 종헌종법** 종헌종법을 사문화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지키지 못할 법은 아예 폐기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비구니의 역할** 승려 숫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그럼에도 종단 운영이나 정책결정에 비구니 스님은 소외되고 있다.

▲**문중의 파벌 조장** 모두 일불제자이며 도반이다. 그런데 어느 문중이 종단의 주도권을 잡느니 하는 말들이 오간다.

▲**승려대회 남발** 종권싸움에 승려대회가 도구화되고 있다. 승려대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총무원의 역할** 언제부턴가 총무원은 권력기구로 변질됐다. 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임에 틀림없지만, 통제기관은 아니다. 성격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소임자를 뽑는 일로 분규를 겪었다. 불교 고유의 전통에 바탕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종단간 불협화음** 언제까지 집안 싸움으로 정재와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찰마다 다른 의식** 불교의식은 불교의 외적 표현이다. 가장 많이 봉독하는 반야심경이 절마다 음률이 다르다. 범종단적인 의식의 통일이 시급하다.

▲**스님 대형승용차 이용** 승용차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런데 세인들의 구설수감이 되었다.

▲**스님 노후복지** 중생의 귀의처가 되었던 스님들의 노후가 쓸쓸하다. 스님들의 축재의 한 원인으로 노후복지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승려교육** 인천의 사표를 배출하는 승려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감로법문은 교육과 수행에서 나온다.

▲**승려 권위주의** 승려와 신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존경과 귀의처가 되기 위해, 신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을 때 존귀하다.

▲**역할에 맡는 소양교육** 전문화시대다. 전문적인 소양이 없이는 감동을 창출할 수 없다. 자리에 사람만 앉혀서는 안된다.

▲**무분별한 승려 의제** 요즘엔 하늘색 승복까지 등장했다. 불교 정신과 품위를 드러내는 의제의 통일이 시급하다.

▲**관광지화된 도량** 유명 관광지에 인접한 사찰은 행락철이면 몸살을 앓는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스님의 도박 음주 흡연** 일부 승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음주 흡연은 다반사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 여기에 도박까지 가세해 한국불교를 썩히고 있다.

▲**무너진 계율** 계율이 존재하는가. 새삼스럽다. 말법시대일수록 계행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실종된 자자와 포살** 보름과 그믐, 한 달에 두 차례 허물을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이었는데, 요즘은 자자와 포살이 뭔지조차 모르게 돼버렸다.

▲**토론문화** '뒷방공사'는 토론 부재의 불교계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한 집단의 건강성은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에 있다.

▲**고액의 법문비** 어른 스님의 감로법문을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도 법문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찰도 있다. 어른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찰을 찾아 법문해주자는 제안도 있다.

▲**호텔 행사** 어지간한 행사는 호텔에서 치른다.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지만 사찰만큼 훌륭한 장소가 또 어디 있는가.

▲**고증없는 건축불사** 선조들은 집 짓는다고 해서 산과 들의 모양새를 흐트리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혜는 옛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

▲**정치 권력에 밀착** 왕에게도 절하지 않는 기상을 불교는 지녀 왔다.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일은 불교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역할에 맡는 소양교육** 전문화시대다. 전문적인 소양이 없이는 감동을 창출할 수 없다. 자리에 사람만 앉혀서는 안된다.

▲**무분별한 승려 의제** 요즘엔 하늘색 승복까지 등장했다. 불교 정신과 품위를 드러내는 의제의 통일이 시급하다.

▲**관광지화된 도량** 유명 관광지에 인접한 사찰은 행락철이면 몸살을 앓는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스님의 도박 음주 흡연** 일부 승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음주 흡연은 다반사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 여기에 도박까지 가세해 한국불교를 썩히고 있다.

▲**무너진 계율** 계율이 존재하는가. 새삼스럽다. 말법시대일수록 계행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실종된 자자와 포살** 보름과 그믐, 한 달에 두 차례 허물을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이었는데, 요즘은 자자와 포살이 뭔지조차 모르게 돼버렸다.

▲**토론문화** '뒷방공사'는 토론 부재의 불교계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한 집단의 건강성은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에 있다.

▲**고액의 법문비** 어른 스님의 감로법문을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도 법문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찰도 있다. 어른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찰을 찾아 법문해주자는 제안도 있다.

▲**호텔 행사** 어지간한 행사는 호텔에서 치른다.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지만 사찰만큼 훌륭한 장소가 또 어디 있는가.

▲**고증없는 건축불사** 선조들은 집 짓는다고 해서 산과 들의 모양새를 흐트리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혜는 옛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

▲**정치 권력에 밀착** 왕에게도 절하지 않는 기상을 불교는 지녀 왔다.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일은 불교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불교정보화** 21세기는 정보가 발전의 속도와 질을 좌우한다. 불교가 지닌 가치들을 정보화하지 않으면 2류로 처진다. 정보마인드의 확립과 투자가 절실하다.

▲**기복 및 무속** 신앙 부적이 불교의 한 신앙 형태인 것처럼 행세한다. 선업을 쌓으면 자연히 복전은 넓어진다.

▲**생활과 교리의 괴리** '부처님은 이럴 때 어찌 하실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권위있는 불교적 해석이 절실하다.

▲**재가자 법계** 종단 및 사찰운영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선 재가자의 법계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체계화 안된 신도교육** 사찰마다 교양대학 설립붐이 일었지만, 전체 사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도교육은 여전히 사찰 대소사에서 끝자리이다.

▲**일주문 안 차량진입** 옛 사찰엔 일주문 밖에 하마비를 세웠다.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기 때문이다. 도량을 불자들 스스로가 장엄해야 한다.

▲**부실한 신도관리** 축원카드 관리가 고작이다. 신도들의 조직화, 역할 부여 등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역할 못하는 신도회** 신도회의 상황점검과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신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정불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도량이다. 가족 불자화, 가정의 도량화로부터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불서 안읽는 풍토**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의 1년 불서 독서량이 겨우 1권에 머물렀다. 불서 읽기도 수행의 한 방편이다.

▲**인색한 문화 · 예술 지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불교는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이며 보고이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인류의 정신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

▲**사찰문화재 관리** 도난, 훼손으로부터 성보를지킴은 물론 성보에 깃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

▲**방치된 폐사지** 폐사지는 선인들의 수행처였다. 문화유산의 깃든 곳이다. 방치된 폐사지에 푯말이라도 세워야 한다.

▲**언론 모니터** 방송과 신문에 의한 불교의 왜곡 · 폄하가 심심찮다. 불자들의 감시와 시정요구만이 바로잡는 길이다.

사부대중 50명 주제 선정에 참여
주1회 집중 조명 지상캠페인 전개

정리=정성운 · 김원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주제 선정에 참여해주신 분들

월운스님 동국역경원장
현성스님 청소년교화연합회장
보광스님 동국대1백주년기념사업 본부장
성운스님 인덕원 원장
각현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성우스님 조계종 계단위원
일화스님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호명스님 태고종총무원 사회부장
지현정사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지광스님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도성스님 영등포사암연합회 회장
종림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성일스님 청소련 인천지부장
수암스님 제주불교총연합회장
돈관스님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해우스님 순천 선암사 재무국장
지광스님 삼선포교원장
혜원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상덕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법장스님 무진법장사 주지
법현스님 前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
손현수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장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
공종원 前조선일보 논설의원
선진규 봉화산수련원장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장충식 동국대 교수
강정기 불교텔레비전 경영국장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한승원 소설가
박광서 우리는선우 대표
장현태 변호사
김한곤 조계종종앙신도회장 직무대행
리선행 투타도량 원장
김형우 서울시 문화재감정관
이제열 유마선원장
정부기 중앙대 교수
최응호 대한불교진흥원 사업부장
이상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최혜명 금강메아리산악회 법사
강인성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장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함종한 한나라당 불자회장
김동흔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윤용숙 한국여성문제연구소 회장
김묘주 여성불교연합회장
장휘옥 동국대 강사

〈무순〉

四年前과 오늘과 四年後

새해 아침에 먼저 모든 불자와 국민과 세계인류와 부처님과 법과 화합승가에 참회합니다. 전대미문의 교단 환란을 초래한 장본인 중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뿐 아니라 교단을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집념으로 나섰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가짐으로 감히 교단행정을 운위하며 겨레의 번영에 보탬이 되겠다는 등 일시적 희망으로 부족한 분상을 살피지 못한 채 교단을 어지럽히고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낸 죄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침묵으로 일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불미스런 일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터라 말 멎 마디 한다고 하여 망신될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 죄상을 큰 것만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맹목(盲目)인 탓에 종정체제를 원장체제로 바꾸어서 행정적 책임을 총무원장에게만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종정예하의 신성도 지키고 종단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여 삼년 가까이 갖은 고생을 다하여 견디어 낸 끝에 마침내 '원장 체제'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정 서옹 스님께서 희생되시고 많은 대가가 치러졌으나 곧 이어 '10 · 27 법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94년 의현 원장의 삼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에 동참하여 그 뜻은 성취하였으나 적주비구(위장비구)를 두 번씩이나 원장으로 만드는 죄를 앞장서서 지었으며,

셋째, 비비구 원장의 삼선을 저지해야 四年前의 개혁의 본지를 잃지 않는 것이며 누적된 그의 비리를 시정하여 종단을 수렁에서 건져야 한다는 개혁 주체로서의 의무감에서 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마침내 그의 사퇴까지 이끄는데 성공하였으나, 예비 승려의 도제가 그 임기가 지난 뒤까지 직무대행을 하여 총무원 청사가 경찰 특공대의 공격목표로 전락하게 한 큰 죄를 지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것과 같이 소납은 무지하였고 맹목이어서 '모래로 밥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한 사실을 오늘에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년전 개혁을 외쳐 뎼던 이들은 허용된 서의현 원장의 삼선도 막았는데, 오늘은 종헌상 금지된 삼선과 비비구의 자격 미달자가 종무 행정 수반의 자리에 더 있겠다 하여도 의문을 느끼는 자보다는 작당하여 이권을 챙기겠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四年前의 개혁 대중은 교단의 문제를 세속법정에 제기하면 중징계를 한다고 종법상에 규정하여 실제로 실행하였는데 오늘날 종헌종법 수호를 외치는 이들과 송비비구 추종자들은 사년전과 똑같은 교단의 문제를 세속 법정에 호소하여 하급심의 가쳐분 결정을 앞세워 종권을 되찾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년전 총무원 대중들과 승려대회 대중의 충돌을 막으려 출동했던 기동대를 문제삼아 당시 최모 내무장관의 사퇴와 김영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늘의 종헌종법 수호를 외치는 대중과 송비비구 추종세력들은 공권력을 끌어들여 전대미문의 특공대 작전으로 접령한 것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레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사를 뺏긴 사람들이나 뺏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목도 생각하며 삽시다. 미국의 어느 신문보도에는 'S스님의 삼선야욕이 불러 일으킨 사태며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승려들의 자질이 문제'라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 '파렴치 전과자와 깡패' 운운한 표현이 예사로이 보도되는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리하여 어느 쪽에만 있는 양 착각이나 호도 하지 말고 송비비구의 추종세력이나 종헌종법 수호파에도 유사한 파렴치범이 있다면 산문에서 조용히 수행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계사 방화범과 가스통으로 총무원 청사를 폭파코저 했던 자들은 특공대가 청사를 공격하던 시퍼런 공권력으로 잡아야 편파적 공권력을 운운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년전과 오늘에 이와같이 관이한 점도 있으나 불행스럽게도 같은 것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한국내에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찰의 성금이 '공개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이 4년전이나 오늘날도 이패나 저패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이와 똑같이 선호하는 '비공개 무통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갓바위, 보문사, 보리수 마을, 불교방송국 사태와 유사한 사태는 재발될 것이며 송비비구와 같은 인물도 거듭 등장하리라는 것은 맹목의 짐작이지만 맞겠다는 확률이 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우기 어려운 파국과 상쳐를 어렵고 어렵더라도 꼭 고쳐서 악순환을 정말 근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제 애기를 하겠습니다.

5년후, 이 교단을 위하여 거름으로써 수용할 곳이 있다면 기꺼이 받쳐질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허물을 온 겨레와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필하고 공포된 후보를 특정인의 사퇴를 빌미삼아 전체후보를 무효화하고 재등록케하여 12월 29일 실시코저하는 총무원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머리숙여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의 독선과 다수의 횡포도 억제하고 편의에 따라 마구 뜯어 고쳐지지 않는 훌륭한 '약속'을 잘 지키며 '공개와 통제'가 실행되는 사원운영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교단'이 되게 풍파의 마무리를 짓고 교단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일조코저 하오니 원로 큰 스님들과 대덕제현과 모든 불자님들께서 도움을 주십시오.

끝으로 새해내내 건강하시고 바른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해 아 침

대한불교조계종 29대 총무원장 후보 설조 화남

제도에 앞서 출가-재가 초발심 회복

조계종 안정과 개혁을 위한 과제

조계종의 종단분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번 분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은 단 순간에 매듭 지어질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종단적 의미와 파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긴급 좌담을 통해 진단해 본다. 좌담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월서스님과 일면스님,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박광서교수(서강대)가 참가했다.

참석자

월서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면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박광서 교수〈서강대 물리학〉

때: 1998년 12월 30일
장소: 본사 회의실



◇월서, 일면스님과 박광서교수는 좌담을 통해 조계종이 종단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천과 나누는 불교실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뤄졌고 곧 새 집행부가 종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종단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수습국면이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 아니 불교를 바라보는 냉소적 시선들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냐'는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서 '출가한 납자가 이름(명예)을 구하는 것은 초가의 야인보다 못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리나 이념을 둘러싸고 대립 된 것도 아니고 물질과 권력, 명예 때문에 갈등이 야기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종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의 한 생각이 잘못된데서 이같이 엄청난 갈등이 왔던 것도 성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1954년 '이승만 유시'로 비롯된 정화불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적법하지 못하게, 혹은 처절한 자기완성의 의지가 없이 출가한 분들이 지금 종단의 중진급 이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종권 지향적 향배에 젊은 층의 현실적 이익욕구가 합쳐지면서 종단 분규의 요인들이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서 나도 정화의 와중에 입산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화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출가자의 본분사를 잃어 버린데 있습니다. 청담스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은 정화를 하면서 제도개혁과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아직도 종권과 재물의 가치를 앞세우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화 작업이야말로 종단적으로 힘 모아야 할 일입니다.

▲박광서 여러 언론들이 지적한바 있지만, 이번 사태의 양상은 이판의 상징인 종정과 사판의 수장인 총무원장과의 갈등으로 비춰졌습니다. 월서스님 말씀대로 이판과 사판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집착됨으로써 사판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더 크게 인식되는 것이 분규의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일면 현재 조계종에는 1만2천여 스님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종권과 재산 다툼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 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종단의 많은 수행납자들이 출가 본분사를 놓지 않고 정진하고 있는만큼 종단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월서 94년 개혁불사 이후 많은 종헌종법이 현실성 있게 정비됐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종단분규는 없어집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종헌과 종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제도만 정착되어도 사찰의 운영, 특히 재정의 투명성은 양명해 집니다.

▲박광서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개선도 잘 안되는 문제입니다. 스님들의 노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를 맡았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갈 곳을 찾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종권·재물 탐하면 응징 문중간엔 선의의 경쟁을"
- 월서스님 -

▲일면 94년 개혁은 종단운영에 있어 1인의 전횡을 막았다는 성과와 법을 손질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종헌종법은 신교육을 받은 젊은 승가의 구미에 맞게 잘 짜여졌지만 율장을 근본으로 살아 온 노장스님들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서 수행력이나 법납으로 승단이 유지되던 전통과 제도적 장치나 법적 지위로 종단이 운영되는 현실과의 충돌이라 볼 수 있겠군요.

▲월서 법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승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그 정신이 바탕이 된 곳에서 제도와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수행은 뒷전이고 법리논쟁이나 제도 개혁만을 외치는 것은 세속적인 충돌일 뿐입니다. 수행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엄격한 재교육을 시키는 제도적 장치와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수행자적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광서 종단분규 때마다 드러나는 폭력의 문제는 이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가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배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승가다운 자정의 힘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4년후에는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법 수호 인식 필요 참회·보시로 상처치유"
- 일면스님 -

▲일면 출가 동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부류가 있다는 점에서 승단내 폭력의 심각성은 큽니다. 사찰을 처절한 수행처로 여기기 보다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수계의 조건이 무척 까다로와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합동수계산림 이전에 출가한 부류 중에 '전문적인 객승'이 있습니다. 이들마저 섭수를 하다보니 승단내 폭력의 가능성은 늘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광서 승단내의 폭력은 상식 이하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종단 내부적으로 보다 엄격한 벌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법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 폭력이고 보면 재가자들이 폭력 나아가 도박승에 대해 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종정이라는 권위가 훼손됐고 공권력의 투입을 이해하는 시각도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월서 이번 사태는 종정이라는 '상징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11월 30일 승려대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새 집행부가 빨리 새로운 어른을 모시고 모든 종도들이 잘 받들어 모시는데서 회복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공권력의 문제는 법질서 존중의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번 사태가 교리나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폭력을 동반한 사회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입니다.



"재가자 종무행정 참여 사찰재정 공개 시급"
- 박광서교수 -

▲일면 이번 사태에서 유독 성철스님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분께서 종정의 지위를 확고히 세우셨고 이판의 본분을 잘 보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은 우리 스스로가 환부를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박광서 종단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대두됐습니다.

▲일면 따지고보면 그런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종단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조정기능의 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박광서 재가자들의 종무행정 참여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월서 아직 입법기구인 종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상하원제의 도입도 얘기됐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공개된 창구를 통해 재가자들의 의견이 승단에 반영되는 형태, 즉 공개적인 건의 창구의 필요성인데 이는 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서 그간의 종단사태들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점검해 보아 할 것 같습니다.

▲월서 우리 종단이 여러 문중으로 구성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불제자이지만 그렇다고 문중의 맥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중간에 발전적이고 선의적인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수행과 포교, 교육 등에 대해 서로 좋은 경쟁을 하는 가운데 문중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찰과 종단의 투명한 재정운영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은 출가대중이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면 현재의 종헌종법이 일부 미비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체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사찰에 와서 기도카드는 잘 만드는데 종단이 권유하는 신도증 발급에는 미온적인 것이 그런 예입니다. 보다 폭넓은 홍보로 제도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광서 종단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이제는 재가자들도 목소리를 높혀야 할 것입니다. 재정문제와 신도회 조직의 문제등은 재가신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재가자들에게도 초발심 회복의 필요성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면 이번 사태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나누는 불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끼니를 줄여서라도 배고픈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 사회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로 하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베풀며 참회하는 자세를 접어두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동국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동국을 나서면 미래가 보입니다.

개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의 힘을 동력으로,
15만 동국인의 민족. 사회발전을 향한 소명의식과
동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한데 모아,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吳 綠 園
東國大學校
總長 宋 錫 球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TEL : 02)260-3011~2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이 사 장 정 일
상무이사 성 문

이 사 혜운 도의 도형 성열 법진
상월 자민 성우 정수 정관
운성 오철 명언
감 사 법운 정수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각 종단 종정 · 해외고승 신년법어

나눔과 화합의 세상 만듭시다

세상 이익되게 수행전법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기묘(己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천5백여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유촉(遺囑)하신 최고의 가치는 수행(修行)과 전법(傳法)입니다. 우리 종도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가풍(家風)으로 정진함으로써 자각각타(自覺覺他)하여 각행원만(覺行圓滿)케 함이 조계종지를 통행(奉行)하는 길이며 삼보와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오늘의 교단혼란과 분규도 사실 부처님의 근본유촉(根本遺囑)을 우리 스스로 저버린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올해는 대참회로 발심정진(發心精進)하여 수행과 전법으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安樂)케 하는 바른 불교를 우리 스스로 봉행(奉行)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합시다.

이웃위한 이타정신 발휘

태고종 덕암 종정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은 다 가시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남과 이웃을 위하고 생각하는 이타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간의 어려움과 시련은 남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하나만의 이익과 소유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집해온데서 비롯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타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 생각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비심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화해와 즐거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립시다.

선의 씨앗 심고 도덕 회복

천태종 도용 종정



본인은 먼저 이 기묘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난국이 극복되기를 염원합니다.

새해에는 또 진정한 불심의 원력이 요망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빈궁, 고독과 질병, 지체장애자와 무의탁노인 등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동체대비심과 망기이타심(忘己利他心)으로 보시행을 베풀어 다함께 정복(淨福)을 누리는 밝은 사회가 이룩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가 경제위기나 사회 혼탁은 우연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날의 정경 유착이나 부정부패, 과소비와 물질위주의 생활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그 근본 원인은 윤리, 도덕의 마비와 인간 본성의 상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자가 선의 씨앗을 심고 인간의 존귀성을 자각하여 참된 자아 발견과 올바른 윤리 생활을 할 적에 오늘의 우리 사회를 두텁게 덮고 있는 먹구름은 걷힐 것입니다.

참회로 만다라세상 열자

진각종 각해 총인



중생의 자성에 내재한 부처님의 신묘한 공덕보배는 아무리 베풀어도 모자라거나 줄어듦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를 당하여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복전의 기회로 삼을 때 그 무량한 인과는 삼세를 거듭하여 날마다 자라날 것입니다. 혹업(惑業)과 무명에 가리운 각자의 본성을 되찾고 공업중생의 자비심을 회복하여 어서 이 세상을 살기좋은 부처님의 정토세계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중생계에는 언제나 반목과 갈등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으나 위로는 진정한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相求菩提), 아래로는 널리 요익중생의 인류애를 다할 때(下化衆生) 인류는 보다 쉽게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회와 용서, 나눔과 화합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만다라 세상을 만듭시다. 남녀노소가 함께 웃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기묘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한생각 돌려 참생명 열길

관음종 홍파종정대행



세상에 비춰진 불교계는 처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힘든 사회와 현실을 정신적으로 위안과 삶의 용기를 일깨워 주어야 할 한국불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국불교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소받아 마땅하리 만치 허망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되고 소금이 되어줄 종교의 신성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묵은 업과가 남아 있으니 혀가 바뀌어도 무엇이 새날 새아침이랴. 한마음 한생각 돌려 참생명의 열린 불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으로부터 참회합니다.

가식과 위선 과감히 걷자

총지종 록정 종령



올해는 금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가식(假飾)과 위선(僞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자세로서 나를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외도들의 요설(饒舌)과 광태(狂態)에 현혹됨 없이 불자들은 정법에 의지하여 흐트러짐 없이 더욱 용맹정진하면서 불법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제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과 깨닫고 무명 밝혀야

보문종 혜안 종정



결자해지(結者解之)라. 맺은 매듭을 스스로 풀어야 과보를 면하고, 이마저 벗어난다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밀밀(密密)한 부처님의 인과도리를 깨달아야 무명으로 뒤덮인 본래의 자기 본성을 되찾을 것이며 참으로 진실한 삶을 살 것입니다. 실천은 사무치는 자기 수행 정진에서 비롯됩니다.

서해를 여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사부대중들은 원만무애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간절히 발원합시다.

만방에 화평한 기운 싹터

원융종 일공 종정



토끼 모형으로 된 나라에 새로운 기운이 왔으니 천지운수가 돌아오게 됨은 토끼해를 맞이함이로다.

토끼의 성품은 깨끗하여 본래 악이 있으므로 세계만방의 모든 국가가 화평한 기운이 이로부터 생기는도다.

마음이 인생과 우주 근본

한국법화종 혜민 종정



본래 마음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며 삼라만상의 본체이고 몰록한 생각 일어난 현상은 그림자이니 고요한 이 마음에 선(善)한 일 생각하면 밝은 날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언행(言行)은 일치하리.

때 씻고 청정한 마음 갖자

총화종 동광 종정



누겁지진 세척정(累劫之塵 洗滌淨) 쌓이고 쌓인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송구영신 심청정(送舊迎新 心淸淨)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필중소구 필위구(必中所求 必爲求) 내가 바라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묘신년 원성취(己卯新年 願成就) 닥쳐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리라.

자아 찾으면 즐거움 얻어

조동종 운파 종정



부처님 말씀 한 구절에 "방일(放逸)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탐욕을 즐기는 것을 기르지 말라, 항상 고요히 생각하면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을 꼭 믿어 수도에 진력하여 하루 속히 자아를 발견하여 큰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엄진철(利嚴眞撤)의 조동(曹洞)의 묵조선문은 문(門)없는 넓은 문(門)이며, 누구나 이 문(門)에 들면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 노력하면 새날 온다

삼론종 대산 종정



국민 여러분 어둡고 어두운 긴 밤이 지나면 동녘에 찬란한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밝고 희망찬 새날이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함께 기묘년 새해를 맞이 합시다. 이역만리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해외 동포와 오늘도 기아와 싸우며 신음하는 북녘동포에게도 불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게 마음의 장난

열반종 해암종정



세상의 모든 새해란 인간의 마음의 장난이로다

나무로 만든 토끼가 기름진 땅 속에 썩어서 영롱한 정신으로 꽃이 피니 과연 이것이 색이냐, 공이냐? 모든 것이 마음의 장난이로다.

마음 열면 자유 평화 얻어

베트남 틱낙한 스님



진정한 공존은 우리 자신과 혹은 타인과 접촉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이해, 자비 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신과 접촉을 갖는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열린마음' 하나면 무한한 자유, 평화, 지혜, 사랑을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진정한 공존의 상태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佛 프럼빌리지 선원장〉

탐욕과 이기심 버리도록

대만 성운스님



생업은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뜻있게 써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불교는 복지와 공동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재산으로 인해 광분하게 되고 탐욕과 욕정에 유혹된 세속적 인물은 부처님에 의해 거부됩니다. 그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을 인정하고 삶의 실천적 방법으로 이끌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불광사 조실〉

원인 없으면 과보도 없어

스리랑카 이고나 스님



부처님은 이 세상의 실재(實在)와 인생의 본질을 대중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업(業)입니다. 업의 과보는 오직 원인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과보에는 변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고통은 바로 그 변화의 속성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불교는 이 고통의 사슬을 단절하는 길과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성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은 의무이자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대장로 · 팔리불교대학교 부총장〉

佛紀 2543年 (己卯年) 謹 · 賀 · 新 · 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김 정 락
총 무 양 심 경
교 무 윤 성 무
포 교 이 성 종
교 육 김 성 호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 화 : 0331)34-0040

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 지 혜광 · 중산
총 무 해 인
재 무 진 관
교 무 현 우
사 회 원 담
포 교 문 성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 전 화 0433)543-3615, 8655
FAX 0433)543-3620
원주실 : 전화 0433)543-4755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관 응
회 주 녹 원
강 주 의 룡
부주지 법 등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전 화 : 0547)436-6174
FAX : 0547)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월 하
부 방 장 청 하
주 지 월 파
총무국장 원 행
교 무 명 현
재 무 주 원
포교국장 원 천
호법국장 관 우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전 화 : 0523-82-7182

기묘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심속의 포교 · 교육 ·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총 무 범 일
기획실장 현 기
교 무 원 광
재 무 보 천
원 주 월 인
노 전 운 공
포교국장 경 홍
도 감 태 설
대 중 일 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종무소 : 02)511-6070~4
F A X : 02)544-2141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한국불교미술원

문화재 수리: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

원 장 정 규 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TEL : 02)730-8072 (야)648-0930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진 관

대 중 일 동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359-8410

배달문화 선양회·설산장학회
정 토 사

주 지 설 산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 02)379-5502

대한불교 총화종
만 경 사
만경사 강동포교원

회 주 박 청 해

대 중 일 동

■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TEL : 0417)64-3895

대한불교 법성종
용 화 사

주 지 재 령

대 중 일 동

■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314-4
TEL : 0346)557-4884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부설 (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주 지 일 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 02)444-4321, 7215

대한불교 **광 덕 사**

주 지 일 봉

신 도 일 동

※초하루·보름 정기법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20-1
TEL : 0431)258-3282

팔공산
약 사 암

주 지 일 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 053)852-0803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 각 성
신 도 회 장 김 수 복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TEL : 02)474-0554
FAX : 02)472-5292

해 원 사

주 지 종 운
신도회장 배 복 례

신 도 일 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793-1
TEL : 02)914-0879

대한불교
청 용 암

주 지 해 일

신 도 회 일 동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산 5-12
TEL : 02)813-1820

대 성 사

주 지 정 성
(전국비구니회 호법부장)

신 도 일 동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39-2
TEL : 02)914-6532

불교용품 선우
(구·성심원)

불교용품 총판

대 표 박 영 민

직 원 일 동

■ 서울 도봉구 쌍문1동 378-28
TEL : 02)998-7930~1

무 학 사

주 지 해 암

관 음 회 일 동

■ 서울 중구 신당1동 304-188
TEL : 02)238-8872/ 235-9900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 중구 신당4동 340-8
TEL : 02)237-9796(원융원)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 0356)84-1541(대성사)

대한불교 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석 종 후

신 도 일 동
청림 반야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內
TEL : 02)353-5016, 4924
FAX :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본사
봉선사 말사 성 보 사

주지 신 천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산78-35
TEL : 0346)594-2683, 1397

지장기도 참회도량
심학산 약 천 사

주지 허 정

신 도 일 동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284
TEL : 0348)942-3880

대한불교 총화종
천 국 사

주지 해 정

백만지장전 불사 추진 위원회 일동
故 박정희, 육영수 여사 영정 봉안사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TEL : 0414)42-5966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회 원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FAX : 02)766-9305

대한불교 선종사찰
선학원 천은선원

주 지 김 우 향

신 도 일 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 39번지
TEL : 0342)707-2114, 708-2114

흑 석 사

주지 부 봉

신 도 일 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380
TEL : 0572)637-1900

삼 보 기 업

대 표 정 광 산

직 원 일 동

씰크인쇄 및 현수막·각종특수인쇄전문

■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빌딩4층)
TEL : 02)279-2715
FAX : 02)275-3739

인왕사 창녕포교당

주 지 청 운

신도회일동

**적멸보궁으로서 사리탑 및
와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25-2
TEL : 0559)533-2295

소요산 자재암

성관음 기도도량
(원효대사 관세음 보살 친견도량)

회 주 지하 법융
주 지 석후 법과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
TEL : 0351)865-4045

마이산탑사

주 지 이 왕 선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 0655)33-2900, 0303

松江企劃

대 표 윤 성 수

직 원 일 동

불교음반유통/EVENT기획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 02)745-6015
FAX : 02)745-6017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주 지 지 성

신 도 회 일 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 0556)72-0100
FAX : 0556)72-0481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수원 용 화 정 사

주지 조 성 관

신도회일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9-70
TEL : 03331)246-0108/256-3400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국민회의

새정치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사회복지시설 **연등회 생활관**

회 장 사 상 호
상임부회장 김 찬 묵

부 회 장 김 진 석
하 도 종
황 국 근
운영위원장 남 정 락
기획실장 김 영 대
사무국장 김 영
연구실장 박 순 호
조직부장 최 성 호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7-11 우정주차장 2층
TEL : 051)852-0813~4
FAX : 051)852-0815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삼광사

주 지 박 덕 수
총 무 김 문 해
포 교 이 갈 지
교 무 곽 수 산
재 무 정 거 호
노 전 유 대 어
신도회장 안 영 일

사부대중 일동 합장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TEL : 051)808-7111~5
FAX : 051)803-1332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원장 지 관
노전 보 안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총무 경 법 재무 경 원
교무 경 성
신도회 지도법사 곽만연
학생회 지도법사 김영권 이욱태 윤선혜
사 무 장 이 춘 성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
TEL : 051)809-0926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TEL : 051)403-7077

대한불교 조계종

국 청 사

주 지 계 전
부주지 성 만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TEL : 051)517-5003

대한불교 원효종 대본산

금 수 사

종 정 이 법 홍
주 지 송 구 산

신도회장 지 재 호
부인회장 김보원행

대중일동·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초량 4동 843
TEL : 051)467-3316/ 051)462-0338
FAX : 051)467-3316

해외 성지순례의 명문

명문여행 금강산 관광 지정대리점 **명문여행사**

대표이사 안인성 합장

· 금강산 기행 여행
· 인도 · 네팔 · 태국 · 스리랑카
· 티벳 · 실크로드 · 중국
· 몽고 · 캄보디아 · 베트남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406-11 조광빌딩 2층 (양정지하철역 9번출구 입구앞)
TEL: 051)852-1231 FAX: 051)852-1233

금 강 약 국

대 표 오준길·정미영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9 15/2

부 다 가 야

4·8 용품 · 예수재 · 49재 · 불사
탱화 · 불상 · 기획상품

■ (양정R) TEL: 051)865-4383
FAX: 051)865-4821

대 한 기 획

불서출판 · 사보편집 · 팜플렛 · 달력 · 기획인쇄

■ (양정R) TEL: 051)866-7818
FAX: 051)864-7075

※부산·경남에서는 유일한 불교기획 전문회사입니다.

금모선원 해운정사

조 실 진 제
주 지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부 회 장 김주현 김오홍 홍무진성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32/4
TEL : 051)746-4812

대한불교 조계종

보 타 원

고암 장학회

회주 보 광
원장 동 수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
TEL : 051)243-0048~9

대한불교 법등회

지도법사 이 혜 총

회 장 강자명심
총 무 박자비화
재 무 김 외 화 외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3동 141-137
TEL : 051)523-1480

대동디자인 학원

원 장 손 문 재

■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 1동 882-16
TEL : 051)634-7600

대한불교 조계종

삼 밀 사

신 도 일 동

■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313번지
TEL : 0553)42-6531

대한불교 조계종

수안사 (수안불교대학)

주 지 박 세 민

수안불교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 이 지 관 큰스님(금강경)
■ 목 정 배 교수(한국불교문화사)
■ 권 기 종 교수(기초불교교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 02)587-4677

천보공업사

대 표 박 영 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9-3
TEL : 051)315-2859

자비 실천회

찬불가 교실

찬불가,가요,가곡등을 무료지도합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봉사단체로서 양로원,교도소 등을 방문합니다.〉

회 장 한 영 옥
지도강사 이 옥 희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매주금요일11시〉
TEL : 051-898-1547/634-5114

근본 불교 수행도량

태 종 사

주 지 도 성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29
TEL : 051)405-2626
FAX : 051)405-2727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부설 시민선원 문화관
부산·김해 연꽃 어린이집
울산 보리수 어린이집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공창종합사회 복지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53-1
TEL : 051-363-2063
FAX : 051-363-2067

대한불교 본원종

성 불 사

주 지 혜 원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23-3
TEL : 051)292-681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불교 아카데미

원 장 석 지형

동문일동·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29-5
TEL : 051)621-8548, 621-8549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의 미래와 번영을 생각하는 모임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 사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번지
TEL : 051)403-7096

보쌈젓갈 및 각종 젓갈, 김장김치
컬임식품 제조원(부산진허 제18호)

세 명 식 품

대 표 설 정 수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341-4
TEL : 051)804-5989
051)817-5915

불교양초 종합전문업체

삼 환 양 초

대 표 최 현 규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향리 35-16
TEL : 0347)760-0242~3

대한불교 조계종

안 적 사

주 지 덕 명

신도회 일 동
방생회 회원일동
미타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692
TEL : 051)543-9408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서 춘 석
고 문 강 병 중

상임부회장 최용원 부회장 박수복
부회장 백봉도 부회장 김윤환
부회장 최 찰 부회장 김종태
감 사 이근철 감 사 박수관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3번지 삼환오피스텔 907호
TEL:051-637-7174~5/FAX:051)637-7176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21세기 먹구름' 불법으로 거둬내자

유토피아인가, 재앙의 시대인가. 눈앞에 성큼 다가선 21세기가 '축복의 천년'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오늘날의 과보는 어쩌면 21세기에는 '고통의 그림자'로 인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 희망 속엔 불교가 있다. 팔만사천의 법문은 중생의 모든 현실고(現實苦)를 제거하고 해탈과 평화를 실현시키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새 기획으로 월 1회 '불교는 새 천년의 희망'을 주제로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을 마련하고, 21세기 인류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기획시리즈에서는 환경, 자원고갈, 빈곤, 기아 등 시급한 현안 외에 정보화사회, 교육, 전쟁, 마약, 인권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진단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프롤로그

50세 된 이씨가 사는 곳은 초고속인터넷에 화상통신, 온라인 홈쇼핑 등 최첨단 정보통신시설이 갖춰져 있는 인텔리전트 아파트. '불편'이란 단어는 잊은지 오래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모든 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적어도 집안에서만은 천국을 꿈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엘리뇨와 라니뇨가 이웃집 아프리카를 삼키고 있다는 소식이 TV화면과 컴퓨터를 채운다. 인도 캘커타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는 소식도 나타난다. 크고 작은 분쟁과 마약, 매춘, 계층간의 갈등 등 지구촌 곳곳의 상황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큰딸이 미혼모가 된지도 벌써 2년전 일이다. 하지만 성문란은 문제거리도 아니다. 마피아 뺨치는 수준의 청소년 폭력으로 아이를 집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거리를 메운 버림받은 노인들은 첨단문명사회를 비웃는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끔은 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치관? 그것은 구시대 유물이 된지 오래다. 과도한 편리로 인한 극단적 이기주의는 인간성 부재현상을 부르고 있다. 지금의 한 달은 20세기의 5년쯤 된다. 그렇게 변하다보니 생각할 여유가 없다. 아니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20세기 말에 태어난 이씨는 이런 변화에 가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단지 느끼기만 하라'(Just Feel)는 상품광고에 익숙해진 것처럼 진지한 사색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인류는 21세기의 어느 날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밀레니엄 시대'. 과연 21세기는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재앙의 시대인가.

세계의 21세기에 대한 견해는 낙관과 비관이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다.

다니엘 벨이 '후기산업사회'라 명명 이른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도 과학과 첨단 정보에 의해 고속으로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내와 국제의 구분을 없애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21세기는 곧 다원화된 정보사회로 개성과 다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자유와 문명에의 방황에 따른 문명의 본질적 위기의 시대로 보는 시각도 많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정신문명의 파괴를 부른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자비와 사랑을 무덤으로 보내고 오직 편리함과 쾌락만을 낳는다. 그러다보니 자연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된다.

환경문제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영국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세기 지구의 평균온도는 1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래 최대치인 3℃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21㎝ 상승해 바닷가 대도시들을 위협할 것이다. 세계자연보호연맹(WCU)과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는 몇년 안에 멸종할 동식물로 적어도 3만1천5백여종을 꼽았다. 남벌과 기상이변으로 숲이 사라져 가고 어족자원은 남획으로 고갈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지구는 끝내 인간의 생존도 거부할 것이다.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50년마다 평균 30억씩 늘어가는 인구문제와 자원고갈은 필연적으로 식량난을 초래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금도 40개국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적 환경감시단체인 월드워치는 2015년에 약 8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배급체계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1천8백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21세기에 먹고 사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死鬪)'가 될 수 밖에 없다.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인류의 소망으로 이뤄진 생명공학도 '유전자 오염'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또 에이즈와 암이 정복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병으로 인류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연재해, 기아, 빈곤 등 20세기말에 닥친 '세기말적 증후'는 21세기 인류에게 또다른 재앙을 경고한다.

자원고갈·기상이변·기아로 인류위기
不二사상·연기 가르침 대책마련 열쇠

20세기말의 사회적 상황은 21세기를 어둡게 전망하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청소년, 인권, 교육,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갈등 등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류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듯 불확실성과 격변이 예고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많은 불교학자들은 불교야말로 21세기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염된 환경, 바닥나는 식량, 정신의 황폐화, 사회문제 등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는 탐욕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저것이 있다'는 연기사상은 지구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욕심이 없으면 나쁜 과보도 없는 것.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오듯이 연기법은 바로 인류의 행위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원인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연기사상. 단순하지만 인류에게는 지고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가르침인 화엄사상은 또 어떤가. 모든 세계를 이원적 대립이 없는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보니 자연과 내가 하나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런 가운데에는 욕심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곧 불이(不二)요, 조화의 가르침이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니 갈등이 있을리 없다. 이런 가르침 아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 자기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물의 올바른 인식을 지향하는 선불교 정신 역시 무아(無我)와 공(空)의 가르침을 통해 21세기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서구 학자들도 '길은 동쪽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불교를 21세기의 희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교가 제시하는 가르침이 인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집사회' '인간단절' 전망 상충

석학이 본 21세기 패러다임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새로운 인류문명, 즉 새로은 패러다임의 세기라고 전망한다.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맥루언은 "미래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전자적으로 결집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앨빈 토플러는 "지식에 대한 지배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이 통제에 바탕을 둔 전통적 엘리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조셉나이는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갖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계 석학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희망과 우려가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정치학자 로스노는 "지구촌 개념이 심화되면서 모든 인류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사해동포적' 정치로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에 찬 견해를 보였다.

반면 정보학자 와이젠붐은 "정보사회의 뒷면에 숨겨진 '인간 단절'의 슬픈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21세기를 원시적 인간으로의 퇴행의 시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정부의 〈서기2000년의 지구〉 보고서는 "환경오염으로 50년이내에 지구상 생물종의 1/4이 멸종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회학자 마틴과 슈만은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인류의 1/5 정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입될 뿐 나머지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화와 정보사회화에 따른 변화는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류의 삶을 강하게 규제해 왔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두율교수(독일 뮌스터대학 사회철학)는 〈21세기와의 대화〉에서 "'전환기'를 뜻하는 'epoch'에는 '정지'의 의미가 있다"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전망이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품었던 사고와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해야 하며, 전환기의 상황을 항상 잊지 않는 긴장감과 주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大韓佛教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472-3100
팩 스 (0343)472-274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 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2428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049번지 13통 Tel : 0418-544-146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Tel : 052-244-0884, 243-1687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427-8008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1-242-6638-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744-1321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1-259-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번지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648-1455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채외신간

설원의 동굴



티벳인들의 고대전설 가운데 여성 수행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만을 골라 엮은 〈설원의 동굴(Cave in the Snow)〉이 출간됐다. 저자 텐진 팔모는 히말라야 고원에서 수행했던 티벳여성으로 영국에서 불법을 포교하고 있다.

텐진 팔모는 서언에서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수행관을 조명해 깨달음을 찾는 현대여성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Bloomsbury 刊.
(p.p256, ISBN 1582340048)

그가 부처이기 전에



7~8세 아동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싯달타 전기 〈그가 부처이기 전에(Before He Was Buddha)〉가 출간됐다.

미국의 아동들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하마라와 사타티사 선사(일본)가 쓴 이 책은 싯달타 유년기의 총명함과 청년기의 방황을 그린 1부와 출가·고행·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2부로 구성돼 있다.. 율리시즈 刊. (p.p 180, ISBN 1569751366)

차별과 더러움의 종교연구

종교학이나 민속학의 영역에서 '차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차별과 더러움의 종교연구〉가 나왔다. 저자 몬마코오후(門馬幸夫)씨는 서문에서 "종교학이나 민속학에서 차별의 문제가 적극적인 테마로 다뤄지지 못한 것은 차별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전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논리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암전서원(岩田書院) 刊.

자기찾는 공부 지름길 제시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참선요지'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오염이 없어지면 진실로 자기 본래 성품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참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참선을 하기란 어렵다. 이런 때 옛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분명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나를 찾고 싶다.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 그리고 인생의 지표를 세우고 싶다. 최근 절에서나 집에서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선요지〉는 감로수나 다름없는 지침서이다.

여시아문이 펴낸 〈참선요지〉는 참선의 진수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진수만이 아니다. 참선의 목적과 참선을 하기 위한 선결요건, 화두 참선법 등 참선을 쉽고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주옥같은 설명들이 곁들여져 있다. 여시아문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선(禪)편의 첫 번째 권.

이 책은 중국 허운스님의 참선에 관한 법문이 담긴 〈허운 노화상 연보법휘〉(대만 수원선원 刊)의 본문을 대성스님(길상사)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허운스님이 선방에서 한 소참법문인 '선칠법문'과 함께 연보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허운스님의 약전(略傳)도 포함시켜 놓아 허운스님의 행장을 따라가며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참선의 목적
참선위한 선결요건
화두참선법 등
이해쉽게 설명

역자 대성스님은 "선에 대한 조사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허운스님의 가르침은 경이하면서도 명철한 논리를 지녀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참선요지와 선칠법문은 참선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기 쉽게 갈래지어 초학자들도 이 공부법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구에는 주를 달았으며, 권말에 어휘 해설과 인명 해설을 부록으로 붙여 이해를 도왔다.

스님은 참선의 선결조건으로 망상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쉼이 곧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 하신 '쉼(歇)'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마조사가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쉼'은 '놓아 버린다'라는 의미다. 허운스님은 이 두 구절이야말로 참선의 선결조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참선에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의 방편으로 화두참선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초심자는 초심자대로 구참자는 구참자대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허운스님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화두드는 법을 제시하면서 공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인과를 깊이 믿고 계율을 엄히 지키며, 신심을 굳게 지니고 한 가지 법문을 정해 꾸준히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이 책 제1부에서는 이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며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부에는 허운스님의 선칠법문(禪七法門)이 모두 16장에 걸쳐 소개돼 있는데 선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금쪽같은 법문들이다. 비교적 평이하면서도 여러 경전 어록의 중요한 내용들을 적재적소에서 비유와 인용을 통해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어 참선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로 여겨질 만하다.

참선은 흔히 쉽고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해도 뚫고 나갈 길은 있는 법. 대성스님은 "참선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공부 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값 5천5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허운스님은 누구

근·현대 중국 선풍 중흥시켜

허운스님(1840~1959)은 근·현대 중국의 큰 선지식으로서 거의 쇠잔해 가던 중국의 선풍(禪風)을 다시 중흥시킨 거목이다. 19살 때 출가해 제반 경론 등을 학습하고 화두공안을 꾸준히 참구해 대오견성(大悟見性)하였다. 참회 발원과 염불 수행뿐만 아니라 계율을 엄히 지키고 사부대중에게도 계(戒)의 중요성을 누누이 설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망경〉을 널리 강의했던 스님은 종문(宗門)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켰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 하에서도 승도(僧徒)를 수호하고, 사찰과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많은 가람을 복원했다. 스님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재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울대 출판부 '한국고대불교사' 펴내

러시아 학자 눈에 비친 '한국고대불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국고대불교사〉는 한국 고대 불교교단의 역사를 개관한 일종의 한국 고대불교사 개설서이다. 주로 교단의 구조, 승직제도, 교단과 국가의 관계, 사원경제, 한국불교의 대외적 역할 등 교단사와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고대사 개설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저자와 역자가 모두 러시아 학자라는 점이 특이하다. 저자 볼코프 교수(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학 한국학 국제학술센터 교수)와 역자 박노자 교수(러시아 티호노프·경희대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는 제자와 스승 사이로 러시아에서 한국고대불교사를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다.이 책은 러시아어권 한국학계에서 한국 고대불교 관계의 최초의 단행본으로, 러시아의 한국학과에서 기본 한국사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고대 불교교단사를 세계불교사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도 특이하다. 한국 고대 불교를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불교권의 일부로 파악하여 정치와 종교 관계의 모델을 '국가의 보호에 대한 교단의 의식(儀式)적 보답' 형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중국과 일본의 불교는 물론 나아가 동남아시아 불교와도 비교 검토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불교 연구수준과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책이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서장	대 혜	불 광
3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4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영원한 자유	장경각	백련선서간행회
7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의	불교시대사
8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고명석·고광영	대원정사
9	통찰의 체험	골드스테인	한 길
10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구입문의:(02)737-0695

청소년 권장도서 150종
한국간행물윤리위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98년 청소년 권장도서 1백50종을 선정 발표했다.

문학 철학 역사 등 모두 11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에는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를 비롯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채우는 불경이야기〉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0여종의 불교관련 양서가 포함돼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권장도서에 대한 간결한 내용을 실은 〈1998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목록을 배포했다.

화제의 책

법화경입문 혜량스님 지음

법화경 성립배경-특성 등 소개



불교경전중 가장 넓은 지역과 많은 불자들에 의해 수지·애호 되고 있다는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이 책은 혜량스님(법화경학술연구원장)이 펴낸 입문서. 〈법화경〉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성립 배경에서부터 경의 구성과 흐름, 특색 등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징. 그러나 학술적 탐구가 아닌 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법화경〉공부와 법화사상을 동시에 과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였으며, 경의 흐름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은 도표를 그려 이해를 도왔다. 〈수미산, 7천원〉

화제의 책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에… 임현담 지음

거대한 자연에서 느낀 삶의 방향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임현담씨는 해마다 히말라야에서 한철을 지낸다. 그에게 히말라야는 '오르기'가 아닌 '바라보기'의 대상이다. 그는 히말라야를 연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에 빠졌다〉는 히말라야 기행기다. 볼 만한 경치나 풍물 등이 재미있게 소개돼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행기가 아닌 구도기행기다.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가 자연을 보는 시선은 단순한 객관적 대상이 아닌 화엄의 세계다. 기계론적 우주관을 거부하고 불교의 유기체적 우주관을 따르고 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불교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효형출판, 8천원〉

화제의 책

이제 이판사판이다 박승원 지음

이판과 사판의 질서 필요한 때



'이판사판'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을 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 원래는 공부하는 스님을 이판,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을 사판이라 했던 승가조직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자 박승원씨(시스템경영연구소 대표)는 국민의 공통 화두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이판과 사판의 도리에 맞추어 설명하면서 원융, 화쟁사상을 통해 이들 문제점의 '제자리 찾기'를 강조한다.

에세이식 형식의 칼럼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마저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이판사판'이야말로 새로운 직업 윤리이자, 미래 사회의 질서임을 역설한다. 〈현암사, 7천원〉

우리는 매일같이 절에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 스님 엮음 (시인, 불교신문사 사장)

신간!

우리는 이처럼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오로지 돈과 출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구구절절한 〈소중한 부처님 말씀〉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애정이 깊어지면 고통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상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모두의 책임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계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 등 노인포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노인복지계를 선도해 온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과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에게 불교노인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본다.

대담 '고령화시대 불교의 역할'

"사찰을 노인복지 요람으로"



성운스님



각현스님

불교노인복지 전문기구창설 지속적 후원

'효의 사회화' 전국사찰서 앞장서야

▲각현=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해서 모든 제도나 생활의 기준을 노인우선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이탈현상에서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노인의 소외문제, 빈곤문제, 역할상실문제 등을 사찰이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국 사찰이 노인복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운=불교의 자비, 보시, 복전(福田), 보은, 방생 그리고 연기사상은 곧 사회복지사업의 이념으로서 1600여년의 한국불교 역사상 사회구제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노인부양, 아동보호 등의 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나, 무주상보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다보니 법률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통계자료에도 들지 못해 사회사업에 열세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1998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개인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개별 사찰 또는 개인의 노인시설 설립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현=전국의 사찰과 주지스님들이 '효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마다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소, 노인무료병원, 경로식당, 노인대학 등을 설치·운영하여 전국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의 극대화로 '사회적 효, 국가적 효'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운=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개발과 연수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종단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추진하는 전문기구를 두어 사회복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각종 노인법회 등을 활성화 해 노인들이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현=지방마다 사찰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산중 사찰이면 무료·실비·유료 등 수용시설과 납골당, 납골탑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도심 사찰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수공업 공동작업장(일거리 제공),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5개 교구본사나 재정능력이 있는 사찰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찰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그룹홈이나 염불당, 경로식당, 노인무료진료소, 역사탐방반 등을 운영하거나 사찰의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이나 채전 가꾸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요.

▲각현=사찰은 대승보살도에 의한 중생구제의 신념을 신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합니다. 복을 비는 불교에서 복짓는 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인복지란 시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엮어가는 복지의 광장입니다. 불자의 열떤 관심과 성원만이 불교노인복지의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성운=노인은 흔히 빈곤, 건강, 고독, 역할상실 등 4고(苦)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님들의 노후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노후대책이 문제되어 수행에 전념을 못하고 토굴 또는 노후자금 마련에 진력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교구마다 요양원이나, 염불당, 특수선원 등 경로시설을 만들고 예산책정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각현=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무료병원에 온 노인들은 스님을 보면 무척 고마워하면서 자식들에게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평생 불교를 믿었던 노인도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가서는 기를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되었을 때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제공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성운=불교계가 더욱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해 더 많은 노인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입종시에도 안락한 마음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불교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교계 노인시설 50여곳 운영
절마다 노인법회·포교에 관심을

금세기 마지막 해인 9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 하지만 IMF시대를 사는 우리 노인세대는 심화되는 가난과 소외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복지시설은 98년 10월 현재 1백85개(무료 1백52개, 유료 17개, 실비 16개). 이중 노인 전용의 불교복지시설은 35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약 19%에 해당된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총 1백56개소이며 종교별로는 천주교 68개소, 개신교 39개소, 원불교 11개소, 성공회가 3개소이다. 전체 1백85개소 중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곳은 29개에 불과할 정도로 노인복지시설은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비인가시설을 포함하면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여개 이상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이밖에 노인전용 복지시설을 포함, 다른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도 많다. 사찰 및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노인대학과 40여개의 경로식당, 5개의 복지관 노인의집(노인 그룹홈)을 비롯 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소, 무료진료소, 노인상담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아직은 노인복지의 초보단계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불교노인복지 관계자들은 교계의 복지정책도 이제는 무의탁 양로원이나 보육원같은 수용시설 보다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센터의 확충과 무료급식소, 무료병원, 노인문제 상담실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찰과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염불당이나 임종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영탑공원·납골당 등 장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아동·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채소밭을 가꾸는 등 노인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외로움을 잊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노인포교 프로그램들을 연구, 시행해 노년기의 삶이 불교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노인복지시설 현황

지역	시설명	연락처	시설유형
서울	인덕노인복지회관	02)358-8181	노인종합복지관
	혜명양로원	02)802-6765	무료 양로시설
	서울관명의원	02)414-6408	무료 노인병원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02)203-3677	재가노인복지센터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02)365-3677	재가노인복지센터
	마포경로의원	02)364-6172	노인무료병원
	역삼노인복지관	02)552-1080	노인종합복지관
부산	정화양로원	051)332-3996	무료 양로시설
	황전양로원	051)556-3373	무료 양로시설
대구	화성양로원	053)766-4553	무료 양로시설
	대구동구복지의원	053)963-3674	무료 노인병원
	대구보살선원	053)983-3677	유료 노인복지주택
대전	대전광명의원	042)634-5820	무료 노인병원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042)488-6297	노인종합복지관
광주	소향원	062)222-6030	무료 양로시설
경기	연꽃마을용인양로원	0335)34-3647	무료 양로시설
	군포광명의원	0343)396-8092	무료 노인병원
	안양광명의원	0343)388-6534	무료 노인병원
	안양경로의원	0343)443-3677	무료 노인병원
	수원광명의원	0331)245-3676	무료 노인병원
	인천동구경로의원	032)765-3677	무료 노인병원
	평택북부경로의원	0333)611-3677	무료 노인병원
	대비원	0335)34-3647	무료 양로시설
	성라원	02)743-0294	유료 노인복지주택
	성지원	0331)44-0730	유료 노인요양시설
	자제정사	0339)57-5788	무료 양로시설
	자광원	0342)759-5320	무료 수용시설
	관음대비원	0348)958-3043	유·무료 수용시설
	나눔의집	0347)768-0064	무료 양로시설
	목련의집	0357)34-6554	무료 노인요양시설
강원	보리수마을	0396)671-6808	유료 노인복지주택
	신흥사복지원노인요양원	0392)636-7044	무료 노인요양시설
충북	청주광명의원	0431)221-0836	무료 노인병원
	보은광명의원	0433)544-2105	무료 노인병원
충남	자비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	0416)856-3695	재가노인복지센터
	보문선원	0418)545-6531	유료 노인복지주택
전남	선희노인양로원	0634)33-9291	무료 양로시설
	소향원	0612)73-6406	무료 양로시설
	여천노인복지회관	0662)685-2381	종합노인복지회관
	호산마을	0612)73-8844	무료 수용시설
경북	예천연꽃마을	0584)653-7714	무료 노인요양시설
	대창양로원	0543)955-1004	무료 양로시설
경남	통도사자비원	0523)83-3999	무료 양로시설
	유란양로원	052)297-1930	무료 양로시설
	천불사노인복지원	0523)82-1686	유료 노인복지주택
	보현행원노인요양원	0525)31-1733	무료 노인요양시설
제주	제주양로원	064)47-8337	무료 양로시설

스님 노후복지 대책

노후의 거처·건강등 걱정
"입적할 때까지 수행가능하게"

문중없고 사제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이다. 경생을 수행에 전념하며 꿋꿋이 한길을 걸어 왔지만 그 말년은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 2월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조계종본·말사 주지 6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행정신 회복(27.1%)에 이어 승려의 노후복지 대책(27.3%)을 종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혜도량이 5백3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스님들중 8.5%가 노후생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반수인 50.1%는 '약간 걱정'된다고 응답해 전체의 68.6%가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스님들의 대부분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대책이 부진한 이유가 '재정의 부족'보다는 '종단복지정책 및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노후복지의 개선방향은 승려양로원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특정 사찰을 스님들의 노후수도 사찰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이다.

적절한 운동과 좌선이 병행될수 있도록 프로그램, 무문관 등과 같은 선방체제를 갖추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여 스님들의 노후대책을 갖춘다는 것. 특히 종립 동국대학의 불교종합병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복지현장 탐방

'성라원 실버타운의 하루'



◇이사장 법성스님의 지도아래 서예를 익히는 어르신들.

"우린 외로울 틈이 없어요"

구랍 25일 오후 1시 성라실버타운 식당. 점심공양을 마친 할머니들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가에 모여 앉았다. 말도 표정도 없이 타오르는 장작불에만 시선을 집중할 뿐이었다. 적막을 깨고 한 할머니가 "이곳이 극락인 것 같아요"라며 말문을 연다. 동석했던 할머니들은 약속이나 한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한다. 할머니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유는 가족들간의 괴리감.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인들끼리 어울려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곳을 택했다고 한다.

96년 준공된 경기도 가평 성라실버타운(이사장 법성스님). 이곳은 정신적 소외감, 삶에 대한 불안감 등에 시달려 온 노인들이 불심에 의지해 인생을 반조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보금자리다. 현재 입주한 노인들은 30여명. 이들의 하루는 새벽 도량석과 함께 시작된다. 노인들은 은은한 예불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고, 달빛을 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오전에는 각자의 탕이나 선방, 설법전 등에서 신앙및 개인생활을 하며 정신적 안정을, 오후에는 여가생활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

점심공양시간이 지나면 성라원은 활기에 넘친다. 두툼한 외투에 운동화 차림의 몇몇 노인들은 운학산 자락으로 산행을 떠나고, 노래방에서는 정겨운 노래가락이 울려 퍼진다. 또 서예실에서는 정중상(63)할아버지의 지도로 서예실습이 진행된다. 성라원에는 게이트볼장, 수영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독서실, 공작실 등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사후 장례에 대한 문제도 보장돼 있어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고 통신과정	3년	야간 및 통신 강의 병행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에 따라 단기간에 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1월 부터 수시 모집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삼화불교대학 부설 ◈
영어·일어

- 개강일 : 1999년 1월 4일(월) -

부처님의 큰 뜻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영어·일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강사진의 "1대 1 강의"로 꼭 뜻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강좌 안내

영어
■Step 1 기초반 : ABC 처음부터
■Step 2 초급반 : 문법과 초급회화
■Step 3 중급반 : 중급회화와 문법
■Step 4 고급반 : 주제별 Free Talking

일어
■기초 : 히라가나부터, 기초문법
■초급 : 기초회화
■중급 : 실용회화
■고급 : 다양한 회화표현

- 대학원 준비반
- 각 과정 3개월
※ 월·수반, 화·목반, 주말반(각 120분 수업)
- 시 간 : 오전 10:00 ~ 19:00
- 문의처 : Tel. 02)511-2026~8

★ 사찰별 그룹지도 가능 ★

"경전이라는 거울에 禪의 모습 비춰보자"

경전속의 禪사상 1

경전과 禪

경전들에 설해진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데 묶어 '교(敎)'라 하여, 이를 선종의 '선(禪)'에 대비시키는 사고방식이 있어 왔다. 선종의 '불립문자·교외별전'의 기치를 내세워, 아무리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 해도 분별 자체인 언어를 쓰신 바에는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교'인 것과는 달리, 자기네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마음)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나온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염화시중의 장면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에 홀로 가섭만이 빙그레 웃으니, 바로 이 순간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도(道)의 진수는 가섭에게 전수되었다 함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조사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선종인 점에서 선종이야말로 불교의 정통에 속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발상에 담겨진 내용을 따져보는 데 있으므로 염화시중의 사실 여부 따위는 논외로 돌려둔다.

글쓴이

이원섭
〈시인〉

모든경전 깨달음 가르쳐 禪과 敎 둘아닌 하나

그러면 이같은 견해에는 어떤 허설이 있었던가.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마음임을 대 전제로 하여 마음의 본체(本體)인 불성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본래면목(원래의 모습)이라 하고, 바로 그런 까닭으로 해서 깨달음이란 제가 제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는 일이요, 더 단적으로 말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돈오(頓悟)를 표방하고 나선 데에는 긍정이 간다.

〈화엄경〉에 보이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경전에 공통되는 시각이라 해도 좋고, 본래의 자기를 되찾는 일이요 깨달음이라 함도 〈법화경〉 '궁자유(窮子喩)'가 대표하듯 대승 일반의 견해인 까닭이다. 그리고 돈오설 또한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는, 대승의 표방하는 원융(圓融)의 도리와 일치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만사는 끝난 것일까. 어쩌면 '교외별전'이라는 한마디로 팔만대장경에 설해진 온갖 교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듯 싶어 홀가분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점은 곧 단점도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생동안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다(不說一字)'는 〈능가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 부처님께서는 언어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설하신 말씀보다는 그 말씀 뒤에 깔린,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설하신 부분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말씀들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의 최대한의 반영이요 시사인 까닭이다. 그런 터에 이를 도외시해도 좋을 것인가. 물론 교와 선이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선사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교외별전의 합창 소리에 짓눌려버린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선의 수행만 해도 그렇다. 여러 형태의 선정이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건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래도 좋은 것인지, 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돈오에 의해 얻었다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중국 특유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많은 이들이 고차원의 경지에 도달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 불도의 수행이 성불에 이르러서야 끝나는 사실이 증명하듯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 하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아라한이건 십지(十地)의 보살이건 스스로 족하다 여길 처지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난 선사들은 불도를 성취한듯 자처해 부처님에 대해 불손한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부처님이라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증상만(增上慢)에 빠진 것이라 보아야 하겠는가. 또 깨달음을 인가하는 근거도 애매하다. 오십이위(五十二位) 같은 기준없이 스승의 주관에 의존한다면 저와 닮은 선사만 길러냄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선도 일대 개혁을 감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뼈아픈 반성 위에 흙을 북돋우고 거름을 주어 새로운 생명체로 되살려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근히 살펴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래기 한잎도 금쪽같이 여겨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

상원사행

■ 10월 1일

나는 오대산의 품에 안겨 상원사 선방을 향해 걷어나아갔다. 지나간 전쟁중 초토작전으로 회진(灰塵)되어 황량하고 처연하기 그지없는 월정사에 잠깐 발을 멈추었다. 1천3백여년 풍우에 시달린 9층석탑의 탑신에 매달린 풍경소리에 감회가 수수롭다. 탑전에 비스듬히 자리잡은 반가사유보살상이 후학납자를 반기는듯 미소를 지우질 않는다.

수복후에 세워진 건물이 눈에 띈다. 무쇠처럼 단단하여 깽그렁거리던 선와(鮮瓦)는 어디 가고 각목기둥이 웬일이며, 열두폭 문살 문은 어디 가고 영창에 유리문이 웬일인가. 당대의 거찰이이다지도 초라해 지다니. 그러나 불에 그을린 섬돌을 다시 찾아 어루만지면서 복원의 역사를 면면히 계속하고 있는 원력스님들을 대하니 고개가 숙여지면서 선방을 향한 걸음이 가벼워진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30리 길이다.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화전민의 독가촌(獨家村)을 지나기를 몇차례 거듭하니 해발 1천m에 위치한 상원사에 다다른다.

상원사는 지금부터 1360여년전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초창한 사찰로 오늘날까지 선방으로서 꾸준히 이어 내려온 선도량이다. 고금을 통해 대덕스님들의 족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대에 자리잡은 적멸보궁 때문이다.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정골사리(頂骨舍利)를 모신 도량을 말함인데 이런 도량에서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5대적멸궁이 있으니 양산 통도사, 영월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오대산 중대이다. 납자나 불교도들이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나 회교의 메카처럼 평생순례를 염원하는 성지로 꼽힌다. 근세에는 이 도량에서 희대의 도인이신 방한암대선사가 상주 교화했기 때문에 강원도 특유의 감자밥을 먹으면서도 선객이라면 다투어 즐거이 앉기를 원한다. 지나간 도인들의 정다운 체취가 도량의 곳곳에서 다사롭고, 청태(靑苔)낀 기왓장과 때묻은 기둥에는 도인들의 흔적이 역연하다.

종각에는 국보로 지정된 청동제 신라 대종이 매달려 있어 천수백년동안 불음을 끊임없이 천봉만학(千峯萬壑)을 굽이쳐 사바세계에 메아리로 전해주었노라고 알리고 있다. 종문(鐘紋)의 비천상이 불심을 계시하면서, 초겨울의 서산에 비켜섰다.

큰방 앞에서 객이 왔음을 알리자 지객스님이 친절히 객실로 안내했다. 객실은 따뜻하다. 감자밥이 꿀맛이다. 무척이나 시장했던 탓이리라. 진부 버스정류소에서부터 줄곧 걸었으니 피곤이 온몸에 눅진 눅진하다. 원주스님과 임승스님께 방부(房付·스님이 남의 절에 가서 좀 있기를 부탁하는 일)를 알리니 즉석에서 허락되었으나 큰방에 참석치 않고 객실에서 노독을 달래었다.

상원사 옛도인 체취 감회 새로워


그림 · 이준석

산사의 겨울채비

■ 10월 2일

아침공양이 끝나자 방부를 드렸다. 장삼을 입고 어간을 향해 큰절을 세번한다. 본사와 사승(師僧) 그리고 하안거 처소를 밝히고 법명을 알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선착스님들은 환영도 거부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히 부장불영(不將不迎)할 뿐이다.

법계의 순에 따라 좌석의 차서(次序)가 정해진다. 비구계를 받은 나는 비구석중 연령순에 따라 자리가 주어졌다. 내가 좌정하자 입승스님이 공사를 발의했다. 공사란 절에서 행해지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일종의 회의를 말함인데 여기서 의결되는 사항은 여하한 상황이나 여건하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작게는 울력으로부터 크게는 산문 출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공사를 통하여 채택되고 결정된다. 본래 절생활이란 주객이 없고 자타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우리들이라는 공동생활만이 강요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질서와 법도의 준수가 요구되며 개인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 생활의 외양은 극히 공산(共産)적이지만 내용은 극히 자주적이라고나 할까.

공사의 내용은 김장울력이다. 오늘 아침공양 대중은 스물 세명이다. 원주스님과 젊은 스님 두 분이 양념 구입차 강릉으로 떠나고 나머지 스님들은 무우 배추를 뽑은 뒤 각자의 소질대로 일에 열중했다. 무우 구덩이를 파고 배추를 묻기위해 골을 파는 일은 주로 소장스님들이 하고, 시래기를 가리고 엮는 일은 노장스님들이, 배추를 절이고 무우를 씻는 일은 장년 스님들이 담당했다.

김장울력하며 食物 귀중함 알아

김장이 끝난 후 조실스님은 버린 시래기 속에서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다. 조실스님은 최소한도로 먹을 수 있는 시래기를 다시 골라 엮고 있었다.

나도 조실스님을 도와 시래기를 뒤졌다. 조실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 어느 도인이 주석하고 계시는 토굴을 찾아 두 납자가 발길을 재촉했다오. 그런데 그 토굴에서 10리쯤 떨어진 개울을 건너려고 할 때 이런 시래기 잎이 하나 떠내려 오더래요. 그러자 두 납자는 발길을 멈추고 '흥, 도인은 무슨 도인, 시래기도 간수 못하는 주제인데 도는 어떻게 간수 하겠어. 공연히 미투리만 닳게 했구려'하면서 발길을 되돌려 걷자 '스님들, 스님들, 저 시래기 좀 붙잡아 주고 가오, 늙은이가 시래기를 놓쳐 십리를 쫓아오는 길이라오' 두 납자가 돌아보니 노장스님이 개울을 따라 시래기를 쫓아 내려오고 있더래요. 시래기를 붙잡은 두 납자의, 토굴을 향한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겠지요."

조실스님이 계속해서 시래기를 엮으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식물(食物)은 아껴야만 하겠지요. 식물로 되기까지 인간이 주어야 했던 시간과 노동을 무시해 버릴순 없잖아요. 하물며 남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식물이야 더욱 아껴야 하겠지요."

나는 침묵하면서 시래기를 뒤적일 뿐이었다. 진리앞에서 군말이 필요할까.

선방일기 제보 작가 이정범씨

상처난 불심 위로됐으면…

몇 달 전 불교관련 CD롬을 뒤적이다 우연히 '선방일기'를 발견했다. 김지허(金知虛)스님이 쓰신 것으로 원고를 발표한 두해 뒤인 1975년에 입적하셨다고 한다. 서울대 출신인 스님은 탄허스님의 상좌로 열심히 수행하는 납자였다고 한다. 이 글은 1973년 신동아가 공모한 논픽션에 당선된 것으로 당시의 선방풍속과 지허 스님의 내면 세계, 안거에 임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파릇파릇 살아있어 뜻있는 스님들 사이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되듯 읽혀오고 있다.

실제로 범어사의 원로 지백 큰스님께서는 〈신동아〉에 게재된 원고를 복사해 후학들에게 나눠주셨는가 하면 금강암 정목스님은 5년전 소책자로 만들어 약 5천여부를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법보시했다고 한다.

"산사 안거수행 스님생활 생생"

그동안 안거중인 선방의 모습은 교계지는 물론 일반 매스컴에서도 이따금 다뤄왔지만 그런 피상적인 접근과는 달리 선방의 내면 풍경을 일기 형식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대하는 터라 약 250여 매의 원고를 읽는 동안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 굳이 무소유를 역설하지 않아도 당시 안거중인 스님들이 얼마나 청빈했는지 또 그만큼 내적으로 풍부한 살림을 꾸렸던 것을 눈으로 보듯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는 동안거에 임하는 스님들이 무상보리를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일깨워졌다.

일부 권승들의 사욕으로 불교권 전체가 풍전등화의 처지로 전락한 이때 뼈를 깎는 고행으로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만으로 용맹정진에 임하는 많은 스님들을 상기해 처참하게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다소나마 의로 받고싶다. '선방일기'는 25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빛이 날 문자사리(文字舍利)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고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길 발원한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 천일기도 五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입제법어 前 曹溪宗 宗正 西菴 大宗師

선종소의경전 금강경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음 11월 23일(양 1월 10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 주 관 :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2년 음 11월 2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五百日 大法會

제6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前 曹溪宗 宗正 西菴大宗師



전 조계종 종정 서암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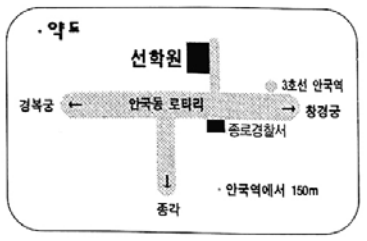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2차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四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 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해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혜일 김복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헌 신 옥 순 김도원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염무영원
고 문 양보타원 이연화심 이 경 희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 장 이관음행
부 회 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 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 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감 사 박선혜월
감 사 권법연화
1 지 역 회 장 이반야행
2 지 역 회 장 유정혜성
3 지 역 회 장 최 복 식
4 지 역 회 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 창 단 단 장 유정혜성
총 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 무 박보리성
선 정 회 회 장 배 경 주
부 회 장 박보리성
총 무 이 상 회
운영위원일동 최 은 섬
청 년 회 장 이 상 훈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1번 출구)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99년 원력물자 | 20년 도보수행 원공스님

통일기원 백두대간 걷기정진

하루 1백리씩 통일염원 안고 방방곡곡 걷고 또 걷고



"부처님께서도 45년동안 쉼없이 걸으시며 전교하셨습니다. 좌불(座佛)이 아니라 행불(行佛)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동안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이 오로지 간절한 기도와 원력으로 걸으며 수행하는 원공스님. 스님은 새해에도 123일에 걸친 백두대간 걷기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올 3월8일 지리산을 출발해 7월8일 백두산에서 회향 하겠다고 밝힌 스님은 "오는 2000년에는 꼭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순례 기도를 시작한다"고 간절한 원력을 내비친다.

이번 일정은 지리산, 속리산, 태백산, 대관령, 진부령을 거쳐 설악산에서 돌아온 뒤 중국을 통해 백두산 정상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또 지역 불자들과 함께 도라지 심기와 오물수거 등 환경운동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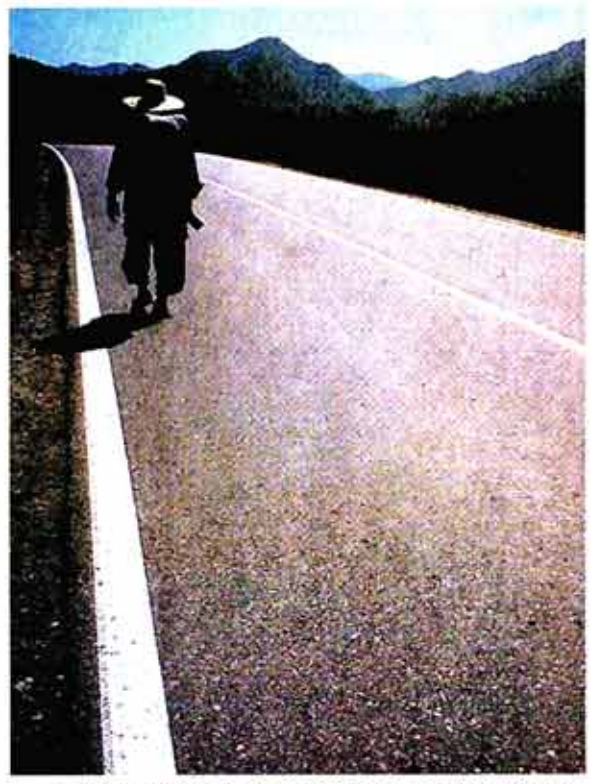
스님이 국토 순례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79년 부터.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의 면벽정진을 마친 뒤 한해도 거름없이 통일의 염원을 발길에 담고 국토 순례를 통한 수행 정진을 거듭해 왔다.

'155마일 휴전선 완주순례' '통일 기원, 180일 국토 순례' '한민족 동질성 회복기원 108일 도보 순례' '이산가족 고향 자유왕래 염원 220일 순례' 등 다양한 주제로 순례를 계속해온 스님이 그동안 답사 정진한 거리를 합치면 실크로드를 3번 이상 횡단한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항상 '걸으며 기도하는 스님', '도라지 스님', '통일 기도하는 스님' 등 각종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분단으로 겪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발원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한다.

올해로 걷기 순례 20년을 맞는 스님은 보통 하루 1백리를 걷는다. 국토를 지그재그로 남하한 뒤 다시 북상하는가 하면 휴전선 철책을 따라 다니기도 하는 등 험난한 고행의 연속이다. 순례 초기에는 남루한 옷차림과 큰 지도를 가지고 다닌 탓에 간첩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연탄 가스 중독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했다.

걷는 것이 지루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원공스님은 길 도중에서 만나는 선지식들 덕분에 괴로운 줄 모른다고 답한다. 오가며 만나는 중생들에게 배우는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 우리 국토의 흙을 밟아 보면 볼수록 산하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만 간다는 스님이 5년 전부터 전 국토에 '도라지 심기' 운동까지 펼치는 이유도 바로 산하에 대한 사랑때문이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인 도라지는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며 또 보라색·흰색의 꽃은 온 천지를 아름답게 물들여 준다고 극찬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올해로 걷기수행 20년을 맞는 원공스님은 오는 3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통일기원 백두대간 걷기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99년 원력물자 | 죽비깎고 경구 새기는 정중화씨

죽비는 중생에게 바른길 안내

3월 10~16일 '죽비전' 열어 수익금 생기면 장학금으로 보시



새해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아침예불을 마치고 난 정중화거사(67)는 예외없이 줄과 사포를 들고 나무막대 앞에 앉는다. 사포로 잘 매만진 죽비에 불경경구를 조심스럽게 새기기 시작한다.

절집에서 입선과 방선을 알리거나 예불, 입정, 참회, 공양, 청법에 이르기까지 요긴하게 쓰이는 죽비. 죽비 소리에 맞춰 대중들은 행동을 통일하며 좌선할 때 어깨를 살짝 쳐서 졸음을 쫓는 것도 죽비의 용이다. 정거사가 죽비를 만든지는 3년여. 손으로 일일히 만들다보니 40~50㎝ 가량 되는 죽비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린다. 그동안 만든 죽비가 3백여개. 죽비만드는 과정은 단조로움의 연속이지만 정거사는 곧잘 죽비 만드는 삼매에 빠지곤 한다. 주말이면 부인 묘광명 보살과 함께 전국 사찰순례를 다니면서 산에서 죽은 나무등걸이나 공사로 인해 잘라 내버려진 나무토막이나 줄기를 소중히 모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호신진언이나 읊을 간들어 남에게 보시하다가 죽비를 만들게 됐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 '일체유심조' '제행무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각종 경구와 연꽃문양까지 넣어 잘 만들어진 죽비는 탄탄하고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가지기를 원해, 스님들에게 보시하거나 사찰에 보낸 것만도 100여개가 넘는다고.

사람키보다 더 큰, 주장자처럼 보이는 장군죽비가 있고 핸드백속에 들어갈만한 미니죽비도 있다. '죽비거사' 정중화씨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조계사앞 웅전갤러리에서 죽비전시회를 갖는다. "죽었거나 버려졌던 나무가 죽비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고 IMF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또 나무모양과 결을 그대로 살린 점에 주목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죽비전의 수익금이 생기면 일부를 공부하는 스님들의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일을 하고 민족대백과사전 완간공로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정거사는 퇴직후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싶어 강남 봉은사 거사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도 열심히 했다. 거사대학에 다닐때도 누구보다 먼저 절에 와서 백팔배를 하고 같이 불교공부하는 도반들 방석부터 앉기좋게 놓아주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틈만 나면 전국 사찰참배를 다닌다. 버려진 나무등걸을 주어오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부인과 함께 양평 법왕정사에서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한다.

"경책할 때 쓰이는 법구가 죽비 아닙니까. 죽비를 사용하는 뜻만 잘 새겨도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정중화거사는 죽비, 호신진언, 옷걸이, 윷 등 모두 3천개 보시의 원력을 세워두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죽비거사' 정중화씨가 만든 죽비들. 나무모양과 결을 그대로 살리고 부처님 말씀을 새겼다.

99년 원력물자 | 보리수묘목 나눠주는 박우재씨

깨달음의 나무 10만그루 보급

보리수나무가 한국토양에서 잘 자랄수 있게 안착제 개발



부처님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나무가 한반도 금수강산에 뿌리내리게 됐다.

불교나무 보리수를 네팔에서 직접 들여와 전국 사찰과 각 가정에 보급하려는 박우재씨(32세)의 웅골찬 원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리수를 아끼고 기르며 보급하려는 불자 20여명과 '21세기 보리수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5년생 이상인 보리수 묘목 10만그루를 경기도 광주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박씨는 99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운동을 벌인다. 희망하는 사찰에는 무료로 이식해 준다. 그래서 전국 사찰에 적어도 보리수가 무조건 자라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또 보리수를 가정에서 기르고 싶은 불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그가 이 불사를 시작한 것은 산악인으로 네팔과 인연지으면서 그곳에서 불교를 만나고 보리수나무의 중요성에 눈뜨면서라고. 89년 히말리아 원정이후 10여년을 매년 5개월이상 네팔에서 산 박씨. 그는 아직 미혼으로 '만바하두루'라는 네팔 이름도 있고 그곳에 집도 있다.

그는 이 보리수 보급운동을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시키려고 한다. 겨울방학 기간에 부처님땅 네팔을 직접 찾아가 부처님 성지와 보리수를 견학하고 트레킹까지 하는 5박6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왕복 비행기요금등 실비 150,000원을 예산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성지에서 직접 부처님 숨결을 느끼고, 보리수를 통해 생명과 지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트레킹으로 체력도 단련시킨다는 것이 이번 행사를 하려는 깊은 뜻이다. 특히 보리수는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 단계 때처럼 새 순이 돋을 때가 가장 보기좋기 때문이다.

"네팔 룸비니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것과 현지에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면서 보리수가 한국에 널리 심어져야 한다고 원력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가 한국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착제까지 개발했습니다."

난(蘭)처럼 4계절 잎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보리수는 수명이 보통 1500년이라는 장생식물(長生植物).

박씨는 묘목을 분양하면서 기르는 방법까지 직접 전수해 준다. 보리수는 보통 모래나 흙에 재배하는데 다만, 물주는 주기가 다르다는 것. 일반 흙에서 자라는 보리수는 1주일에 1회 물을 주지만, 모래에서는 2~3일에 1회씩 더 자주 주어야 한다. 기후상 1~2월에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주의사항.

네팔에서 온 보리수묘목들은 박우재씨의 원력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한국에 뿌리내릴 저항력을 기르며 새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네팔에서 들여온 보리수나무를 돌보고 있는 박우재씨.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②

故知衆生本來是佛
고지중생본래시불
旣生正信 須要解慈 永明云
기중정신 수요해자 영명운
信而不解 增長無明 解而不信
신이불해 증장무명 해이불신
增長邪見 故知信解相兼 得入道疾
증장사견 고지신해상겸 득입도질

초보요정 초보약착 천리구착
入無爲國 初信要正 初信旣失
입무위국 초신요정 초신기실
萬善俱退 故祖師云 毫釐有差
만선구퇴 고조사운 호리유차
天地懸隔 是此理也
천지현격 시차이야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라.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으면 모름지기 이해 또한 깊어야 한다. 영명스님은 "믿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이해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자란다"하였다. 그러므로 믿음과 앎을 서로 겸해야 빨리 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반야경〉에는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면 여래는 다 알고 본다. 이런 모든 중생은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천리를 가고자 하면 첫걸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하며, 첫걸음이 틀리면 천리가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無爲)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처음의 믿음이 발라야 하며, 처음의 믿음이 잘못되면 온갖 선(善)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조사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했는데 바로 그런 이치이다.

或曰初發信心 未能入道 有利益否
혹왈초발신심 미능입도 유이익부
曰起信論云若人聞是法已
왈기신론운약인문시법이
不生劫弱 當知是人 定紹佛種
불생겁약 당지시인 정소불종
必爲諸佛之所授記 假使有人
필위제불지소수기 가사유인
能化三千大千世界滿中衆生

2. 진심의 다른 이름(眞心異名)

或曰已生正信 未知何名眞心
혹왈이생정신 미지하명진심

깨끗한 믿음 내면 한량없는 복덕 얻어 첫걸음이 틀리면 천리가 다 어긋나

능화삼천대천세계만중중생
令行十善 不如有人 於一食頃
영행십선 불여유인 어일식경
正思此法 過前功德 不可爲喩
정사차법 과전공덕 불가위유

누가 물었다. "처음으로 신심을 내었으나 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이익이 있는가."

대답했다. "〈기신론〉에 '만약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제불(諸佛)의 수기를 받게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안에 가득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善)을 행하게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잠깐동안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공덕은 앞의 공덕보다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많다"하였다.

曰離妄名眞 靈鑑曰心 楞嚴經中
왈이망명진 영감왈심 능엄경중
發明此心
발명차심
或曰但名眞心 別有異號耶
혹왈단명진심 별유이호야
曰佛敎祖敎 立名不同 且佛敎者
왈불교조교 입명부동 차불교자
菩薩戒 呼爲心地 發生萬善故
보살계 호위심지 발생만선고
般若經 喚作菩提 與覺爲體故
반야경 환작보리 여각위체고

又般若經云 乃至一念生淨信者
우반야경운 내지일념생정신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여래실지실견 시제중생
得如是無量福德 是知欲行千里
득여시무량복덕 시지욕행천리
初步要正 初步若錯 千里俱錯
初步要正 初步若錯 千里俱錯

물었다. "이미 바른 믿음은 내었지만 무엇을 진심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대답했다. "허망을 떠난 것을 진(眞)이라 하고, 신령하게 밝게 보는 것을 심(心)이라 한다. 〈능엄경〉에 이런 마음을 밝혀 놓았다."

물었다. "다만 진심이라고만 합니까, 따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대답했다. "불교와 조교에서 내세운 이름이 같지 않다. 불교의 보살계에서는 심지(心地)라 했는데 이는 온갖 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요, 〈반야경〉서 보리라 한 것은 깨달음이 체(體)가 되기 때문이요.

김원각〈시인〉

새아침 효란스님에 듣는다 수행한담

"새해에는 마음창고에

효란스님 〈오봉사 회주〉



약력
- 1918년 충남 예산 生
- 31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 43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졸업
- 46~65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문화사 강의
- 68년 동헌스님을 은사로 건당
- 회암사 등지에서 안거 수행
-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 83~8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 現 오봉사 주석. 고대한일불교 문화교류협 창립추진위원장
-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 〈불교의 전통신앙〉 등 편역 및 저술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인사부터 나누어야 할텐데, 인사보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백대복이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며느리와 같이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시장사람들 조차 두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심심해 할 정도였습니다.

이 노인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스님, 며느리와 싸우는 병이 걸렸으니 병 낫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종일 부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싸우다가도 생각나면 '나무아미타불'을 했대요. 백일이 넘고 계절이 바뀌도록 했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한데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내가 왜 저 아이를 미워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 장사도 잘 돼 음식점을 냈고, 어지간히 살려고 하는데, 이 노인에게 중풍이 왔어요. 병원에 누웠는데, 아들 내외가 장사하니까 자주 들르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와서는 아들 며느리를 욕하면, "내 업이야. 남 탓할 일이 아니야"하고 말했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정법운운하는데, 정법이 뭐냐. 글도 깨치지 못하고 시장바닥에서 살다 가신 이 할머니에게 있어요. 모두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 올 한해는 이 생각 가지고 삽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얻어 입고 산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나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원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작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바라는 곳에서 바라는 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을 시봉하는 승려의 신분이지만, 이것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려가 되었으며, 또한 내가 불교공부를 하고자 하여 시작했다기보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작용에 의해 나는 불교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막강한 힘의 작용에 의해 살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승려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깨치려 하면 안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했잖습니까.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중생들이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중생도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본뜻입니다.

중생들을 뒷바라지해서 성불토록 해야 승려도 성불합니다. 나는 고려 때부터 우리 불교가 쇠퇴했다고 보는데, 중생 위에 스님들이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만 해요.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뭇중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족·직장동료 가까운 인연 그들이 모두 나의 業 그들을 귀히 여김은 선업 쌓는일

나는 13세가 정명(定命)이라는 이유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은 나의 생명연장을 위하여 불가에 출가시켰습니다. 수덕사의 만공스님이 내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덕사는 방학 때마다 내려갔지요. 머리만 깎고 생활은 서울에 와서 했으나, 내 마음속에는 '나는 중이다'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집이 예산서는 소문난 큰 부자였는데, 행랑채에 살며 우리 집 일을 보는 아버지 뻘되는 아저씨가 나를 대하며 '도련님, 도련님' 하며 존대를 해요.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때 불교가 무언지는 몰랐지만 만물이 다 자기가치를 지니고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법은 형무소에서 만났어요. 대학교(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다닐 때 조선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년3개월간 형무소에 있었는데, 다른 것은 볼 수 없었는데 꼬박 불교 책을 넣어주더라고요. 불교 책은 형무소에서 넣어주었는데, 보안과장이 스님이었어요. 거기서 불교공부를 착실히 했습니다.

가두어놓고 불서(佛書)를 읽혀서 나에게 불교사상을 주입시켰으며, 수십 년간 정법을 구도토록 하고 60세가 다 되어서야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내가 구하는 불법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나 지나고 보면 부사의한 자기의 삶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절대적인 힘의 작용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형무소에서 출감하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추방되어 소위 사상범의 수용소 격인 대화숙(大和塾)이라는 곳에 또 수용당했다가 병으로 고향인 충청도 예산에 가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시절에 형무소에서 3년간 불교공부를 한 것이 불교의 정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바탕이 되었고, 그후 나는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교육계에 몸담으며 불교를 선양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불교에서 염불문(念佛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흑성산 천불사
매월 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 주 一古 起然
주 지 富佛 印鏡
신도회장 민병달 聖林
신도회원 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
전 화 : 0417)557-3223
0417)557-3506
F A X : 0417)555-6550

대한불교 조계종
불암사
회 주 태 정
주 지 일 면
신도회장 김보광명
거사림회장 임 인 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7
TEL : 0346)527-8345/ FAX 0346)554-0635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 일 면
광동종합고등학교장 김 교 남
광동여자고등학교장 윤 종 희
광 동 중 학 교 장 고 홍 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
TEL : 0346)572-0559

금강불교조각 연구원
원장스님 이 청 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6095번지
TEL : 051)972-3912, 971-2174
FAX : 051)971-3384

세아침 효란스님에 듣는다 **수행한담**

선업을 가득 채웁시다"



◇84년 일본진종계 사찰의 초청으로 일본의 한 사찰에서 원로스님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효란스님.

번뇌는 분별 · 집착서 생기니 끊겠다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태연하게 같이 놀아버리면 됩니다

門)을 가고 있는 교단의 승려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일본불교를 민족적인 감정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일본불교는 백제의 성왕(聖王)이 일본에 전파한 후배 격인 불교라는 생각에서 멸시하는 처지였고, 또한 일본 승려들은 막행막식을 하는, 계행이 없는 승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대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그리고 '아미타경'을 얻게 되었고, 그밖에 염불문에 대한 많은 불서를 얻게 되어 정토문(淨土門)인 염불문에 대한 의심이 풀리고 보니 중국불교에도 뚜렷한 염불문이 있었고, 한국불교에도 신라 때 뚜렷한 염불문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라불교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니 신라의 원효스님께서는 신라 사회를 염불문 불교로 인도하시어 신라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고, 소위 상근기 중생이나 하근기 중생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을 염불문을 통하여 구제하신, 부처님과 같은 성행(聖行)을 이루어놓으신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효스님이 하근기 중생이라 염불문에 입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업(業)과 연(緣)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들이 지은 잘못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다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 집착하고, 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마치 카메라가 렌즈를 통하여 사물을 받아들여서 필름에 기록하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창고에 모두 저장됩니다. 그것을 업장(業藏, 업의 창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는 즐거움의 과보를 가져다주고, 악한 행위는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마음창고에 선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업이 즐거움의 결과로 나타나고, 악업이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같은 업(同業)끼리 만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연(緣)이라고 합니다. 악업은 반드시 악업끼리 만나고 선업은 반드시 선업끼리 만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어느 곳에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뼈를 재탕 삼탕해 설렁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장사가 안되자 주인은 주방장의 솜씨가 없어 그렇다며 월급도 제때에 주지 않았어요. 이에 화가 난 주방장은 일부러 그 집을 망하게 하려고 국물을 진하게 끓이고 밥과 김치도 손님들에 듬뿍 퍼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망하기는 커녕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앙심을 품고 주인에게 해를 주려고 했지만, 주방장의 행위는 거꾸로 주인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주방장과 주인과의 관계가 선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연은 악업의 인연이 아니면 선업의 인연입니다. 선업의 인연이라면 은인일 것이고, 악업의 인연이라면 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만남에 있어서도 선업이 아니면 악업이라는 관계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업과 악업의 관계가 섞여져서 만납니다. 어떤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 하였을 때 그 관계가 반드시 선업이나 악업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짓는 업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나 그동안 쌓아놓았던 악업의 보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크다면 악업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일 것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이 모두 나의 업이며 인연입니다. 그들을 귀히 여김이 선업을 쌓는 일이 됩니다.

제주도에 93세 된 노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따라온 아홉 살 먹은 아이에게 나이를 묻고는, "나랑 동갑이네"했대요.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는 고민이 생겼어요. 스님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텐데, 어찌 나와 노스님의 나이가 같을까. 부모님에게 물어도 답변을 못해주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와 아이의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그 노스님과 우리 아이가 동갑일 수 있지요?"

"부처님이 생길 때 비로소 중생이 생기고,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겠죠. 그러니 동갑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과 중생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우도에 대해 물어요. 그래서 소꼬리를 잡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집착이 크다는 것이고, 소 등에 걸터앉아 피리를 부는 것은 번뇌를 초월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지요.

번뇌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인데, 끊겠다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태연하게 같이 놀아버리면 됩니다.

공자에 나오는 얘깁니다. 폭포 밑에는 물살이 크게 요동치니 물고기조차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사람의 머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아이쿠, 사람이 빠졌구나 하고 급히 뛰어가서 보니 폭포 옆에 어느 사람이 누워 있어요. 폭포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했소 하니, 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되물어요. 공자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어떻게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대답이 저절로 무릎을 치게 했습니다.

"물이 하자는 대로 맡겨두니까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같이 놀자는 경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 알아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안달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조금 손해나듯 사세요. 당장은 잃는 것인지 몰라도 마음이 편하니 이게 득이예요.

그러니 마음을 새로 내십시오. 93세 노스님과 어린아이가 동갑이듯이 중생이 곧 부처니까요.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행동이 곧 業… 모든것은 나 하기 나름

"조금 손해나듯 사세요… 마음 편해져요"

누구나 진실하게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서운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성취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연(緣)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야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1년을 단위로 마무리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은 우리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것 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또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수행일기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포교발원 등산길에 불서 나눠주고 군포교 중요성 절감…작은힘 보태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불심 지극한 할머니를 따라 고향인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면의 원효스님이 창건했다는 오어사에 다니면서 부터 시작됐다. 항상 절에가서 참배하고, 법문듣고, 염불하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학교다닐 때에도 군복무중에도, 사회에 나와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인연있는 절을 찾아다니며 시간이 나는대로 참선도 하고, 철야정진도 하면서 무작정 불제자로서의 종자를 키워나갔다.

미력하나마 불교공부를 조금씩 하다보니 차츰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절을 찾아 청정하고 고요한 산사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불교관련서적을 구해서 읽으며 체계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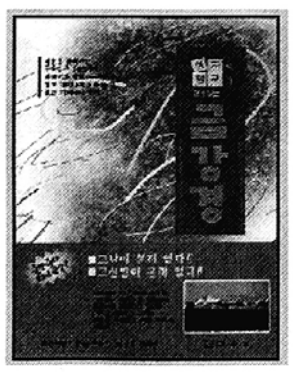
그러다 나같이 불교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고, 뭔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불자로서의 인연을 맺는 포교활동을 하겠다는 원을 세웠었다. 그런데 그즈음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하던 사업도 잠시 접어두고 건강회복을 위해 혼자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좋고 공기좋은 산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래! 여기서부터 포교를 시작하자'는 생각에 산에 오를때면 배낭속에 약간의 음식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책들을 가득 채우고,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권한권 나눠주었다.

이런 나의 행동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고, 책을 받고 돈을 주려는 사람, 돈이 없어서 책을 못받겠다는 사람 등 한동한 웃지못할 일도 참 많았다. 하지만 내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기쁘고, 절로 신심이 솟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때 마침 현대불교신문을 통해서 전국불교산악회가 조직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길로 전국불교산악회 서울지부 '금강메아리' 회원으로 가입해 지도법사로서 산악인 불자들과 함께 매월 첫째 일요일은 서울 근교에 있는 산사를 찾아 산행과 참배를 하고, 셋째 일요일에는 성지순례를 겸한 산행을 하면서 국토청결운동도 하고 있다. 혼자서 산을 오르며 활동하던 때보다 더 크고 뜻있는 계획적인 활동을 하게되어 내가 처음에 서원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한다.

포교활동을 하다보니 젊은층의 남성불자들이 숫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군인불자양성을 위한 일을 해보고자 군불교진흥회에서 군승단을 도와 군장병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여전히 군대는 불교포교의 무관심 지대임을 실감한다. 무관심과 재정적인 어려움, 조직의 열세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할 일 들이 너무도 많다. 타종교의 경우 종파를 초월해 단합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불교는 종과 따로, 사찰따로 개인으로 저마다 각각으로 활동해 효과적인 포교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 어느 특정 종파에도 치우치지 말고, 범불교운동으로 군포교불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불사는 큰 절 짓는 불사보다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또 미래에 법을 전하는 전사들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 한사람의 힘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군불자포교를 통해 젊은 남성불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또다시 사찰신도회나 불자산악인회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한다.

● 초등학생도 읽는 초유의 〈금강경〉 해설서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 생활속에 금강경 실천 겨울수련회 ●

■ 일시 : '99년 1월 22일(금) 20시 - 1월 25일(월) 06시 (3박 4일)
■ 장소 : 「바른법연구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 대상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을 읽고 내용에 공감한 독자
■ 인원 : 30명 ■ 회비 : 5만원
■ 신청마감 : 수련회 3일전까지
■ 주요프로그램 :
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금강경〉 독송
② 잠해탈을 위한 1일 3시간 수면 실천
③ 업보해탈을 위한 과학적인 소원성취 기도법 및 체험담 소개
④ 니시 가쯔조 건강법 실천 (절식생활, 냉온욕, 풍욕, 건강체조법)
⑤ 묵언 정진 생활화
⑥ 사찰 기본상식 및 교양강좌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바람
■ 문 의 처 : (0344)966-5877, 963-2872
■ 팩 스 : (02)324-3866

이 책에는
❶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❷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❸뜻을 세우고 소원을 이루는 최상의 과학적인 기도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한마디로 금강경 해설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해설서이다.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를 넣어 경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것도 특이하지만, 3분 대승정종분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해석, 4분의 무주상보시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보시로 보는 관점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보지 못했던 시원하면서도 독창성이 넘쳐 흐르는 내용이다. - 서울신문사 관리부장 박상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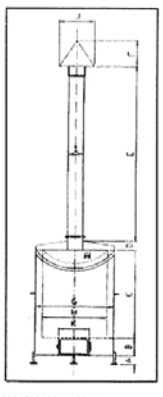
"아무리 훌륭한 법도 몸뚱이착으로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 아니요, 평범한 듯 하여도 몸뚱이착 여의고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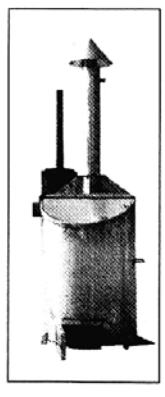
바른법연구원

사찰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은 매연, 완전연소로 소각하십시오.

대용 하향식 소각로

대용 하향식 연소방법 소각로란?





1)과학적 설계로 제작된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고 소각하여도 오나전 연소되어 매연이 적다.
2)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다.
3)연소중 관리가 필요없고 이동이 용이하다.
4)소각로의 재질이 스텐레스(SUS) 316(표준형)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이다.
(특별 재질 주문 제작 가능. SUS 309, 310, 304, STEEL)
5)특히 산야등 산불의 위험이 있는 관광사찰

※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

모델명	재 질	금 액
DY-1	SUS316	₩1,250,000
DY-2	SUS316	₩ 850,000
주문형		

제조원: 대용 엔지니어링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3

판매 · 문의 02)367-2680 / 745-8503(실상선원)



경전속 토끼설화

이야기 하나 달로 간 토끼

옛날 베나레스 근처에 여우, 원숭이, 토끼가 살고 있었다. 세 동물은 우정이 지극히 두터워 서로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여겼다. 석제 환인은 이 모양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진실로 이 가운데 보살도를 닦고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시험코자 가만히 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 별 일 없이 잘 있었느냐?"

"예, 우리들은 날마다 숲과 숲사이를 풀아다

"이 몸을 노인께 공양하고 성불을 기약코자…" 토끼는 불속에 들어갔다

니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매우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듣고 하도 기뻐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나 별안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들 미안하지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지 않으련."

"좋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얼마 후 여우는 물가에 가서 생선을 잡아 가지고 오고 원숭이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 과실을 따 왔으나 토끼는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 손으로 와 그 주위를 뱅뱅 돌았다. 노인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저대로 생각이 따로 있어 그랬습니다" 하고 옆에 있던 원숭이와 여우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마른나무 한단씩만 구해다 다오."

여우와 원숭이는 곧 나무를 해다 쌓았다. 토끼는 곧 그 나무에 불을 놓고 훨훨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엄숙한 태도로 노인에게 말했다.

"나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원컨대 이 몸을 노인께 공양하고 후세 성불을 기약코자 합니다" 하고 훨훨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때 늙은 사람은 제석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 타다 남은 토끼를 잿더미 속에서 꺼내 들고 탄식했다.

"실로 나는 너희들이 보살행도를 시험코자 왔다. 그러나 지금 토끼의 소신공양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이와 같이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토끼의 자취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할 수 없다. 내 이제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붙여 길이 후세에 본이 되게 하리리" 하고 곧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그려 넣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설하고 그 때의 토끼가 바로 오늘의 나 라고 말했다.

〈본생담〉

이야기 둘 사자를 이긴 토끼의 지혜

어떤 숲 속에 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다. 소담스런 금빛 형형하게 빛나는 눈, 힘이 넘치는 것 같은 굵은 발, 어느것 하나 장부의 기상을 갖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래 그는 넓은 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 크게 소리쳤다.

"어흥"

천하는 바로 그의 것이었다. 누구하나 대꾸하는 자가 없었다.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소리

"임금님과 똑같은 사자가 우물속에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의 꾀에 속아…

만 들어도 숲 속의 동물들은 모두 제 집으로 들어가 벌벌 떨고 있었다.

사자는 느릿느릿 숲 속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동물을 차례로 찾아내어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버렸다. 동물들은 밤 늦게 몰래 모여서 사후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한 마리씩 사자에게 자청하여 찾아가기로 했다.

어느날 토끼가 사자에게 가게 되었다. 토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하면서 걸어갔다. 도중에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그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본 토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자에게 간 토끼는 "임금님과 똑같이 생긴 사자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내가 임금님께 간다고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이 산중의 왕은 나인데 나 이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놈을 내가 혼쭐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화가 난 사자는 당장 토끼에게 그곳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토끼는 발걸음도 가볍게 우물가로 사자를 인도했다.

사자가 높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자기와 똑같은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았다.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도 따라서 똑같이 "어흥"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요동을 하니 물 속의 사자도 똑같이 소리치며 야단을 했다. 화가 난 사자는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그와 싸우려고 그만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육중한 몸이 깊은 못에 잠겨 죽으면서,

"토끼야 날 살려라, 토끼야 날 살려다오."

이 소리를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토끼를 에워싸고 물러서서 춤을 추고 기뻐하였다.

〈불본행집경〉



◇만봉스님作 '십이지신상' 중 토끼.

기묘(己卯)년 한국불교 소사

■679(신라 문무왕19년) 명랑(明朗)의 건의로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 창건.

■799(신라 소성왕1년) 승려 법수, 당에 들어가 〈신역후분화엄경 장관의소〉를 얻어 돌아옴.

■919(신라 경명왕3년, 고려 태조2년) △신라, 사천왕사의 소상(塑像)이 가진 활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서(壁書)의 개가 짖으니 3일간 경을 강의하여 기도 △태조, 법왕·자운·왕륜·내제석·사나·천선원·신흥·문주·원통·지장 등 10사(寺)를 도내(都內)에 창건.

■1099(고려 숙종6년) △요나라에서 숙랑(叔郞)으로 하여금 대장경 및 〈제종소초〉 6천9백여권을 보내옴.

■1399(조선 정종1년) △태상왕(太上王), 해인사 대장경 인출(印出)을 지시.

■1459(세조5년) △원각조사 입적 △〈월인석보〉 완성.

■1579(선조12년) △〈선가귀감언해〉 초판 간행.

■1879(고종16년) △1월 본원사 부산별원, 한어학사(韓語學舍) 설립 △2월28일 귀주사(歸州寺) 중수를 위해 내탕전(內帑錢) 3천5백지(紙)와 공명첩(空名帖) 5백장 발급 △3월 석왕사 중수를 위해 공명첩 3백장 발급 △7월12일 만해 한용운,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출생 △8월 이풍인, 박영효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감. 최초의 일본 유학생.

■1939 △3월16일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7회 평의원회 개최 △3월23일 중앙선원(선학원), 조선불교선종 제1회 정기선회 개최 △4월7일 총독부, 종교단체법 제정 공포. 1940년 4월1일 시행 △4월 범어사 경성포교당,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 개칭 △7월7일 중일전쟁 제2주년을 맞아 전국 각 사암·포교소·신도단체 등에서 무운장구 기원제, 전몰장병 위령제, 황군(皇軍)위문금 모금 등 실시 △7월13일 총독부, 고적발굴 10개년계획 발표 △10월9일 경북 5본산, 은해사 경내에 오산(吾山)불교학교 설립인가 받음 △11월2일 부산사원연합회, 탁발보국대(托鉢報國隊) 조직 △12월8일 (재)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조계학원으로 명칭 변경 신청. 1940년 2월6일 변경 인가.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량의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통칭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정육고(정육고) 같이 생긴 「악수영진고(악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악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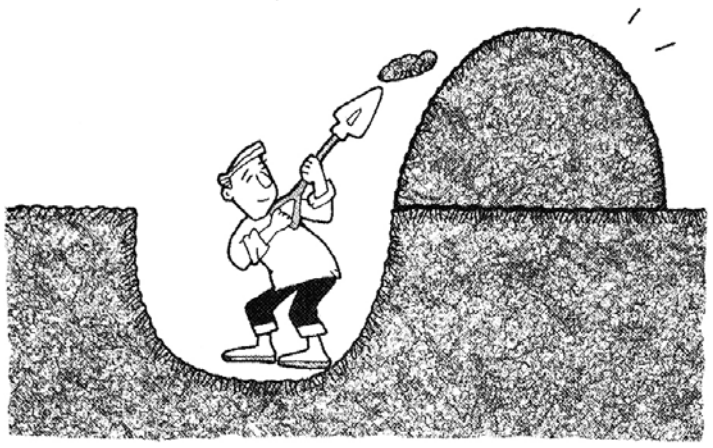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세상만사 내 스승 아닌 것 하나도 없어

물흐르고 꽃피는 것등 세상사 보고 배워 지혜 넓어지듯 조계종 사건도 발전계기 돼야죠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항상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가신다면 나도 또한 항상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역시 만불이 일불이고 일불이 만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자체 그 주인공의 한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그것처럼 이 진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또 씨앗을 심어서 먹듯이, 그것은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집도 있고 산도 저렇게 있지만 사람은 길을 걷고 또 걸어도 그래도 그 집은 남아있고 그 산은 남아있듯이 우리는 그런 한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조계종 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건에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걸 봐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넓히고 공부를 하는 뜻이지 그게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딪침이 있어서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고 어떤 상대가 없다면 우린 발전을 못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놓아도 그것을 운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은 부딪침에 의해서 커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님네들도 참 허망하다,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 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모든 일체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배우고 지혜가 넓어지고 물리가 터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소 중에 잘못 나가느냐 잘 나가느냐 이게 문제죠. 참다웁게 물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다든가 또는 너무 실직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옷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먹기만 한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자기가 결국 자기 불성이니까요. 그것이 한 해 두 해, 또는 한 생 두 생 이렇게만 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 억겁 전부터 나를 이끌어 온 장본인의 근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슨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하고 간략하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듯 그냥 훌떡 훌떡 넘어가느냐. 이거 아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업보가 있다고 한다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멸이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차이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혼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을 알면 한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지어온 많은 습이 어떻게 단번에 소멸이 됩니까. 참회를 아무리 해도 참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참회한 것이 도로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직거리기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다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지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짙고 많아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나은 자리에다 되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관하고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소멸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은 보현신이죠.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죽거려주는 게 보현신이에요.

자기뿌리 믿지 않아 울고불고 하는 일 많아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하면 업보도 없어

그리고 그것은 거기다 자꾸 놓아서 소멸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죠. 그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자꾸자꾸 소멸되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것은 양심이죠. 자기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없는 자기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그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튀어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남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도 다 퍼져서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주니까 받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지 그러느냐고 하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 '수상행식'이라는 그것도 첨부하면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 공식이죠. 한데 합쳐진 한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아예 그냥 잡아먹고 먹히고 이러는 거나 알고 그러지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체가 없는 우리 마음의 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상상력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서 저것을 대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거든요. 전체가.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의 마음도 전부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또 아픈데 가면 약사신이 되고, 또 명이 짧다 하면 칠성 부처로 화하고, 또 좋은 데로 못간다 하면 지장으로 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남들과 같이 손있고 귀있고 눈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대로 상상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리는 못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천리를 마다 안하고 만리를 마다 안하고 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성 무의 축지법이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기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영계성이 걸려서 죽은 걸 봐도 관하죠. 그런데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은 관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대로 보는 순간이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다 관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하면 그 영가는 바로 화해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서 천도가 되고 아픈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모습으로 되는 율이 많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들어오는 율은 아주 드문 얘기죠.

내가 주는 것이 많지, 받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것은 보살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몰라서 이리로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같이 해주죠. 그래서 화해서 차원에 따라서 진화되게 하고 말이에요. 참 이 얘기는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뒤바꿔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9)

마음이 앞장서면 어떤 보화라도 뒤따른다.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뜻을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보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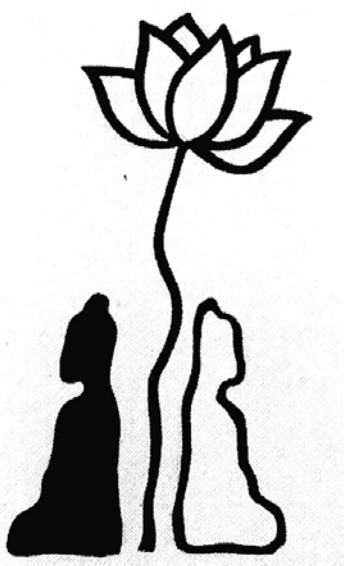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서 바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만 가지의 층하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층하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곧 관념이다. 자기의 생각 여하에 따라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므로 한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마음이다. 육신이 죽어도 죽어질 수 없는 마음, 자기가 지은 행위로부터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을 때에 가서야 해탈이 되는 이 마음의 진화만이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일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마음을 타락시키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나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푹 쉬어 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난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다.

부처님 법에서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둘이 아니다. 사바가 즉 정토요 번뇌가 즉 보리인 것이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인 것이며 번뇌와 보리를 둘로 보지 않고 그 실상을 직시하고 나면 본래로 번뇌가 없는 영원한 실상에



안주케 되는 것이다.

마음 도리를 알면 모든 게 화평하게 돌아간다.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렇고, 가정적으로는 주인공의 발현으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그렇고,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질서와 조화속에 앉은 방석을 지키는 이치가 밝게 이끌어지니 그렇다.

부처는 어디 있으며 보살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요술 주머니 속에서 오색 보물을 꺼내듯이 자기가 마음쓴 대로 보살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부처로도 나와서 친견한다. 또 신장으로 나와 친견하기도 하고 마구니로 나와 친견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나 꿈에 보는 모습이나, 또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관세음 보살의 모습, 기도 중에 나타나 보이는 보살의 모습 등이 모두 자기가 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니 바로 자기가 생각 내는 그 마음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다.

또 사람이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산신이 있는 것이고 신장이 있다, 용신이 있다고 하면 신장과 용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귀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귀신 짓을 안하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중생계인 이 육신, 즉 수없이 많은 생명과 오대양 육대주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형성하고 주재하는 주인이다. 모든 중생들을 이끌고 가는 선장이다. 따라서 선장이 마음쓰는 대로 오장 육부의 중생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다. 선장이 '죽겠다'고 하면 몸 속의 생명체들도 '죽겠다'고 응하게 된다.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한다. 봄이라야 저 산천 초목이 생동력 있게 푸르르듯 마음이 항상 청새처럼 푸르르면서 지혜로워, 강물이 도도히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업장 녹이려면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 17면에서 계속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이거다. 또 어디가 참 괴롭다거나 쓰라리다고 할 때에 네 마음을 내놔 봐라. 그럼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니까요.

'난 업보가 많아서 이래.' 이러면 업보가 많은 것이고 '난 업보고 뭐고 없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내가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없는 거죠. 공하다 하는 이유는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말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만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움죽거리는 것도 없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형이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동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랬을 때,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형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나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이유 붙이면 마음공부 못해요
놓는 공부는 일심 정진으로
하나 하나 소멸시키는 실천

그와 같이 고정된게 없다는 얘기죠. 고정된게 없이 찰나찰나 바뀌면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냥.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자동이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아버지 노릇하고 자유스럽게 남편노릇 하고, 또 자유스럽게 아들노릇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이해가 선뜻 선뜻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되죠.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듬으로 한데 합쳐서 더불어 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이 없이 사는데 업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함이 없이 사니 시자일 뿐인데, 공한 모습일 뿐인데 거기에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고 업력이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의법을 가르치시고 무의법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에 〈법화경〉을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일일이 따져서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어떻게 심어야 이렇게 해먹고, 어떤 거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안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천년 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하나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먹었어도 내가 먹었단 말 못한다, 내가 했어도 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업보가 될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쉴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두뇌를 금강 석수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부처님 머리위에도 이렇게 봉이 돼 있죠. 그게 금강같은 석수봉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면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앞서의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거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그 놈한테다 새로운 걸 입력시켜 그 근거를 말살시켰으니까 그게 소멸되죠. 하나하나 소멸하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 진다, 점점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진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그릇도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각기 그릇이 다르고 차원이 틀려서 얼른 그것을 납득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 납득을 못하고 중간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고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업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날까지 수 억겁을 살아오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살던 습이 있습니다. 그 쌓이고 쌓인 습이 어떻게 금방 다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녹아지려면 끊임없이 나온 자리에다가 되놓는 방법 뿐이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에 살 때 당나귀를 어떻게 때리면서 부렸는지 죽어서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주인은 부인이 돼가지고 항시 그게 업보가 돼서 입력이 된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마냥 때리거든요. 부인이 도저히 못견뎌서 어느 스님이 지나가니까 스님 바지자락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당나귀를 부릴 때 너무 때려서 그대신 맞는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그럼 돗자리를 똘똘 말아서 당신 때리기 쉬운 자리에다가 놓고 있으라고, 돗자리의 한올한올 수효대로 때린 게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시킨대로 하니까 한 사나흘 그걸로 때리더니, 자고 나서는 "내가 왜 당신을 때렸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에누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얘깁니다. 에누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에누리가 없고 있고 간에 그냥 소멸된다 이 소리죠. 소멸되는 공부는 이 공부밖엔 없어요.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 것!'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둥안에서 네 마음이 벗어나야 네 몸을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네 몸을 맘대로 굴릴 수 있느니라. 네 몸이 통이니 그 통안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정신계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것을 정신계에서 대치해서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의리와 도의를 지키면서 말을 지혜롭게 해나가면 그대로죠 뭐.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게 스스로 돼야지 억지로는 안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했어요. '나를 부딪쳐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죄없이 맞는 것은 빨리 낫는다고 하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 3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그걸 고치면 누가 좋은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좋아요. 앙숙으로 지내다가 편리하거든요. 부모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그냥 의리가 나빠서 싸우고 하는 게 다 마음이거든요. 업보로 인해서 모든 게 쌓이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인연들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만나서 앙숙이 돼서 그렇게 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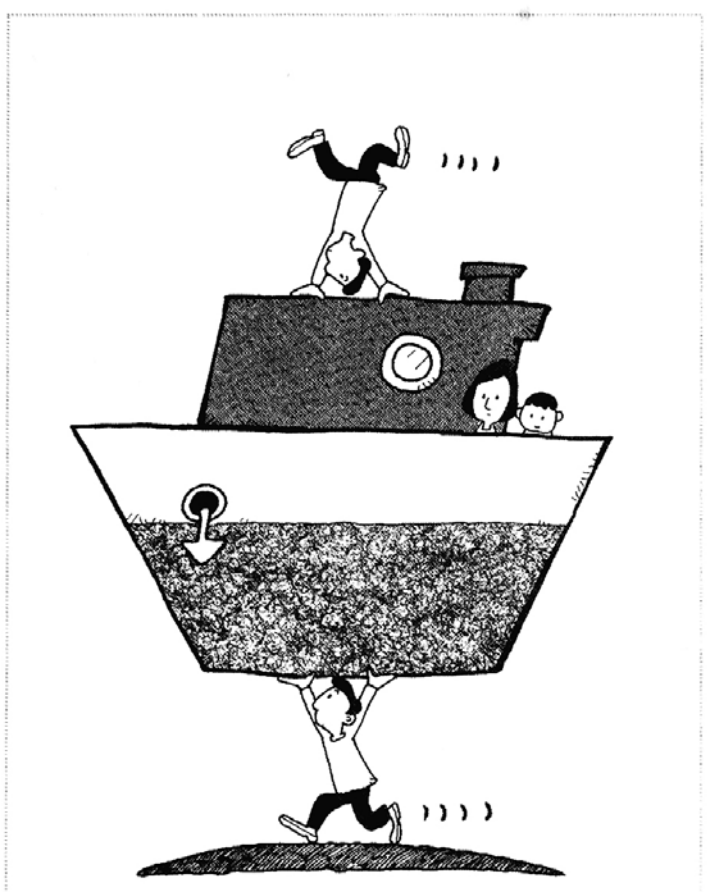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한테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당신도 전에 그랬잖어. 당신은 지금 당신이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하고 지금 현실에 온 것까지는 몰라. 당신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구요. 또 이루다 말로 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공부하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놓는 공부는 바로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실천인데. 우린 지금 이미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소멸시키는 실천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붙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처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이 없는 길도 알기 때문이죠.

체없는 마음 · 수상행식 뛰어넘어서야
습녹고 업력 없어지면 내 이익 생각안해

다 어떻게 합니까. 공을 치면 튀어온다고 그러죠. 분명코 그것을 치면 튀어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막 해댄단 말입니다. 욕을 해대면 그 욕한 것이 나한테까지 튀어오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둘이 아닌데 저 사람도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이렇게 관하라고 내가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백팔십도로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 만물이 여러분 마음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천차만별의 마음은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유스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치면 아프고 또는 좋고 나쁜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안되는 건 습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걸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편안하게 생활속에서 행하시면서 내 몸이 하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몽땅 그놈한테다 맡겨놓고 사시면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해도 돼요. 정말이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살림살이가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배는 네 모습이고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은 네 중생이니라. 그런데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한테다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끌어다 줄 것을,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고는 온통 난리를 치니까 그 배는 뒤집힐 수 밖에 없다구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승의 이치를 다 알고 대치를 해 나갑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여덟달 만에 낳았다든가 해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대 독자랍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급하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로만 지극하게 들어간 거에요.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자기 앞에 급하게 떨어진 일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요, 급하지 않아도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허허바다에 배 한쪽 타고 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어느 때 차사고가 날지 어느 때 떨어질지 어느 때 또 잘못 될지 어느 때 식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구요. 그냥 허허바다에 배 한쪽 띄어진 것과 같다구요.

그러니 이것 저것 다 생각할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 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불쌍하고 가엾은 게 아니에요. 벌레서부터 사람까지 모두 사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마 화성에는 생명들이 없었나보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어느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살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거에요. 아, 여기에서도 살다가, 또 이 지구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부딪치고 부딪치구 수백년, 수만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화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보살이 된다면 은비까비처럼 될 수도 있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러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보살이 그렇게 행을 하거든요. 보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저 그림에만 나오고 텔레비젼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수중에 아무 것도 없어도, 아니 내 수중이 아니라 내 몸까지 없어요. 아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어요. 버릴 것도 없는 것을 말이예요. 여러분이 함이 없이 살고, 공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한 게 없다는 걸 알면 그 이치를 알게 될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안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없는 걸 알아야만 자유스러워지죠.

항상 얘기하지만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줘도 깨우치는 것 하고, 죽는 것, 아픈 것, 똥누는 것, 잠자는 것, 먹는 것, 이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마음이 태평하게 버젓하게 그거를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방 뛰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면 될 것을 저렇게 붙들고 있으니 살기가 어렵고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죽는 걸 겁내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참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배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같이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같이 해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 해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그니라." 이러셨죠. 때로는 각자 자기 몸을 살펴볼 때 말입니다.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지요. 딴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빨리 대치를 해 나가야지, 대치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더 오히려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살았다면 벌써 죽었지 여지껏 살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 모른 대로
같이 해 주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 주는게
모 나지 않고 둥근것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서 돼? 아프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허허허허…. 아, 이 몸뚱이를 집을 삼고 사는 생명들이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고 나도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그렇게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이따가 죽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부모를 두고서 자식이 죽는다거나 또는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부모가 죽는다거나 또는 부모가 너무 오래 살면서 자식들을 괴롭히거나 이런다면 그 부모된 마음에는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빨리 죽는 방법 그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남이 괴롭다 하면은 나는 백배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실천은 자비에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에요. 사랑을 안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상대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좋게 해놓고 자꾸 그러다보면 진짜로 실천이 되죠. 그럼 자비가 되는데 한 가정이 융합해서 좀 화목해서 살려면 거짓 아닌 거짓도 많이 허야 되거든요.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가정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 당신 고생해,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데서 모든 응어리진 마음이 다 스르르 녹거든요. 그러면 그 녹은 마음이 애들한테도 화를 안내게 되죠. 또 부모 모시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잘하게 되구요. 그런데 응어리진 마음에 좋게 풀지는 못할망정 더 마음 아프게 말 한마디 툭 해버리면요 그 양쪽이 다 불안하게 되고 말죠.

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요, 고생을 많이 해도 말 한마디만 따뜻이 잘 해주면 저절로 스르르 녹아지는데 그 돈이 들으니 못해요, 왜 못해요 글세.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도 돌려지지가 않고 나기 마음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 꽃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자기가 하고 사는 겁니까. 업식과 업보가 뭉치고 뭉쳐서 화가 불끈 일어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말을 해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업식의 장난이죠 모두.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무료시술 · 심요법

치료비 전액무료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1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너무도 영험한 자미두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불교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현장실습
3. 기균형 전문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氣 기공 · 혈도술

몸과 마음 함께 수련

행복한 삶! 복됨의 도법 – 건강한 삶, 건강비법!
기공대법 · 단전호흡법 · 혈도술법
기력증진 정신통일 정의력개발 대인관계개선 정력회복법
이런분 특히 권함! 1 디스크 난치병등 현대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2. 사업 및 직장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3. 대학등 진학 취직 시험 · 고시등 준비하시는 분 4. 피부 미용 및 비만등으로 고민하는 분 5. 단전호흡법 · 기공 · 혈신기법을 익히고자 하는 분
(※단체지도 등 회원, 전수생 모집)

대흥도원 ☎0336)643-9051, 0446)877-9051
진종기공(氣功) 道 협회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확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 인 •

불심 돈독한 공양주 보살을 구합니다.

경북 고령 약수정사
0543)954-6194~5
053)761-6363
011)501-2219

비구니 스님이나 처사분 중 사찰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

석굴암 동굴속
062)652-4730
019)602-6667

•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승적탈퇴공고

대한불교 삼론종 귀하

■사찰명 : **인덕사** 혜 관 스님(승적번호 12-212)
■소재지 :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 479-1

본인 혜관은 1998년 12월 23일부로 대한불교 삼론종의 승적을 탈퇴합니다. 이에 공고로 알립니다.

탈 종 공 고

조동종 총정 예하
■ 소재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산 95번지
■ 사찰명: 광덕사
■ 주 지: 정연철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8. 11.

• 기 타 •



만사형통 신비의 달마상 선착순 접수
자녀 합격여부 및 사업계획 취업, 승진
사주, 궁합, 작명등 육효로 100% 알수있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1번 출구
전 화(02) 446-2446~7
수식역학 원장 이 수 정

전통사찰 건축 불사

등록제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집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행운결혼 상담소

초 · 재혼 특별상담
●엘리트 우수회원 다수확보
●성심, 성혼 책임 보장
●신원확실, 비밀보장
※부모님 상담 환영
(代) 02)960-4564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칠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기적의 피라미드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 사찰안내 •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천안근교
◇법당 : 23평 ◇요사 : 30평
◇부지 : 620평
◇가액 : 3억(절충가능)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실사용 1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2평
◇ 가격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안내

■위치 : 양평군 양수리근역
■건평 : 총7동 140평
■대지 : 2천평
■매가 : 13억원
※ 강남에서 30분거리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사찰로서 서울-양평간 4차선 국도에서 300m거리에 위치
■특징: 중개인사절
011)659-8538
0338)771-5737

포교당 인수하실분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시장입구 2층
◆평수 : 법당 30평,방 2칸 10평
◆시설 : 부엌, 옥상 있음
(주인직접 운영할 포교당 인수할 분)
◆가액 : 시설비 500만 보증금 1,000+30
◆가격은 1/2 가격임
053)557-1145

사 찰 안 내

◆위치:공주시 백용리 신풍리
◆부지: 2,030평(명당자리)
◆특징: 병풍같은 산이 뒤에 둘러 싸여 있으며, 전기, 전화선 가능, 도로인접, 공주 · 천안에서 승용차로 20분거리, 지하수 완비
◆수행정진하실 스님이나 불자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011)494-2750(근암스님)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급매) ※
032)831-3889
012)925-6118

사 찰 안 내

◆지안 용담댐 상류
◆경치좋은 유원지내 도로변 사찰!!
◆종교용지 500여평, 석굴암 (법당) 15평, 요사 35평
◆양도가: 1억 2천만원
0655)433-2900
0652)282-1536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10-2561
02)482-4550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 법당 : 1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6,000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 및 별장

■위치 : 가야산밑
■대지 : 평수 152평
■건평 : 15평
■가액 : 4천 5백 절충가능
◆산세수려하고 약수좋고 신축 건물 기와집
0543)955-7768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77-2117
052)248-7362
018)587-3585

사 찰 안 내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 내
◆법 당 : 18평
◆요사채 : 30평
◆전세금 : 이천 오백만원
◆급한 사정으로 즉시 입주가능
0654)461-4152
011)579-9865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전남 고흥 ◆ 부지 : 2,413평
◆ 법당 : 21평 (전통목조) ◆ 요사 : 2동 30평(전통목조)/10평(전통목조)
◆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가격 : 답사후 절충
◆ 특징 : 신도시 포교권에 속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빼어난 경관과 자연 탑바위가 조화된 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할 수 있고 하루 2번 섬으로 연결된 바다길이 진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열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천하절경의 기도 도량입니다.
※ 본 도량은 부처님 정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무속인, 일반인, 특히 보살전화 절대사절합니다.

부처님의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21세기 불자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351-4447 / 011)736-4447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팔당대교에서 10분거리)
◆대지 : 1천평 ◆답 : 30평
◆법당, 산신각, 목조
◆주지실 1동, 요사1동, 후원채 1동 총 연건평 90평
◆매가 : 8억 3천 5백만원
0338)771-5737
011)380-9168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김제시
◆부지 : 370평(아담한산속)
◆법당 : 39평(철근콘크리트)
◆요사 : 30평(방2, 주방, 거실)
◆전세 : 5천만, 매가 9천만
◆기타 : 동불, 사리1과 발견
0658)542-5859

토굴, 암자, 선방 최적지 양도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으로 보이는 명도 - 약 2,000평 (약간의 대지와 초막한채)
012)587-6233
(호출시 지역번호 반드시 입력바람)

포교원 안내

◆위치:총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불, 약사여래불 1불,종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탐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44-2459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 지 차 동 광
대 중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종무소 : 993-3161~3
주지실 : 993-5002
F A X : 993-3164

서울.은평구 사원연합회
회 장 서 성 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국사) 부회장 이법성(관음사)
부회장 김혜진(시연사) 부회장 김혜장(송천사)
총 무 김도광(봉광한의원) 서혜인(신흥사)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 성 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 법 성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 성 운
부설 인 덕 노인복지회관
인 덕 재가노인 치매센타
인 덕 노인학교
인 덕 어린이집
수 색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
▶ 서울시 진관외동 488번지
삼천사 : 02)359-7766
인덕원 : 02)385-8205~6
FAX 02)358-2286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무진장 이사장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 재 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고귀함을 영위하는 환자 중심병원
동 서 병 원
동서한방병원
병원장 허준영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44번지
TEL : 053)655-0300

약사여래 기도도량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번지
TEL : 053)851-0516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주 지 자 호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52-1
TEL : 053)781-5794

사회복지법인
감천(甘泉)
이사장 오 정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온누리에 불국정토가 발현하기를…"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151-1
TEL : 053)981-1552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지 도
사부대중 일동
■ 대구시 남구 대명2·8동 19-1번지
TEL : 053)476-7700
FAX : 053)476-7733

대한불교 조계종
통 천 사
주 지 이 선 지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번지
TEL : 053)941-3503

영남불교대학
학 장 우 학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TEL : 053)474-8228

대구불교방송 예술단
총 재 신법타
지도법사 장 적
단 장 이용너(원각해)
부 단 장 이달철(이 영)
기획국장 이상대(성 운)
협 창 단
운영회장 백영숙(대광지)
■ 대구BBS : FM 94.5MHz
TEL : 053)427-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토함산 석굴암
주 지 오 법 달
■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번지
TEL : 0561)746-9933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원 장 이 혜 운
신 도 일 동
■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번지
TEL : 053)622-0336
053)629-4945

안경테 수출업체
진양 산업사
대 표 강인성(성월)
"새해에는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1336-2번지
TEL : 053)353-1598
FAX : 053)351-9521

대한불교 조계종
백 운 암
주 지 백 운
신 도 일 동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2리 산 129번지
TEL : 0561)748-3530

재단법인 선학원
망 월 사
주 지 동 진
신 도 일 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4
TEL : 0545)972-2700

대한불교 조계종
기 림 사
대 중 일 동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번지
TEL : 0561)744-2292

부산불교 교육대학
총포교사회
총 재 이하우
고 문 이기인 윤재구 이성준
회 장 이동열
수석부회장 박학률
부 회 장 김순경 오일수
신철웅 윤주철 류동길
수석총무위원 김두찬
감 사 김영수 김영구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2층
TEL : 051)802-6101
051)807-7351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외 이사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TEL : 051)464-2020

부산불교 교육대학 총포교사회 5기
유 마 회
회 장 정 수 복
총 무 김 광 문
최 경 자
재 무 여 다 나
■ 장소 :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 시간 : 매주 금요일 19시 법회
TEL : 011)573-4398

불교사회복지효심상조
효심상조회
회 장 강 신 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21-12
TEL : 051)305-2021

범 어 사
금정불교대학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행하자
■ TEL : 051)866-7277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을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 장 박 채 주(춘산)
총 무 강 갑 순(진면)
단 원 일 동
■ 합창단 연습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67 동보빌딩4층
현대불교신문사강당〈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TEL : 051-634-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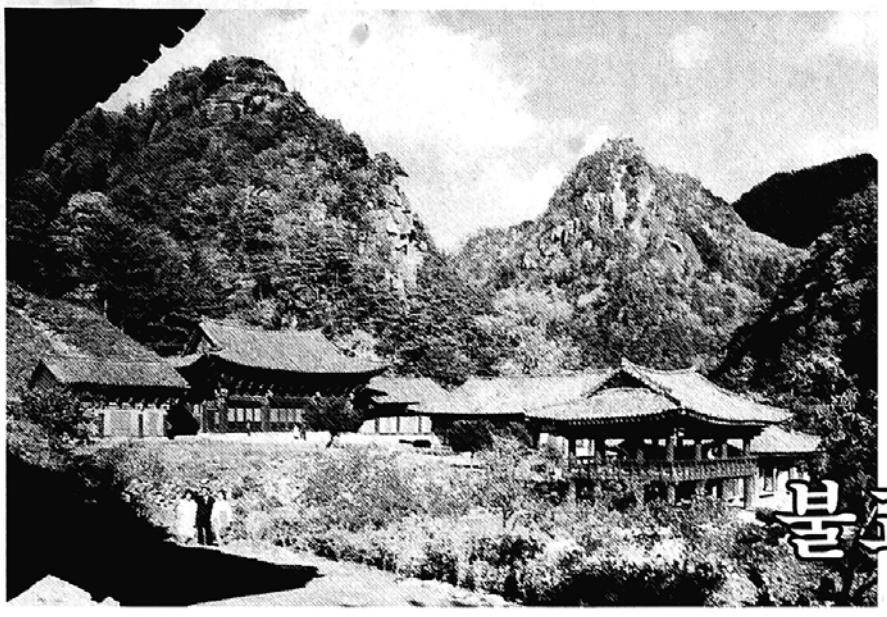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금 선 사
주 지 일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
TEL : 062)942-3260

대한불교 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32번지
TEL : 062)652-4920

度皇宮 달마 심기 천무 기공회
대한불교 달마선원
원 장 태 일 법 사
'99년 1월 7일~8일
육신통 대 용맹정진 정진대법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구 모자원 고개 하차)
TEL: (주)02)821-6622.(야)923-3110
016)239-3110

델리원 베이커리
(그린코아 상가내)
"새해에는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안 법 인 합장

협신문구사
대 표 변 팔 수
■ 대구광역시 칠성1가 19-3번지
꽃시장 동쪽 100m지점
TEL : 053)424-6105



금강산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리면서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불교계도 각 단체들이 대북교류의 양적, 질적 성과를 높히며 통일운동의 토대를 공고히 했다. 염원으로만 그칠 수 없는 현재의 지상과제인 통일. 부처님은 '화쟁사상'과 '불일불이 사상' 등을 통해 대립을 초월한 자리에서 하나로 합일되는 자타일여를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통일의 정신적 원리를 되짚어보고 새해를 맞은 불교계의 통일운동을 전망해 본다.

불교의 통일운동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종교계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통일을 이끌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금강산 4대 사찰중의 하나인 표훈사.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렸다. 민족의 영산 금강산 관광길에 오른 관광객들이 천선대에서 만물상을 배경으로 환호하고 있다. 언제쯤 자유롭게 금강산의 사찰을 참배할 수 있을까.

화쟁사상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자

통일운동 이끌 불교사상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和와 諍 인정 서로동화

화쟁사상 〈금강삼매론〉〈대승기신론소〉〈열반경종요〉〈법화경종요〉 등에서 폭넓게 설명되고 있는 화쟁사상은 서로 다른 견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관용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는 논리의 세계다.

원효스님은 〈대신기신론소〉에서 '마치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와 바닷물이 따로 둘이 아닌 것처럼, 중생의 일심에도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眞如)와 그렇지 못한 무명(無明)이 둘로 분열되고는 있으나, 그 진여와 무명이 따로 둘이 아니다'라고 화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인간세상의 화(和)와 쟁(諍) 두 측면을 모두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두 측면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근원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로 동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다. 바닷물과 파도의 근원을 다르게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원효스님은 또 〈금강삼매경론〉에서 '진속무이 불수일(眞俗無二 不守一)'로서 화쟁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진리의 세계와 속세의 현상이 둘이 아니며 하나를 부정(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쟁사상은 신라 이후 통일과 화합, 평화의 원리로도 꾸준히 연구되고 실현되기도 했다. 오늘날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도 이 사상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不一守)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근원적인 통일의 정신을 찾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통일 논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부정하고 한쪽으로 합치는 서구의 변증법적인 논리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불일불이(不一不二)사상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이 사상은 대립된 모든 현상들이 하나로 합일된 세계를 말한다. '하나가 모두요, 모두는 또한 하나(一卽一切 一切一卽)'라는 화엄 연기사상이 완성된 자리인 것이다. 개체와 전체가 동시에 부정됨으로 절대 진리의 세계를 구현했다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정태혁 교수(동방대)는 이 사상을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과 접목시켜 통일의 논리를 모색하기도 했다. 즉 '불일불이(不一不二)' 사상은 갈라진 둘이 다시 합치기 위해서는 둘 다 자기의 입장을 비워야 하는데 이때 마음을 비운다는 것에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부정의 파사(破邪)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긍정의 현정(顯正)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 합쳤지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며, 둘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라는 조화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불교계 통일운동 전망

북녘동포돕기등 지원사업 활발
부처님 가르침 실천 이론 정립해야

불교계 통일운동이 북식량지원사업과 같은 근시안적인 '통일노력'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해에는 실무자 차원에서 통일이론 정립과 통일 이후 포교프로그램 마련 등 근본적인 통일대비에 노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는 지난해 교계 통일운동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했던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샵'과 통일포럼을 정례화해 통일정책마련을 위한 토론문화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평불협도 북한불교연구활동과 전문연구지를 발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새해에는 각 불교통일운동 단체별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정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는 국제사회에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실상을 알려 국제민간구호단체를 통한 지원을 촉구하고, 라진-선봉지역 탁아소 및 유치원과의 국내 결연사업을 전개해 남북간에 작은 관심과 나눔이 조국통일을 이루는 단초가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등을 통한 남북불교 화해분위기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처럼 새해를 맞은 불교통일운동 각 단체들은 남북불교교류 '고지선점'을 위해 소속 종단과 단체, 개인입장에 따라 '폐쇄적인 통일운동'을 펼쳤던 지난날의 행태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모을 전망이어서 향후 통일운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새해에도 불교통일운동단체에는 국내외 정세 파악과 분석, 타종교계 '북한공략'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통일대비책 마련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타종교계가 범교단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며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때 민족불사 차원에서의 불교계 통일기금 마련과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방안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불교 현황

사찰 복원-문화재 보수 '관광자원화'
WFB가입…열반·성도·석탄절법회

〈한국종교연감(1982년刊)〉에 따르면 1942년 당시 북한에는 579개의 사찰과 2,271명의 승려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37만5천명에 달하는 불교 신자가 있었던 것(〈조선중앙연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60여 개의 사찰과 300여명의 스님, 1만여명의 신도가 있다. 또 91년말 기준(문화재관리국 발표)으로 불교문화재는 국보급 문화재 51점 중 19점(38%), 보물급 문화재 53점 중 35점(66%), 사적지 73곳 중 불교사적지 4곳(5%)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1980년 정무원(일종의 국회)이 유적지구 지정 및 보존 활동 조치를 내리고, 조선유적유물도감 전 20권을 편찬하면서부터 사찰 및 종교시설 등을 증축·보수하는 특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83년 묘향산 보현사 팔만대장경 보전고 건립, 91년 대성산 광법사 및 94년 정능사 복원 및 조선불교도연맹 사무실 신축 등이다.

이같은 북한의 사찰 복원과 문화재 보수 움직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인민들의 휴식공간의 확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등의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찰의 발굴과 복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그것들의 건축예술사적 및 미술적 의의, 공예 기술적 가치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보존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또 북한은 인민들의 문화휴식처와 관광지로써 사찰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중앙연감〉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지도로 복원되었다고 하는 보현사에 대해 "명승지 묘향산을 탐승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 손님들이 문화 휴식의 한 때를 즐기는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복원된 모든 사찰과 유적에 대해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변화는 80년대 초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1945년 결성된 조선불교도연맹은 1947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북한내 조선민족통일전선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에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가입해 해외활동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조불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스님들은 '석문의범'이라는 불교고유 의식에 의거해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교리를 인용해 설법을 하고 있다. 열반절, 성도절, 석탄절 등 불교 3대 절기에는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스님들의 모습은 최근 보현사 스님들이 삭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삭발을 하지 않은 장발에 평상시 양복을 착용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모두 대처승이기도 하다. 의식 때는 홍가사에 검은 옛 두루마기(양복)을 입는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등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제4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상으로 관음종 총무원장상을 더 제정해 모두 7점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총71점이 접수돼 예년에 비해 참여도가 줄었습니다만, 정성들여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유마상)

우리집에 오신 부처님

류화순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원만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전3동 주공A)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작은 실천 큰 기쁨

김민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A)

◇특별상(천태종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정유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특별상(관음종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조향숙 (대구시 달서구 본동 그린맨션)

◇특별상(진흥원이사장상)

사섭법을 애인삼아

양보리심 (고양시 마두동 880-15)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참가상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시상식 추후통보〉

우리집에 오신 부처님

류화순



그림 · 문병성

"항상 가정과 남을 먼저 생각하라"
법문에 감동 고객을 나처럼…

결혼한 지도 32년….

친가에서 자랄 때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는 어느 아주머니의 중매로 결혼, 9남매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1970년 여름에 1만7천원 하는 월세 가게 방 한칸을 얻어 다섯 식구가 분가하게 되었다. 이사가서 보니 낡은 집이라 비만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서 세숫대야로 받쳐 두어야 하고 벽은 전체가 흙벽이어서 문만 크게 닫으면 벽에서는 미끄럼을 타듯이 흙이 흘러내리는 소리에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가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얼마 되지 않은 쌀을 아껴 먹는다고 해도 어찌나 빨리 줄어드는지 다섯 식구가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다. 가장인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고민만 하고 있어 시집올 때 화장대 값으로 가져왔던 얼마되지 않은 금액을 내놓았다. 이 돈으로 살아보자는 말에 남편은 밑천이 적게 드는 세탁업을 시작하자고 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여 세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리미 하나, 다림질판 하나, 옷걸이 몇 개, 재봉틀은 시집올 때 가져온 것 등이 전부였다. 남편은 다림질을 배우고 나는 수선, 염색, 짜깁기, 세탁 등을 배우면서 2평 남짓한 가게에 '형제세탁소'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수물지역에 으슥하고 한적한 곳이라 거의 손님이 오지 않았다. 당장 끼니가 걱정이라 하는 수 없이 나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남의 집 품팔이, 관공서 이불빨래 등을 했다. 배가 고프면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으니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허기진 배에 고무줄을 더 땡기며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볼 때마다 눈을 반 정도 감으며 침을 한 번 삼키면서 배고픔을 참았다. 일을 해주고 받은 삯으로 종이 봉투에 혼합곡 반되를 사서 밥을 지을 때 이끼니 한 줌, 저 끼니 한 줌, 나누다 보면 반되의 혼합곡 쌀은 보기만 해도 줄어진듯 싶었다. 시집올 때 해가지고 온 옷들은 다 낡아서 입을 옷이 없어 부잣집 쓰레기통에서 깜깜한 밤에 주어다 입어도 부끄러운줄 몰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배가 고파 젖이 안나올 때는 진정 가슴이 저몄다.

생활이 너무나 어렵자 남편은 교회에 나가면 신도들이 도와준다고 하여 나를 몇 번이고 설득시켰지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싫다고 하여 여러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1987년 이웃집 보살님 소개로 향림사에서 방생이 있다 하여 남편을 졸라 방생을 따라 갔다. 방생의식에서 큰스님 법문중 "효는 만선의 기점, 효를 떠나서는 부처님 법을 찾지 말라"는 말씀과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종교는 두번째라는 말씀이 특히 인상깊었다. 그리고 방생이란 이타주의로 미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비록 가난한 환경에 쪄든 나였지만 새로운 삶에 눈을 뜬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던 내가 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염색, 짜깁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한 결과 나날이 세탁소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니 가게 수입도 꽤 많아졌다. 남편과 나는 수입의 90%를 저축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생활했다.

한 달에 두번씩 초하루법회나 보름법회에 참석하며 부처님 공부에 환희심이 났을때 남편은 "교회에 나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더니, 왜 그렇게 자주 절에 가느냐"며 화를 내곤 했다. 그리고는 만약에 또 절에 나가면 이혼을 하든가, 절에 그만 다니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다.

어떠한 대답도 할수 없었던 나는 감히 큰스님을 친견하여 "절에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쭈었다. 스님은 〈봐서 행하는 길〉 책을 주시면서 행동으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에 집에 와서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문득 잠이 깨어 옆을 보니 스님이 주신 책을 남편이 읽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집안일만 손색없이 해놓고 다니라고 허락했다. 나는 너무 기뻐 남편에게 합장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단칸방 문옆에 108염주 걸어 놓고 아침예불을 올리며 부처님께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남편은 예불을 모시는 것은 좋으나 가게집이니 소리없이 마음 속으로 하라고 했다. 소리없는 예불과 발원을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한지 3년만에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불교가 좋으냐며 묻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울고 말았다.

그뒤 1991년 8월 향림사에 광주불교대학이 설립되어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남편에게 사정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던 날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으니 제발 2년간 결석하지 않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발원을 했다.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교수님의 강의내용이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합장의 의미, 삼배 뜻, 오체투지, 삼학, 육바라밀, 인과사상 등을 배우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했다. 세탁업도 항상 '고객이 나'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수입이 늘어나서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이층집을 지어 예불방도 하나 만들고, 아이들 방도 하나씩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 삼남매를 키우면서 유치원은 물론이고, 학원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5인가족이 단칸방에서 밥상을 책상삼고 발을 포개고 잠을 자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아이들. 텔레비전도 대학가서 아르바이트로 장만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말없이 자라준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층집을 지은 우리 온가족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행복한 나날이 되어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하며 한숨을 돌릴만 하니 기쁨도 잠깐 남편에게 당뇨병이 오고 말았다. 당뇨병은 밥을 많이 먹어서는 안되는 병이었다. 지난날에는 밥이 없어서 먹지 못했고 이제는 살만한데도 먹어서는 안되니 정말 가슴이 아파 한숨밖에 안나왔다. 남편의 체중이 68kg에서 55kg으로 감소되면서 기운이 없어서 세탁업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전국에서 좋다는 한약과 처방약을 다 써보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혈당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기에 이웃에 있는 내과병원에서 알약을 3일분씩 지어 먹기 시작했다.

그날이 지장재일이어서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엎드려 울면서 1시간 정도 참회기도를 올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왼쪽 귀에서 "걱정마라, 걱정마라" 두 번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아침에 우연히 신문을 펼쳐 읽는데 '댁의 비방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에 어느 아주머니의 건강고단백 식품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처방대로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건강이 나쁜 것도 전생의 업보이니 참회기도를 아침에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삼선승가대학

1999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 격 : 98년도 봄 수계자(행자교육 14기)까지 타 승가대학을 2년 이상 휴학한 학인
▶모집학과 : 사미니과 OO명 ※편입생도 약간명 모집함
▶시험과목 : 서류심사, 필기시험(초발심자경문, 불교기초지식, 사미니율의), 면접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이력서, 승적재적증명서, 은사스님 추천서,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본인도장, 증명사진 3매
▶준 비 물 : 장삼, 오조가사, 필기도구
※95년이후 수계자는 사미니의제 착용
▶시험일시 : 1999년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5
삼선승가대학 ☎ (02)923-0582
▶교 통 편 : 전철→ 4호선 성신여대(돈암동)역 하차. 버스→ 미아리 고개 하차

[강 의 내 용]
◆내 전 : 치문, 도서, 서장, 선요, 절요, 대총상,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오가해, 원각경, 80화엄경
◆외 전 : 동양철학개론, 인도·중국·한국불교사, 불교교리사, 선종사, 불교윤리학, 조계종사, 불전개설, 한문, 외국어
◆기 타 : 꽃꽂이, 지공예, 염불

삼선승가대학장 묘 순

주식회사 아라 종합건축 · 건설

대표이사 · 건축사 김 기 상

직 원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장석빌딩 3층)
TEL : 02)555-1567~8
FAX : 02)3443-7894~5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 산 일 공
종정사서실장 임 체 관

원로회의 원장 황 법 운인
원로회의 원장 송 보 인관
원로회의 의장 조 성 관
원로회의 부의장 김 인 관
총무원 총무원장 최 법 륜인 / 총무부장 장 체 승
총무원 총무국장 이 체 인 / 재무부장 박 대 월
총무원 사회부장 임 보 광 / 사업부장 구 성 도
총무원 사업국장 강 체 도
포교원 원장 조 성 견
포교원 부원장 노 정 관
포교원 부장 주 체 법
교육원 부장 이 체 원
교육원 국장 이 진 운
규정원 원장 민 성 운
규정원 국장 박 체 성
문화원 원장 김 선 진

각시도 종무원
인천종무원장 장체승 / 경기종무원장 차성인 / 충남종무원장 김체의
전남종무원장 이정광 / 경북종무원장 손지관 / 강원종무원장 류무송
제주종무원장 한진성

종립 동원불교대학 학장 김 법 장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 02)857-5094 / FAX : 02)859-1042

남편 건강 되찾고 9남매 모두 불자로
후손에게 정법 물려주는 전법사 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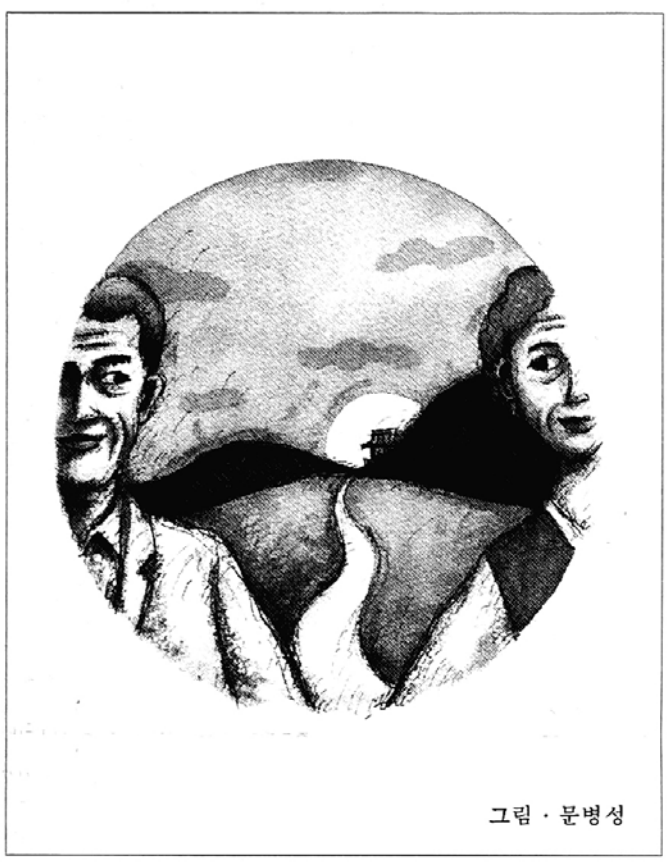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교대학의 강좌는 일주일에 두번이지만 세탁업을 하면서 내 시간을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남편의 보살핌으로 2년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졸업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3월 불교대학원 모집요강은 가져다 놓았으나 도저히 다닐 엄두를 못내고 있을 때 남편이 나 몰래 입학금을 내주며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고맙기만 했다. 하루는 불교방송에서 4박5일 해남 대흥사 수련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오라고 배려도 해주고 삼천배 참회기도도 허락해 주었다. 나의 신행생활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남편에게 나도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항상 부처님처럼 모시기로 마음 먹었다. 대학원 졸업여행 성지순례가 일요일이어서 남해 보리암에 가서 참배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관세음보살상을 무심코 찍었다. 필립을 현상하려고 사진관에 갔더니, 잘 찍었다며 어느 유명한 작가의 사진이냐고 물었다. 그때부터 이 사진을 확대하고 코팅해서 액자에 넣어 불자 가정마다 나누어 주었더니 더욱더 많은 불자들의 신심이 두터워졌다.

그뒤 큰스님 법어나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테이프 등을 복사해 나누어 주며 신행생활을 했다. 우리가 세탁업을 시작한지 어언 30년, 다른 업소보다 고객이 많은 탓인지 10여년 전부터 남편의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며 어깨 통증이 심하고, 손등에는 밤알만한 혹이 생겼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약, 양약, 단방약을 다 썼어도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 의사선생님이 어깨를 쉬어주며 적당한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깨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30여년 세탁업을 하다보니 고객이 엄청 많아 도저히 쉴 수가 없어 세탁업을 그만두기로 했다. 막상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하다가 1996년 음 4월24일 일요일 관음재일날 남편에게 절에 기도를 가자고 했다.

그날따라 비가 와 남편은 거사들이 거의 오지 않을것 같으니 싫다고 집 밖을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가며 간절한 소원이라며 손을 잡고 애원을 했다. 하루종일 이슬비는 오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관음정근을 종일 하다가 저녁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향림사 큰스님께서 남편에게 무슨 보따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점심을 먹으면서 꿈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수저를 들다 말고 "참 이상하다. 나도 어제밤 꿈에 큰스님이 오셨는데…" 하는 것이다.

남편 꿈속에서 "스님, 저는 이팔을 도저히 못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하자 스님께서 "오른손 옷소매를 걷어 올려라" 하시고는 하얀 칼로 오른손 팔꿈치 안쪽으로 20㎝ 정도 수술을 하시더니 흰셋으로 15㎝ 정도 되는 하얀 힘줄같은 것을 꺼내시며 "다시는 안 아플거야" 하시면서 손으로 간져주시고는 사라지셨다는 것이다. 남편은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몇번이고 만져보아도 정말 아프지 않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실제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워 못견디던 남편의 어깨가 안 아프다니…. 그 손등의 혹은 어디갔나?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가 보다….

점심을 먹다말고 가게로 나와 우리집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며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두손 모아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를 몇번이고 불렀다. 절에 다닌다고 이혼까지 강요했던 남편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 체험까지 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편의 당뇨병도 좋아져 병원약 신세를 지지 않고도 정상 혈당, 정상 혈압으로 건강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조상님의 은덕이 아니며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이 아니겠는가!

내 아들은 내과의사지만 아버지가 약을 복용 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몇번이고 의심하다가 지금은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마음 속에 모시면서 환자를 진찰한다고 한다.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종교는 자유라며 불교는 미신을 믿는다고 시댁의 9남매 온가족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불자가 되었다. 93세 되신 친정아버님도 관세음보살님 사진 앞에 앉으셔서 염불로 하루를 마치시며 갖가지 지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 아이들 돌은 불자가정과 인연을 맺어 다복하게 살고 있으며, 교사인 막내딸은 아침은 못먹어도 예불을 꼭 올리고 출근하는 모습 등을 보니 나날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양가 부모님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씀이 큰 교훈이 되었다. 요즈음 IMF로 힘들다 해도 열심히 바르게 살다보면 분명히 밝은 내일이 있을거라고 믿어지며, 항상 아이들 교육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보고 자란 것이며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불자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국 불자가정 거사님들이 법회에 많이 참석하고, 부처님 정법을 배워 거사님들이 앞장서 포교하고, 불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요사이 남편은 늘 나의 손을 잡고 지난날 전생의 업보 때문에 당신을 괴롭게 했다며 미안해 한다. 온가족이 오계를 받은 뒤 육식은 일체 사다먹지 않는등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후손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재산은 부처님 정법이다. 재산은 잘못하면 자식간에 의리도 상하고 우애도 끊길 수 있지만 부처님 정법은 지혜의 등불이니 어찌 전법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소원이 있다면 부족한 전법사이지만 병원 환자들에게 우리의 체험담을 들려주며 위로하고 싶고,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과도리 등을 전해 가르치고 싶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심사평



◇구랍 28일 한마음사랑방에서 본심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24점 본심…이타행 · 자기수행 내용많아

총 71점중 예선을 통과한 24점의 작품이 본선 심사에 올랐다.

예년에 비해 참가 작품수는 줄었으나 내용의 감동성 등 질적으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보살행이나 보시행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많이 담겨있었다. 신행형태도 단순한 기복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자기수행의 교리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불교신행의 현장이고, 바람직한 양상으로 본다. 이는 그동안 사찰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이 붐을 이루고 정기법회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다만, 처절한 체험이나 새희망의 절실함이 담긴 작품은 구성이나 문장력에서 결핍됐고 문장력이 우수한 작품은 체험의 깊이가 덜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상을 선정하면서 실천의 측면과 절실한 삶의 감동성을 두고 오랜동안 숙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문학회가 아니기때문에 감동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작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끝에가서 '부처님 가피'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상태에서 마무리되어버려, 새로운 삶의 문제가 제시되는 암시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고은시인(본사 논설고문) △법산스님(본사 논설위원 · 동국대 불교대학장) △김광삼 본사사장 △최정회 본사편집국장

가족애와 하심 일깨운 스님에 감사

당선소감

대상(유마상) 류화순



저보다 더 열심히 수행정진 하시며 간절한 체험을 하신 법우님들이 많이 계실텐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신다니 송구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90을 넘기신 양가 부모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피력을 주신 부처님께 두손 모아 감사를 올립니다. 하심과 인과의 도리를 깨우쳐 주신 향림사 조실 천운큰스님께 항상 감사 드리며 헌신적인 사랑과 자비로운 보살핌으로 짧지않은 시간들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집 거사님과 가족 그리고 인연 닿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화주하며 전법하는 불자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행정진하며 포교하는 불자가 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나무지장보살님처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을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謹 · 賀 · 新 · 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勤賀新年
韓國佛教 法華宗
종 정 김 혜 윤

원 로 원 장 박 종 화
총 무 원 장 김 혜 민
종 회 의 장 김 혜 명
감 찰 원 장 박 세 장
서울교구종무원장 김 영 장
경기교구종무원장 박 옥 산
충남교구종무원장 김 병 준
충북교구종무원장 박 웅
경북교구종무원장 김 정 호
부경교구종무원장 서리 김 묘 연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이 법 연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TEL : 02)745-1590 FAX : 02)742-1590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학암당 홍 혜 암
종정사서실장 석 도 성

승정원장대행 육 대 월
총무원장 석 마 정
원장사서실장 석 정 광
부 원 장 석 덕 치
종회의장 석 죽 산
부 의 장 석 유 공
사정원장서리 이 진 공
포교원장 지 혜 봉
교육원장 석 진 공
문화원장 석 장 운
부 원 장 석 해 석
수선원장 석 보 공

사무총장 석 청 강 규정부장 석 법 인
총무부장 양 벽 암 홍보부장 조법운성
사회부장 홍 법 진 동원부장 석 마 인
재무부장 석 마 월 섭외부장 안 응 암

국제불교포교사대학
국제禪권법술총연맹
회 장 김종윤

▶ 총무원: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80
전화 : 0336)643-8254, 0554/
FAX : 0336)643-8254
▶ 서울사무소: 광진구 중곡2동 124-7
전화 : 총무원장直 02)456-1963
FAX : 02)447-5291

대한불교 법성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서 덕 암

원 로 원 장 법주 박 영 식
총 무 원 장 덕암 서 장 근
종 회 의 장 혜승 고 대 환
교 육 원 장 만원 이 홍 종
포 교 원 장 재령 김 선 중
총 무 부 장 혜운 안 병 엽
교 무 부 장 혜선 류 지 형
포 교 부 장 보현 조 보 현
규 정 부 장 혜윤 김 승 만
재 무 부 장 옥천 유 옥 순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1-14호
TEL : 02)747-2202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
종 정 한 구 하
의 장 정 희 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 희 수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6호
TEL : 02)730-0798~9 FAX : 02)722-3205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總務院長 洪印谷
副院長 金普眼·金智庵

總務部長 李智性
教務部長 片白雲
財務部長 禹慧空
社會部長 林虎溟
糾察部長 玄守悅

中央宗會議長 金一宇
副議長 金大雲 柳南坡

中央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 우 540-800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TEL : 0661-754-5247 FAX : 0661-754-5043
▶ 서울종무처 : 서울 성북2동
TEL: 02)745-2030 FAX : 02)745-6364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國星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朴德水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監査院
宗會議長 尹德山 監査院長 朱正山
副議長 金國星 監査委員 李法山
副議長 裵斗出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 忠北 丹陽君 永春面 柏子里 132-1
전화 : 0444)423-7100~8 / FAX : 0444)20-3399

大韓佛教眞覺宗

總印 覺海

總印司書室長 惠淨

統理院長 省超
總務部長 悔淨
財務部長 守性
文化社會部長 無畏
建設部長 惠明
總務局長 觀天
管財局長 證光
文化社會局長 圓明

宗議會議長 烋明
副議長 一成
副議長 修淨

查監院長 鎭山
查監部長 常濟

教育院長 一靜
教育部長 觀證
教法局長 悔省

眞覺大學長 碩峯
教務局長 悳正

宗學研究室長 惠淨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 FAX : 02)913-0755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總務部長 李法善
教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教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02)928-3797, 926-9752

佛教總指宗

宗領 綠靜

統理院長 總持華 宗會議長 松霞
總務部長 知性 副議長 法靜
財務部長 善導願
教政部長 圓滿願 法藏院長 曉岡

查監院長 圓峰
查監委員 法靜 서울·경기 教區長 園松
查監委員 法成 충청·전라 教區長 法水願
查監委員 始覺化 대구·경북 教區長 修成
查監委員 心地莊 부산·경남 教區長 義剛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FAX : 02)552-1082

大韓佛教眞言宗
宗理院

종정 육자 六字
원로 재산 霽山
석암 石庵
종리원장 금광 金光
재무부장 종밀 宗密
종회의장 법륜 法輪
호법원장 국복 菊馥
감사원장 혜공 慧空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3(용두 진광원내)
TEL : 02)967-2479 FAX : 02)968-3350

韓國佛教 曹洞宗

종정 박운파

부종정 정영봉
승정원장 윤지명
종회의장 신법련
감찰원장 강연봉
선원장 석덕운
포교원장 박달제
교육원장 강범해
호법원장 한학봉

국제불교문화원장 안송봉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송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570-6번지
TEL : 02)642-2090, 20910(FAX 겸용)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대산
부종정 석봉
승정원장 각화

총무부장 대정 종앙종회의장 대아
부원장 진봉 사정원장 신수
부원장 청봉 재정원장 혜광
총무부장 인봉 포교원장 법진
교무부장 지연 호법원장 대운
재무부장 암도 교육원장 정봉
사회부장 지겸 수선원장 대심
홍보부장 문화원장 우담
교리연구원장 현강

삼론종 종도스님들께서는
모든 신분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 02)3216-0165 / FAX : 02)3216-0166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종정 석봉
총무원장 송산
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경신
교무부장 진웅
사회부장 혜월
재무부장 보성
포교부장 법운
서울종무원장 대명

원로원원장 인현
종회원장 성타
사정원장 대원
복지봉사원장 대경
문화예술원장 원표
연수원장 백담
국제포교원장 평일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 0331)262-1577, 263-1353 FAX : 0331)262-1577
※미등록 사·암 등록 신청 받습니다.

전자대장경 법음 가상공간서 '나래'

개별화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즉 이진수(+ - -)로 변환해 축적하는 정보화 시대가 열렸다. 90년대 초 종무행정 전산화가 추진되는 등 '정보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불교계는 이제 멀티미디어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대를 맞았다.

불교계는 전산화의 틀 속에서 가공된 '정보'의 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99년 한 해 동안 불교계에서는 PC통신, 인터넷, 인터넷TV 등을 매개체로 '정보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불교계 '정보화' 현황과 전망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99년 한국불교 정보화 어디까지

한국불교가 '디지털화', 즉 개별화된 자료를 모으는 정보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년 남짓 된다. PC통신에서 불교동아리가 생기고, 불교방송이 '불교 공공정보'를 개발·보급하면서 첫발을 내딛은 후 조계종 총무원이 98년 11월 사찰·기관·불교학·인물 등을 멀티미디어 정보로 제공하는 '달마넷 프로젝트'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불교계는 천리안·하이텔 등의 통신망에서 문서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인터넷과 인터넷TV 등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3차원 정보를 서비스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축적하는 '정보화'에 불교계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불교계 전반에서 '전환 시대'의 상황, 즉 정보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PC통신

불교계 정보화 첫 무대였던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기존 통신망에는 이미 불교동호회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정토회, 불교경전연구회 등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후발주자인 넷츠·고, 채널아이, 신비로 등 전국통신망과 경주·부산·논산텔 등 지역통신망에서도 불교동호회들이 잇달아 개설됐다.

이들 불교동호회들은 올 한 해를 신행뿐만 아니라 전자포교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불교계에서 PC통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산원에서 추정하는 PC통신 이용자는 3백50만명.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불교를 일반인에게 알리기에는 PC통신만큼 좋은 공간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동호회에서는 회원들이 가상공간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복지 등 신행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불교동호회 운영 및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교동호회는 불교계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장으로써 PC통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계종사태를 걱정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불교동호회 게시판에 실시간 게재돼, PC통신이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매체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PC통신에서 불교계는 주로 동호회나 신행단체 위주로 조직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독교계는 교회, 선교회, 대학, 성경, 신학, 문학 등 각종 연구모임과 기도모임, 독서모임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PC통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교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인터넷TV

지난 한 해 동안 종단과 교계 신문·방송국은 물론 복지·봉사단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연이어 개설, 인터넷 활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통계자료를 게재하고 북한동포 돕기를 호소했다. 자비의전화는 상담사례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상담코너도 개설했다. 생명나눔실천회은 95년부터 98년까지 장기기증자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기증자를 모집했고, 소쩍새마을도 인터넷에서 후원자를 모집했다. 증앙승가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피안넷(PIAN-NET)은 하루 평균 2백여명이 접속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비백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국제원효학회, 전자불전연구소 등 학술단체에서도 불교문헌 전산화에 주력했다. 부다피아 쇼핑몰은 교계 최초로 가상공간에 불교용품점을 개설, 불교계 전자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산화에 첫 발을 내딛은 후 6년 동안 불교계의 정보기술이 급성장했고, 종단이나 거대 신행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 신행단체에서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올 한 해에도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불교정보의 다양성과 양적 성장이 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몰라도 가정용TV로 인터넷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는 '인터넷TV'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처음 종단 전산화 계획을 세운 천태종의 경우 전산화의 일환으로 '인터넷TV'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계종, 진각종에서도 인터넷TV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이 번거로운 전산교육을 받지않고 가상공간에서 '불교정보'를 이용하기에는 인터넷TV만큼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 인터넷TV의 보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지금까지 불교계 '정보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승가의 인식 부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업

투투컴퓨터 등 사찰종무관리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들이 다양한 종무 관리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잇달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고려대장경' '디지탈불경' '화엄변상도'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등 불교 관련 CD타이틀이 속속 출시돼 불교계 정보사업도 성장했다. CD타이틀 제작에는 천리안, 하이텔, 승가대 등 다년간 축적된 전자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상공간의 신행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전 전산 입력만을 위해 결성된 천리안의 '불교경전연구회'에서의 CD타이틀 제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계 정보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올 한 해에도 불교계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인터넷TV를 이용한 '정보화'에 쏟는 노력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 개인이나 집단 등 개별적인 힘과 역량만으로 다양한 정보 축적을 시도하고 있어, 정보의 중복과 인력·재정의 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불교 조직인 '정보·통신위원회'(가칭)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이 발족하면 교계 정보화의 거시적 마스트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계종·총무원이 지난해 10월 스님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사찰종무행정 전산교육 현장.



◇부디피아 홈페이지.



◇생명나눔실천회 홈페이지.

PC 통신 **인구 350만…동호회·사이버법회 활발**

인 터 넷 **홈페이지·쇼핑몰·TV 전자포교 선도**

정보사업 **종무관리SW·디지털불경등 CD 출시**

대만서 열리는 전자불전회의

한자 입·출력-전자지도 논의

18~22일 12개국 학자 60여명 참가



◇제5회 대만 전자불전회의에서 시연될 고려워드 실행화면.

경전 전산화와 관련해 유일한 국제협의체인 제5회 전자불전회의(EBTI)가 18~22일 대만의 국립연구소 '아카데믹 시니카(Academic Sinica)'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12개국에서 60여명의 불교학자·정보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그동안 전자불전회의 쟁점은 '보다 많은 한자를 쉽게 입·출력'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한자를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현재 한자 입·출력에 이용된 2바이트 체계는 1만5천여자만을 사용할 수 있다. 대장경에 사용된 8만자의 한자가 한문장경의 전산화의 걸림돌인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한 해동안 개발한 4바이트 워드프로세서 '고려워드'와 고려대장경 인터넷 웹서비스 등을 시연,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와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 종교철학) 등도 참석, 〈한국불교전서〉 전산화와 산스크리트사전 발간 등의 진행 과정을 각각 설명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제1회 전자문화지도회의(ECAI)도 함께 진행된다. 미국 버클리대학 랭카스터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자문화지도회의는 각국 문화유산의 정보를 담은 멀티미디어 전자지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

전자문화지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계지도를 제공하고, 그 위에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인터넷 기술로 맵핑(Mapping)해 제공한 것. 전자불전회의와 전자문화지도회의가 함께 열리는 것은 대장경이 아시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기 때문.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은 "문헌의 데이터베이스화에만 주력해온 경전 전산화 사업이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전자문화지도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자불전이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공인받는 계기를 맞게됐다는 것이다.

오증욱 기자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불교살력

추가제작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43년도 불교달력을 배본하시다
부족하신 여러 스님네의 요청에 의하여
불교달력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음력 설까지 적은량의 달력도
주문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강 진 정 판 사
TEL. 02)272-2371 · 269-5040
02)275-9472
FAX. 02)268-2391

謹·賀·新·年

한 일 시멘트공업(주)

대표이사 허 동 섭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TEL : 02)531-7000

실직자 돕기 등 복지사업 노력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힘들다고들 하지만 전법을 향한 불자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교계 주요 단체들도 전법과 수행의 알뜰한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한해를 시작했다.

교계 주요단체 새해사업 계획

북한 어린이·인도 의료시설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유해환경 추방
노숙자 무료급식·군포교 진흥

▲**한국JTS**=북한지원사업으로 나진 선봉지역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영양식 제공사업을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비료 농약과 기초의약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인도지원사업으로는 기술, 보건위생교육 등과 지바카병원 병실 신축 등 의료공급체계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리는 선우**=새해부터 시민선우회 사업에 착수해 사회시민운동 참여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랑선우회에서 해오고 있는 사관학교 중심의 군포교를 일반 군부대까지 확산시켜 현실적인 군포교프로그램 마련한다. 5월에는 큰스님 염주 자선바자회를 겸한 이벤트를 열어 수익금으로 청소년 장학기금과 학림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도덕성에 기초한 불교시민운동전개로 불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고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불교바로세우기에도 적극 동참해 종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수행풍토정착에도 힘쓸 예정. 인도의 아침을여는작은마을 개소식, 보문동 실직자 쉼터 개원, 열린학교 개소식 등 적극적인 사회구호사업도 계속 전개한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우리문화자강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운동과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2월 초 일꾼 워크샵 개최를 비롯, 성숙한 불교인이 되기위한 교양학교를 추진한다. 8월에는 청년불자로서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부산 불국토**=불교사회운동단체로 변모하는 기반 다지기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98년 발족한 청소년 문화지킴이단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99년 1월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한다. 또한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재소자 교정교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습득,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에 대한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무료급식 등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는 한편 큰스님 초청법회, 경제인 초청법회를 통해 실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연 2회 전국금융단 합동법회와 분기별 수련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수행정진과 결속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봉사활동도 추진중에 있다.

▲**승가원**=장애인복지사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강원도 횡성에 건립중인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의 임시법당완공과 98년부터 진행한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종합복지타운만들기에 돌입한다. 재활농장사업의 체계적인 진행과 실직자 및 노숙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확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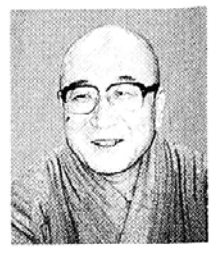
▲**대구불교음악인협회**=오케스트라 반주로 구성된 법요의식 CD를 제작하고, 대구경북지역 5개교구 본사 순회 산사음악회 개최를 통해 문화행사와 포교를 접목시킨 계획이다. 5월에는 대구신도회 주관으로 창작찬불가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사단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며, 회비 책정등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불교TV 사장 권한대행 회암스님●

"3개월내에 경영 정상화 이룰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4차 불교TV 정기이사회에서 사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회암스님(부산 녹야원주지)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당장에 재정 수입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받을지라도 가능한 협찬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미담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환경만이 21세기 영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향후 불교TV의 제작 방향을 언급했다. 또 스님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상환이 끝나면 악성 장기 부채 등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스님은 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 지향, 노사 화합 등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72년 파계사 종수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회암스님은 94년~97년까지 경실련 부산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TV 비상경영체제 돌입

대표이사 신허스님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불교TV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교TV는 구랍 28일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제24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비상경영대책위원회(위원장 신허스님)를 구성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표충사주지 신허스님이 위원장겸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불교TV의 악성 부채를 해결할 것 △팀장급이상 임원진의 일괄 사표를 받을 것 △비대위는 3월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만 운영할 것 △3월 주주총회 때 사장 권한 대행 체제를 일소하고 대표이사직 등 경영진을 선출할 것 등이 결의됐다.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으로는 39명의 이사중 종단사태와 관련이 없는 조계종스님 3명을 비롯해 타 종단스님 3명, 재가불자 3명, 강정기 사업국장, 신동우 노조위원장 등 총1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교TV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한 회암스님(부산 녹야원주지)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 추인은 물론 대표 이사직을 추대키로 합의했다. 김주일 기자

도후스님 이사장 연임

동광스님·회정정사 이사에

불교방송이사회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구랍 28일 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4대 재단이사장에 현행 도후스님을 연임시켰다.

또 등광스님(도선사주지)과 회정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새 이사로 인준했다. 법등스님(종회의장)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됐다.

야후코리아 지도서비스
십자가로 '절'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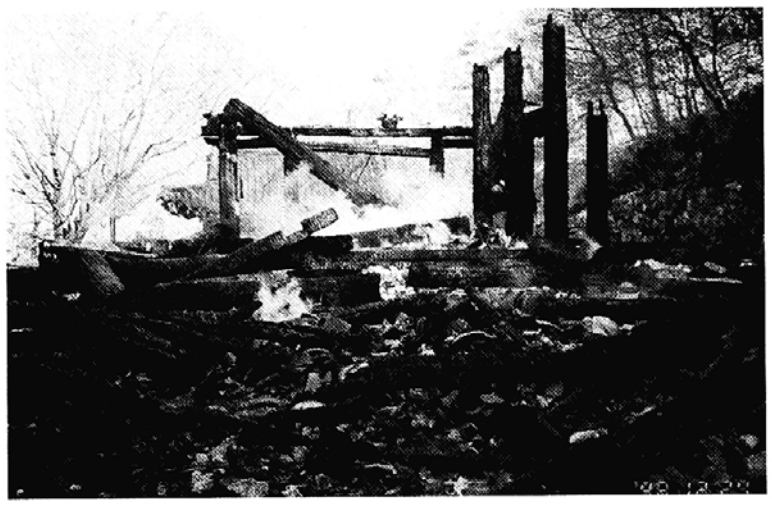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엔진 중 하나인 야후코리아가 사찰을 교회표시인 십자가 기호로 표시해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지도서비스를 시작한 야후코리아 지도서비스(http://maps.yahoo.co.kr)에 들어가면 강남 봉은사를 만(卍)자 표시가 아닌 교회 기호로 오기돼 있다. 또한 지도찾기에서도 사찰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높다. 건물이름으로 찾기에서 교회나 성당은 검색이 되는데 사찰은 십중팔구 검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후 코리아지도서비스에 참여했던 불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중 하나인 야후코리아가 사찰 표시를 잘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야후코리아는 지리정보를 제공한 한국통신 멀티미디어연구소와 협의, 시정할 뜻을 밝혔다.

김중근 기자



◇천안 광덕사에 구랍 30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천불전이 전소됐다.

천안 광덕사 천불전 전소

구랍 29일 방화추정…후불탱화 불타

구랍 29일 새벽 1시경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소재 전통사찰 광덕사(주지 서광)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천불전이 전소됐다.

이날 화재로 보물지정을 추진중이었던 후불탱화인 삼천불직조금화탱삼좌가 불에 타 소실됐다. 이 후불탱화는 3점에 각각 천불씩 3천불이 그려져 있으며 높이 12m, 폭 9m로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주불인 비로자나불과 가섭·아난존자입상를 비롯 한석봉이 쓴 천불전 현판 등도 불에 탔다.

사찰측은 "천불전이 열쇠로 잠겨져 있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가 날 이유가 없었다"며 "법당 앞에서 못을 빼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덕사 일대는 타종교인에 의한 훼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1월에는 타종교신도는 물론 목사와 전도사 등 1백여명이 안양암에 무단 침입해 훼불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광주 대각사 스님·신도
천주교 성탄미사 참석

성탄절을 하루 앞둔 구랍 24일 스님과 대학생 불자 등 30여명이 종교간의 화합과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미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남구 대각사 주지 도산스님과 광주대 불교학생회원 30여명은 천주교 봉선동 성당(주임신부 김동술)에서 열린 성탄미사에 참석. 김중근 기자

영각사 납골당 상량

2만5천여기 안치 시설

경기도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17일 오전 10시 납골당인 사원극락영묘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내년 부처님오신날 1차 완공될 예정인 영묘전은 약 3만5천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다.

현법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교계에는 수많은 사찰과 단체에서 납골당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도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며 "영각사 영묘전은 금년내로 최적의 시설을 갖춘 최현대식 납골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하청업자 폭행혐의
금선사 피의자 무죄

부산 금선사(주지 유초)와 공사업자간에 마찰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법원에 기소했던 사찰측 피의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구랍 24일 김모피고인 등 4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천미회 기자

가야사지등 5건 충남도문화재 지정

충청남도는 구랍 28일 가야사지 등 5건의 문화유산을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기념물로 지정된 가야사지는 대원군이 명당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썼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예산군 화엄사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필적 암각문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함평이씨 종가인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영모재는 유형문화재로, 춘잠(春蠶)에서 나오는 명주와 모시를 섞어 옷감을 짜는 기술로 양이석옹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춘포짜기(청양군 운곡면 후덕리)는 무형문화재로; 조선 명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김임선생 신도비(新道碑)는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됐다.

이로써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백25건, 기념물 1백40건, 무형문화재 23건, 문화재자료 2백73건 등 모두 5백61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대전 사암련회장 법열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구랍 17일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미륵사 주지 법열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신임회장 법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 회원사찰간의 화합을 통해 대전불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12월 15일~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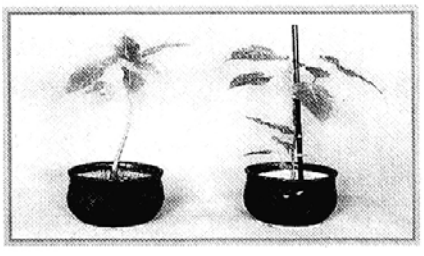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인도 부다가야 産

보리수묘목 보급안내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진하셨습니다.
첫 사미승인 부처님의 아들은 부처님의
유산(法)을 보리수 아래서 받았습니다.
그 보리수를 사찰과 재가불자님들께 보급합니다.



● 보리수는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나무입니다.
● 가족간에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 소원성취를 약속하는 나무입니다.
● 모든 문제에 답해 드리는 나무입니다.

■ 일반불자께는 한주당 15만원에 판매합니다.
■ 사찰에는 무료보급
※ 안착재(적응약재) 판매, 배송료 별도부담

21C 보리수회
▶연락처: 019-268-6754
※ 전국지역 판매처를 모집합니다.※

1박 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안내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수련주제로
아래와 같이 주말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배워서 삶의 길을 밝히고자 하는
대원사 정토수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매주 토요일 5시 ~일요일 2시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선체조,명상음악, 육근참회, 관정기도, 운력등
▶수련주제 : 죽음을 준비합시다.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없음<무료>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날에서 1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 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군내버스 3회 운행 : 8시 40분, 12시 40분, 4시 30분>
▶연 락 처 : ☎ 0694)852-1755
FAX 0694)853-0009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주지 석 현장

복지시설 가족후원자 급증

'아침을 여는 집' 후원자중 30%이상 불자가족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불자가족의 따뜻한 온정이 교계 복지단체 곳곳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거리로 나온 실직자들도 모두 우리의 가족 아니겠어요"라고 말하는 김진옥씨(서울 삼성동)는 경제난으로 남편의 사업도 타격을 받아 살던 집도 빚으로 날려버렸지만 실직자무료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은희, 선희, 윤희 세딸과 매월 작지만 큰 힘을 담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서소문공원 한편에 문을 연 실직자무료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에는 전체 후원자 1천여명 가운데 3백여명이 넘는 후원자가 김씨 가족처럼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모아 후원에 나선 이들이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교계 단체와 복지관의 실직자 구호프로그램에는 이처럼 가족후원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친지와 이웃 등 뜨다른 가족에까지 퍼져나가 새로운 신행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마산 중리복지관 한가정결연맺기사업을 통해 남편 광찬제씨, 아들 현진, 현식군과 함께 실직장애인부부가정과 결연을 맺어 왕래하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안도련씨(마산시 회원구)는 "가족이 함께 후원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원력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씨는 "가족후원활동은 가정이 바로 불법실천의 도량임을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리복지관에는 현재 12가족이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소외된 이웃과 결연을 맺어 후원활동을 전개중이다.

"부모들의 실직으로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시작한 일에 딸과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이숙희씨(서울 압구정동). 지난 10월부터 옥수복지관에서 대학원생인 딸과 함께 후원금 지원은 물론, 월요일~금요일 도시락준비봉사와 남편의 도움을 얻어 도시락 차량운반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무료급식소와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실직자 쉼터 등을 운영중인 옥수복지관에도 전체 후원자 5백여명 가운데 10%가 넘는 60여명이 가족후원자다.

이같은 불자가족의 후원 동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지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침을 여는 집의 임효정 대외협력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불자가족들이 발심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실천적 자비행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추락경찰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사진 가운데)은 구랍 24일 청사 퇴거집행(23일) 때 고가 사다리에서 추락 부상당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 위문했다. 도법스님은 서울 중구 필동 중앙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인 전병주 순경(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입원)과 경찰병원에 입원중인 임낙규, 심재경, 염성철, 김원영, 황산덕, 전중익 순경을 차례로 방문 "종단 내부의 일로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고영배 기자〉

"불교발전은 인류의 발전"

기자회견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태고종 전 종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인 제16세 종정의 법좌에 오른 덕암스님은 구랍 28일 주석처인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특히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사를 잊고 종권다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양대산맥인 태고종 종정으로 다시 추대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은 여생을 한국불교가 올곧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은 "수행과 포교, 도제양성은 물론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힘써 명실상부한 태고총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승과 교화승이 하나된 대승교화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역량을 모으겠습니다"라며 종정취임 첫 사자후를 일갈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동조동근(同祖同根)이며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관계로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덕암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 법에 의지해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종도들에게 촌음을 아끼지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덕암스님은 구랍 15일 선암사에서 열린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뉴스 & 뉴스

대법원 송병욱씨 무죄판결

98년 4월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상고 기소된 前 불교방송 송병욱 상무가 구랍 2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송병욱씨는 이미 2심에서 무죄판견을 받은바 있다. 김주일 기자

호국도솔사 찬불가 발표

강원 양구 백두산부대 호국도솔사(주지법사 정연태)는 구랍 27일 대웅전에서 제1회 어린이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명조 이야기' '사자좌' '우리절 연못' 등 10여곡이 선보였다. 호국도솔사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법회를 창립, 매월 사경및 사불, 찬불가, 율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김중근 기자

광명선원 삼천배 기도법회

서울 광명선원(원장 초격)이 10일~12일 개원 6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삼천배 정진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스님 등이 법문한다. 이은자 기자

저소득가정에 '자비의 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대표 진관 석담 진욱)는 구랍 23과 29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저소득 실직가정 50가구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29일 서울 도봉구 창1동~5동을 돌며 25가구에 쌀 40kg 한 가마씩 전달했다. 또 23일에는 강북구청을 방문, 쌀 40kg 25가마를 전했다. 도필선 기자

능인정사 이웃성금 전달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스님)는 구랍 28일 서울 성수2가 1동사무소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서재섭씨, 모자가정 세대주 이현씨, 생활보호대상자 최선동·이이쁜씨, 지체2급장애인 정정모씨 등 다섯가구에 1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심우회 군장병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3일 강원도 2사단과 2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고 군장병들을 위로했다.

위문법회에서 심우회 김명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한 군생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회는 떡과 음료수등을 마련하여 위문행사를 열고 난로와 보온물통등 위문품을 군부대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제1회 실상문학상 시상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는 구랍 29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제1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첫 수상자는 김용태 신라대학교 총장이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승가원 법당완공

7일 천일기도 입제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최근 횡성 종합복지타운의 법당을 완공하고 7일부터 종합복지타운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천일기도 입제에 들어간다.

대지 6백6㎡에 건평 49평 규모의 법당에는 50여명의 신도들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으며, 일법스님이 기도를 주관한다. 문의 (02)928-075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경주 운불련 창립

호출택시 운영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불자로 구성된 경주운전자불자연합회(회장 안종대)가 구랍 27일 불교사회교육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호출택시(0561-741-8282~4)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운불련은 이날 창립법회를 계기로 경주를 찾는 불자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구속스님·불자 석방운동 불교인권위 대책위 구성

불교인권위원회, 동국대 석림회를 비롯한 교계 24개 승·재가 단체가 조계종 사태로 구속된 스님과 재가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4개 단체는 구랍 28일 '12·23 구속자 석방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지원·효종)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구속된 스님들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스님들이 아니다"고 밝히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는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탄원서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표충사 일대 사명대사 성지로"

밀양시, 통도사 연계 불교관광벨트화 추진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 일대가 사명대사 성역지로 개발된다.

또 95년 건립에 들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명대사 생가 복원도 현재 3천여평에서 1만4천여평으로 4배가량 확대 개발할 방침이다. 사명대사 성역지와 생가 등을 비롯한 밀양지역 불교관련 시설을 묶어 양산 통도사와 연계한 불교관광벨트화 사업도 추진된다.

밀양시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불교관광벨트화 사업을 확정하고, 국비·도비·시비 등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6월 사업에 들어가 2002년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무안면 무안리 사명대사표충비각이 있는 홍제사 인근 부지 4천8백50평을 매입, 조경시설과 함께 성역지 돌레를 옛날식 기와담장으로 단장해 성역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 무안파출소 청사도 부근 무안초등학교옆 부지로 이전하고 파출소자리는 조경시설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목탁소리

'卍'을 '十'으로

오종욱 〈취재1부 기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인터넷에서 일어났다. 봉은사, 봉원사, 불광사, 개운사 등 서울시 주요 사찰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교회로 둔갑한 채 서울지역 지도정보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야후코리아(사장 염진석)가 지난해 12월4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웹 서비스 '지도서비스(http://maps.yahoo.co.kr)'에서는 봉은사, 불광사 등 서울 소재 주요 사찰 표기를 '卍' 아닌 교회를 표시하는 '十'로 게재해 불교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지도서비스'는 한국통신멀티미디어연구소 GIS팀(팀장 김성룡)이 5년간 축적해 온 지리정보를 토대로 서울 지역의 전자지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야후코리아에서 웹사이트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GIS팀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로 개발했을 뿐"이라며 "정보의 정확성은 GIS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멀티미디어연구소 안병익연구원(GIS팀)은 "지도란 공간의 모든 형상물의 위치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기호 수를 줄여야만 전자지도의 실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十'를 선택해 종교기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징성은 짓밟아도 좋다는 것인가. 과연 이같은 생각을 0.01㎜ 오차도 놓치지 않아야 할 한국통신 GIS팀의 경우 5년 동안 국내 지리연구에만 몰두해 온 팀인데,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十'로 밖에 표기할 수 없었을까.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기술이다. 그만큼 오픈(open)된 정보의 파장효과는,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지 대단하다. 인터넷에는 정보를 올릴 때 정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표적인 정보회사 한국통신, 야후코리아는 기술자의 편리만을 생각한 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gobaoou@buddhapia.com)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편입생모집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자신과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본 대학은 초 종단적인 7년제 종교교육대학으로 20여년간 수백여명
포교사 법사와 승려를 양성한 실력과 전통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 합니다.

● 모 집 과 정 ●

과 정	수업년한	졸 업 후 특 징
대 학	2 개년	포교사 품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대 학 원	2 개년	법사 품수, 출가 희망자는 대학과 연관된 종단 승려로 득도
삼장법사	2 개년	삼장교법사 품수, 국내외 포교원 사암등 개설시 주지, 원장으로 임명

· 본 대학 교양대학과정은 6개월코스로 수시입학 접수함.

● 입학자격과 절차 ●

해당과정에 실력 있는 불자는 성별 나이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음.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에서 해당 년한을 수학한 자.
1) 본대학 소정 입학원서 및 심사카드(사진 4매 첨부) 각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 수학 증명서 1통
입학절차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까운 분은 본 대학에 직접 접수가능

● 원서접수와 교육제도 ●

· **원서접수는 1999년 2월 10일까지**,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개별통지 함.
· 1학기(6개월)당 교재비 12만원 학비 부담, 특강, 스쿨링 통신 교재 교육.
· 지역 학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등 3개 분교에서 특강 교육을 함.
· **부산분교 석림정사**에서 매월 2째 4째 일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정기적으로 특강이 있음으로 입학전이라도 수시 특강 받을 수 있음.

한국불교교육대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2 FAX 02)821-0543
부산분교, 釋林精舍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1동 705번지 전화 051) 581-4111,582-4110
■ 석림정사 오는길 ▶ 부곡시장 하차→ 부곡1동 사무소앞→ 부곡여중앞→ 보덕사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러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HOME 홈TV인터넷(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전화 : 02)295-6660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인터넷의 사찰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홈쇼핑,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웍 형성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C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세계최초!!! 위성인터넷 실시

- 홈 TV 인터넷이 불교계에서는 세계최초로 전국 사찰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TV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 최신의 불교정보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고 3Mbps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불교 정보화를 위해서 홈 TV인터넷이 제공합니다.
- 회망하시는 사찰이나 신도분들에게 위성수신 안테나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해 드립니다.

TV인터넷 협력기관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일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솔빛미디어, (주)쌍용, 제느시스템, IBKorea, IBCanada, 서울은행, 한국즉보신문사, Kweather, Webkiosk, 교학사, 우리교육사, 오토마트, 한국인터넷TV금융정보, 마루시스유한C&T, 한국디지틀포럼, 코리아인터넷, 유니버셜레코딩, 시티넷, 조이스타클럽, 다우시스템, 고니아 정보통신, ICN인천방송, 멀티스콜&넷, 월간유아, 테크월드, 마이크로비전, 에이디시스템, 월드크래프트, 제우스엠텍, 하나엔지니어링, 정일엔지니어링, 태흥정밀, Z-ram, 사주도사, 한솔디자인, 성동초등학교,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인터넷 매직 프라자, FIX 프로덕션, Kitel, 서울대논술연구회, 뉴스플라워, 인터넷의료정보

문의전화 : 홈TV인터넷(주) 02)295-6660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단말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단말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위성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http://www.home.co.kr